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오스트리아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3
3.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전망	4
4.	한국과의 무역관계	5
5.	한국과의 투자관계	6
6.	수입규제사례/종합	7
7.	현지히트상품/수영복 ECOSUN.....	8
8.	현지히트상품/ carving ski.....	9
9.	현지히트상품/음료수 Red Bull.....	10
10.	현지히트상품/지뢰탐색기 Schibel Minensuchsystem AN-19/2	10
11.	진출 성공/실패사례/T사의 넥타이 진출 성공사례	11
12.	진출 성공/실패사례/S사의 핸드폰시장 진출 성공사례	11
13.	진출 성공/실패사례/D사의 실패사례	11
14.	진출 성공/실패사례/수입상 A회사의 실패사례	12
15.	진출 성공/실패사례/H사의 무선전화기 진출 성공사례	12
16.	진출 성공/실패사례/현지인을 활용한 시장침투 성공사례 ..	12
17.	주요이슈/유러화 도입에 따른 영향	13

18.	주요 이슈/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오스트리아 기업	16
19.	주요 이슈/오스트리아 IT 기술수준	18
20.	주요 이슈/오스트리아 학계, 경기부양책 촉구	18
21.	주요 이슈/오스트리아기업들 기술혁신 유럽연합내 4위	20
22.	주요 이슈/오스트리아, 의류직물협회 중국과의 전쟁선포 ...	21
23.	주요 이슈/오스트리아의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 성공적	22
24.	주요 이슈/오스트리아 2005년 수입시장전망및 시장진출전략 ...	23
25.	주요이슈/오스트리아 내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비준 전망	24
26.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27
27.	환전	29
28.	기후	30
29.	공휴일	33
30.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35
31.	호텔	36
32.	식당	38
33.	교통/통신/교통,통신	41
34.	유용한 연락처	44
35.	여행시 유의사항	48
36.	관광명소	51

37.	유용한 현지어 표현	54
38.	국토	56
39.	국민	58
40.	역사	63
41.	국가조직	68
42.	정치제도	70
43.	정치사회동향	73
44.	국가원수	81
45.	주요인사	82
46.	행정구역	85
47.	대외관계	88
48.	국가경쟁력	91
49.	도량형	92
50.	관공서 관행	93
51.	국제공항 및 항구	94
52.	매스미디어	94
53.	주한 주재국기관	96
54.	물가정보	97
55.	경제발전사	98

56.	경 제 정 책	101
57.	금 융 통 화 제 도	102
58.	주 요 산 업 동 향 / 전 체 산 업 동 향	105
59.	주 요 산 업 동 향 / 광 업	108
60.	주 요 산 업 동 향 / 교 통 , 관 광 업	109
61.	주 요 산 업 동 향 / 금 융 업	112
62.	주 요 산 업 동 향 / 농 림 수 산 업	113
63.	주 요 산 업 동 향 / 석 유 화 학 산 업	116
64.	주 요 산 업 동 향 / 일 반 기 계 산 업	119
65.	주 요 산 업 동 향 / 자 동 차 산 업	120
66.	주 요 산 업 동 향 / 철 강 , 금 속 산 업	123
67.	주 요 산 업 동 향 / 환 경 산 업	125
68.	지 적 재 산 권	126
69.	소 비 자 보 호	127
70.	수 입 관 리 제 도	128
71.	관 세 제 도	129
72.	통 관 절 차	131
73.	유 통 구 조	132
74.	국 제 입 찰 제 도	133

75.	외 환 관 리 제 도	134
76.	시 장 특 성 / 시 장 규 모 및 특 성	135
77.	상 거 래 시 유 의 사 항 / 상 거 래 체 크 포 인 트	138
78.	전 반 적 투 자 여 건 / 투 자 진 출 환 경	142
79.	투 자 유 치 정 책	145
80.	외 국 인 투 자 제 한	148
81.	투 자 진 출 절 차	148
82.	지 사 및 현 지 법 인 개 설 / 지 사 개 설	151
83.	공 장 설 립	153
84.	산 업 단 지 / 인 두 스 트 리 젠 트 룸 엔 외 쥬 우 트 (Industriezentrum Noe-Sued).....	155
85.	자 유 무 역 지 대	156
86.	조 세 제 도	157
87.	사 회 간 접 자 본	159
88.	노 동 여 건	162
89.	사 회 보 장 제 도	164
90.	현 지 생 활 여 건	168
91.	이 주 정 착 가 이 드 / 이 주 . 정 착 가 이 드	170
92.	자 녀 교 육 여 건	173
93.	진 출 기 업	175

94.	주요 경제지표/경제수치 및 전망	177
95.	대외거래지표	178
96.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출 대상국	178
97.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입 대상국	179
98.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	180
9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입	181
10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오스트리아의 품목별 수출입현황	182
10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오스트리연도별수출입규모	184
102.	대외 투자진출 통계/건수 및 금액	185
103.	대외 투자진출 통계/국가별 점유율	186
104.	대외 투자진출 통계/오스트리아대외투자누계의업종별통계 .	187
105.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건수 및 금액	188
10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가별 점유율	188
107.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외국인 직접투자누계의업종별통계	189
108.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진출, 유치)...	190
109.	물가금융지표	191
110.	노동통계	192
111.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192

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명	오스트리아 (Austria, 獨文 Oesterreich)
위치	중부유럽 하부
면적	83,871 km ² (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기후	대륙성 기후
수도	비인 (獨文 Wien, 英文 Vienna)
인구	812만 (인구밀도= km ² 당 97명, 한국은 약 480명)
주요도시	비인, 그라츠, 린츠, 잘쯔부르크, 인스부르크
인구증가율	년간 약 0.42% (인구노령화로 고민)
인구 구성	게르만계 88.7%, 소수민족 2%, 常住 外國人 9.3%
상주외국인	舊 유고슬라비아인 35%, 터어키인 12%, 독일인 14%
종교구성	카톨릭 73.6%, 개신교 5.5%, 이슬람 4.2% 無宗教 12.0%, 기타 4.6%
언어	독일어
건국일	최초 건국년은 996년, 국경일 10월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Dr. Heinz Fischer (국가원수) (취임일: 2004년7월8일, 임기: 6년) 총리 W. Schuessel (실권자) (취임일2003년 3월4일, 임기: 4년)

경제지표 (2004년도, 2000년도 불변가격 기준)

GDP	EUR 2,300억
실질 경제성장률	1.9%
1인당 GDP	(경상환율) EUR 28,254 (세계7위, EU평균=EUR 24,300PPPs)
GDP 구성	서비스업 64.0%, 제조업 19.9%, 건설업 7.7%, 농임업 2.4%
경제의 수출의존도	약 35% (한국:약 32%)
실업률	4.5%
소비자물가상승 율	2.0 %
화폐단위	Euro (유럽화폐동맹 참가국)
환율	1 US\$ = 0.8244Euro (2005년6월28일기준)
외채	US\$ 320억(2003년도)
외환보유고	유럽중앙은행EUR 3,153억 유럽중앙은행 보유 금(외환계산에서 제외)= 4억2천만 파인온즈
산업구조	제조업 20%, 유통업 13%, 금융업 8%, 건설업 7%, 교통통신 6%
교역규모	EUR 1,173억 (오스트리아 수출) EUR 1,177억(수입)
교역품	공업설비, 자동차 부품(오스트리아 수출) 자동차, 전자/가전제품(수입)

한-오스트리아 관계 (2004년 기준)

체결협정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및 무역협정(1892년) 1965년 재수교 경제협정으로는 무역협정, 섬유협정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교역규모	US\$ 6억7천만 (우리나라 수출) US\$ 4억5천4백만 (수입) (2004년 기준)
교역품	산업용전자, 수송기계(우리나라 수출) 금속광물, 일반기계 (수입)
투자교류 누계	00년, 17건 US\$ 1억8천만(우리나라 진출) US\$ 1억8천7백만 (유치)
교민	약 300명, 체류자 약 1500명

자료원: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발간 2005년 연감 및 Wirtschaftblatt (2005년 6월)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 경제개황 >

2004년도는 오스트리아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내수시장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다.

- 수출 다변화 정책, 특히 동유럽진출 전략 성공하고 있으나 서유럽, 특히 최대교역국인 독일 불황의 영향으로 2003년도는 불황.
- 미국과 독일의 경제 회복세로 2005 오스트리아 경제 회복전망.

< 경제동향 >

2004년도 오스트리아는 예상 밖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3억 유로에 못 미치는 적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매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관광수지를 반영하여, 만성 무역 적자국인 오스트리아는 예상외의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호조와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04년 오스트리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하였던 +1.7 ~ +1.8%보다 조금 높은 +1.9%를 기록하였다.

- 2003년 3월 초 25년만에 오스트리아에서 대규모 유전발견, 니더외스터라히주 호헨루퍼스도어프: 450 ~ 750만 배럴 추정.
- 국민당/자유당 연정성립으로 경제정책 변화 없을 듯. 긴축정책, 사회복지비 삭감정책 지속

< 교역 동향 >

Euro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2004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3%, 수입은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무역호조세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교역국인 독일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10여년 전부터 동유럽 대상 무역에 노력한 결과로 이제 오스트리아의 독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함

-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수출 다변화 정책이 결실 시작.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교역대상국인 서유럽국가에 대한 수출신장은 저조한 편임.
- 오스트리아의 대 아랍 수출 약 Euro 10억 (1.5%) 대 이라크 수출 약 Euro 9천만 (0.13%), 이라크로부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수입원유의 10%로 이라크전으로 인한 수출 타격은 크지 않았음.

자료원 : Wirtschaftblatt 지 종합(2005.5) 및 Eurostat.

3.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 전망

2005년 오스트리아 경제 및 수입시장 전망

堦, 2005년 수입시장 전망 및 시장진출 전략
 내구재 소비활성화 등 한국산 수입 희망적 요소 많아
 섬유·의류 등은 EU 쿼터해제로 불리할 듯

< 개요 >

2004년도에 1.7%의 저조한 실질성장을 보였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5년도에 세제개혁효과 등에 힘 입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며, 수입시장의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 2004년 오스트리아 경제 분석 >

2004년도에는 오스트리아 내수시장이 부진했던 반면, 수출이 8.3%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미국, 일본, 중국경제의 활성화가 오스트리아 수출산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2004년도 하반기부터 기업인들의 체감경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2004년도 오스트리아 내수시장의 경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 가구당 실질가처분소득 증가가 +1.5%에 불과한 소득증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돼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2005년도에는 내수시장 회복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2005년도 전망 >

올해 내수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에 따라 가구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2004년도 중반 오스트리아 국회를 통과한 신세법은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 50%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과세표준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세제개혁효과로 올해 오스트리아 가구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평균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소득증가 수치 중 최고 수치여서 실질적인 소비증대가 기대된다는 것이며, 수입시장도 오스트리아 내수시장 회복에 힘입어 신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수입시장 전망 >

특히 지난 3년간 저조했던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산 승용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부품 수입시장 역시 희망적이다. 한편, 휴대폰, 위성수신기 등 IT 관련품목도 수입이 계속 늘 전망이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유럽연합 쿼터제가 해지되면서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타 범용제품의 경우에도 가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간품질의 중간가격제품은 시장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하자면 고품질 고가제품과 저품질 저가제품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 시장진출전략 >

수많은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처음에는 다품종 소량주문이 많고 C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나 제품설명서가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것을 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확한 시장 상황판단 및 대상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KOTRA 각 무역관이 개재하는 시장정보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심층적이고 능동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KOTRA 본사에 관심이 시장조사 대행을 신청해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약 5~10개의 국가 무역관에 시장조사를 의뢰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시장공략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 2005년 5월분 종합

4. 한국과의 무역관계

< 한-오 관계 >

-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에 정식 외교관계 수립.
-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주오대사로 민영익 임명. 민영익은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1900년 6월 이진범이 참사로 부임.
- 수교 기념 오페라를 작곡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은 오스트리아 황궁 전속 작곡가는 "한국의 처녀"라는 오페라를 작곡. 1897년 궁중극장에서 초연.
- 1901년 11월 민철헌이 오스트리아/독일 전권대사로 부임. 1902년 고종은 대한제국 장군갑옷을 기념으로 선물하였으며, 프란츠요셉 황제는 답례로 대형 탐시계를 선물.
- 1905년, 일제의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로 한-오관계가 단절됨.
- 1963년 5월23일, 대한민국(ROK)과 오스트리아공화국(AUT) 재수교.
- 대한민국 1967년부터 오스트리아에 상주 대사관 설치.
- 오스트리아는 1969년부터 서울에 영사관 설치, 1985년부터 서울에 상주대사관 설치.
-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
- 협정 : 무역협정, 섬유협정, 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 2005년 3월 현재 주오 대사: 조 창범.

< 교역규모 >

-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역규모가 US\$ 5억을 넘어섰음. 2004년에 전년 동기 대비 대오스트리아 수출이 큰 폭(61.1%)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역량은 41.2%가 증가하였음. 2002년 교역 규모가 43% 급증하여 7억불 규모가 된 후, 다시 2003년 교역 규모가 7억9천만불대에 이르러 2004년 교역량 10억불 시대를 맞이하였음.

< 무역수지 >

- 무역 수지는 1963년 수교 이후 우리나라가 1992년까지 지속적인 대오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3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후 계속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가 1998년을 정점으로 다시 흑자로 전환됨. 2004년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운반하역기계 및 반도체 제조장비 특수로 인해 19.5% 이상의 신장세를 보인 수입 증가를 상쇄하여 약 2억1천6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3년도에는 최대 수출 품목인 핸드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나, 자동차 및 타이어, 반도체의 수출이 이를 만회하면서 3천5백만불 규모의 흑자 실현.
- 대오스트리아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2004년에 2003년 하반기에 주춤했던 핸드폰 수출(재수출 물량 포함)이 다시 활기를 띠고, 반도체 및 자동차, 타이어 품목이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였음. 2002년도를 기점으로 대오스트리아 주종 수출 품목군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 전자제품 등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부문의 수출이 국산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나 IT 제품과 자동차가 주력 수출 품목이 되었음.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6월).

5. 한국과의 투자관계

직접투자

1993-9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오스트리아의 대외 직접투자는 1996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 2001년말까지 오스트리아의 연간 대외직접투자 누계총액은 Euro 40억을 기록하였다, 이중 우리나라에 투자된 것은 2004년 6월 현재까지 총 29건이며 총 투자액은 US\$ 2,192 만이다. [자세한 투자통계는 통계 항목 참조]

대한 투자 주요오스트리아 투자업체로는 SEZ, MAGNA, AVL, PALFINGER, ENGEL등이 있다.

기술협력

한오간의 기술협력 건수는 약 30여건에 달하는데, 포항제철 및 현대자동차와 같이 핵심기술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포항제철, Voest Alpine 사의 산소전로공법 및 Corex 전기로제철공법 도입, 현대자동차-AVL사, 자동차엔진 제작관련 기술협력, 그밖에 오스트리아의 Liebherr(토목, 건축용중장비), Biochemie(의약품), Aichelin Industrieofenbau(산업용 용광로), Ebewe(의약품), Beton-und Monierbau(터널, 토목공사) 등이 우리나라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3월 현대자동차의 슬로비카아 공장 건설 확정발표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의 대한기업과의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이 높아져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자료, FDI Book (2005.6)

6. 수입규제사례/종합

개요

EU회원국으로서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EU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EU와 기준이 다른 품목 역시 조만간 EU기준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제도가 EU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정 관리품목

관리품목은 페니실린등의 항생물질과 농산물, 그리고 전매품인 담배, 소금 등이며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보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품목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상공부, 농림부)등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입 license를 발급하며, 이의 유효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1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2003년 하반기,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오스트리아 수출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수출하는데 필요로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Airway B/L 등이다. 영사인증제도 및 선적 전 검사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상업송장에는 발송자, 인수자, 특수표시, 포장박스의 수, 가격, 원산지 등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섬유류 송장의 경우에는 직물의 모양, 중량, 넓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수입규제

(독어 설명서 첨가 규정)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나 오스트리아의 각종 수입규제,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기술적인 것으로서, 예컨대 가전제품 등의 수입시 독일어로 된 사용자 매뉴얼과 서비스 요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벨링제도)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에는 반드시 독일어 라벨링을 필요로 하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정확한 내용물 분석표(독일어)가 있어야 하며, 섬유류의 경우 취급주의 사항과 세탁요령이 독일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림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어 라벨링이 문제가 된 경우 보세지역에 일단 물건을 유치하고 3주 이내에 독일어 라벨링을 완료하거나 재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EU간의 분쟁 사례

'96.11월 오스트리아 보건부는 EU집행위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독자적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미국산 대두(大豆)의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99년 7월말현재 이 금지조치는 유효하다. EU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독자적 행동을 비난하고 행동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히려 EU측에서 오스트리아의 선례를 따라 EU전역에 걸쳐 유전공학을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별다른 분쟁은 없다.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7. 현지히트상품/수영복 ECOSUN

<상품개요>

- 브랜드명 : ECOSUN
- 원 산 지 : 스페인
- 제조업체 : Induyco-Konzern (스페인)
- 소매가격 : EUR 20.- 부터
- 유사상품 : 없음

스페인 유행브랜드 "Miti Sports Fashion"은 햇빛이 투사되면서 적외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직물을 사용해 생산되는 수영복 ECOSUN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시장에 선보였는데 동제품은 UV선을 그대로 흡수하여 몸을 그을릴 수 있어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구인들이 햇빛에 그을리기를 원하는 욕구 경향과 일치해 오스트리아 수영복시장에서 높은 매출이 예견되고 있다.

햇볕에 굵주린 중북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처럼 오스트리아인들도 하절기에 다뉴브강 등 강변이나 들판에서 혹은 산등성이에서 몸을 그늘리고 동절기조차도 만년설이 있는 알프스의 고산등지에서 스키를 타러 가 얼굴에 햇빛을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맞추어 개발된 동제품의 장점은 수영복을 그대로 입은 채 햇빛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오존에 의해 생기는 위해한 UV선을 특수직물을 사용해 차단시키는 등 2가지 효과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8. 현지히트상품/ carving ski

< 상품개요 >

- 브랜드명 : FISCHER CARVER SKI
- 원 산 지 : 오스트리아
- 제조업체 : FISCHER AG (오스트리아)
- 소매가격 : Euro 200 - 450
- 유사상품 : 존재
- 개요

90년대 중반 일반 스키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수요 창출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음. 이 난관 돌파를 위하여 다른 스키제조회사들이 스키의 재질을 가벼운 물질로 바꾸는 소극적 방법을 채택하였을 때, FISCHER사는 스키의 모양을 바꾸는 혁신적인 작업에 들어갔음. FISCHER사는 스키 국가대표선수들을 참여시킨 다년간의 연구 끝에 Carver 스키라는 신제품을 몇 년 전에 선보인 바 있음.

동제품이 일반적인 스키와 다른 점은

1. 스키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넓고,
2. 스키의 중간부분은 좁게 제작되어 있으며,
3. 스키신발을 장착하는 부분은 다른 곳 보다 2 - 3 cm 높고,
4. 일반스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동제품의 장점은 스피드감이 일반 스키보다 월등하고 동작이 매우 수월하다고 함. 이에 따라 Fun-Generation이라 불리우는 10대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시장에 진출하였고 올해에는 성인들도 Carver 스키로 전환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함. 불행히도 동제품은 EU 특허국으로부터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사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유명메이커들은 일반스키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Carver 형 스키로 전환하고 있음.

FISCHER사 대변인인 Mayer씨는 올해 전체 매출 신장액이 전년 대비 20 -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른 유명 회사들이 유사제품을 선보인 것은 Carver스키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임으로 꼭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Carver 스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FISCHER사의 연구개발 능력이 높이 평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9. 현지히트상품/음료수 Red Bull

- 브랜드명 : Red Bull
- 원 산 지 : 오스트리아
- 제조업체 : Red Bull GmbH (오스트리아)
- 소매가격 : ATS 1.5-
- 유사상품 : Flying Horse, XTC, Flash Power, Dynamite, Mayday, Power Horse

동 제품은 오스트리아 음료수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활성 탄산음료수로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50 ml의 알루미늄캔 또는 병에 담겨져 있다. 동 제품의 광고전략으로서 동제품은 특히 격렬한 운동을 마친 후 에너지충원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음료로서 소개하고 있으며 소비된 에너지의 총당, 피로물질의 신속한 제거, 순환기와 중앙 신경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높은 성과를 유도하는 음료로 대대적인 광고를 전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첫번째 에너지활성 음료생산공급자인 Red Bull사는 주요 자동차 경주시합의 하나인 Formel 1의 스폰서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에 힘입어 단기에 국제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50개의 공급업체가 경쟁하는 오스트리아 음료수 시장에서도 시장확장에 성공하였다. 적극적인 광고 전략으로 "Red Bull은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가 되고 있는 동제품은 소비자에게 에너지활성 음료로 각인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상을 통해 소비자들은 특히 운동전후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제품을 접하고 있다.

10. 현지히트상품/지뢰탐색기 Schibel Minensuchsystem AN-19/2

- 브랜드명 : Schibel Minensuchsystem AN-19/2
- 원 산 지 : 오스트리아
- 제조업체 : SEG GmbH(오스트리아)
- 소매가격 : EUR 800.-부터
- 유사상품 : 현재 경쟁품은 없음

동 제품은 휴대용 지뢰탐색기로서 특히 군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경금속 스틱의 보조로 지면의 상부에서 지뢰위치를 탐색하는 검파링이 허리휴대가 가능한 가벼운 소프트웨어 가방에 접속된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동 제품은 기기의 정확성이 높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뢰탐색기로 인정받고 있다. SEG사로부터 연간 약 5천개 가량 생산되고 있는데 이중 99.3 %가 수출용이며 세계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수요자는 국제연합군, 특히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캄보차 또는 소말리아 등지의 지뢰 수거지역에 국제평화를 위해 투입되는 군대이다. UN0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적으로 약 1억 개의 지뢰가 묻혀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96년도 1월 겐프에서 열린 UN0회의에서 지뢰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통과되지 않아 동 수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 진출 성공/실패사례/T사의 넥타이 진출 성공사례

(개요)

오스트리아의 실크넥타이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국 국가들이 대거 침투하여 한국 회사들이 포기하다시피 해왔던 시장인데, 한국의 T사가 99년 8월 오스트리아 항공사인 L사에 OEM방식으로 실크넥타이 600개 공급 합의하였다. L사에서는 제품의 품질에 만족할 경우 지속적인 공급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오스트리아 시장은 소량주문이 많은데 제품품질이 인정되면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첫번 주문이 적더라도 상대회사의 크기로 보아 지속적인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공급해 볼 필요가 있다.

12. 진출 성공/실패사례/S사의 핸드폰시장 진출 성공사례

한국 S사는 98년도에 오스트리아 핸드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스트리아 전자/통신제품 유통체인인 N사에 따르면 S사의 핸드는 프랑스 Segam사의 핸드와 더불어 히트상품에 속한다고 한다. 두 회사 제품의 공통점은 가격대비 기능이 여타제품보다 뛰어나다는데 있는데, 한국 S사제품은 가격면에서 중상수준 제품들과 대결하였으며 프랑스 Segam제품은 저가제품에 속한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유럽 국가들 시장추세는 품질/브랜드시장(Quality/Brand Market)에서 가격시장(Price Market)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핸드폰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제품시장에서는 브랜드명이 별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S사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수준과 더불어 상대적인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성이 뒷받침되어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성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13. 진출 성공/실패사례/D사의 실패사례

한국의 D사는 오스트리아 수입상을 통해 오스트리아 전자/통신제품 유통체인업체인 N사에 17인치 PC모니터를 공급한 바 있는데, N사 주장에 따르면 6개월 내 고장율이 20%에 달했다고 한다. A/S문제가 제대로 타협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상측에서 배상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동 수입상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실패를 보아 얼마 후 도산하였다. 오스트리아 N사는 그 이후 D사 PC모니터 판매를 꺼리고 있다. 한국의 D사 제품불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의 경우 A/S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지속적인 시장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14. 진출 성공/실패사례/수입상 A회사의 실패사례

오스트리아 수입상 A는 한국회사 U로부터 개스라이터를 공급 받은 바 있는데, 수입 6개월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개스 주입구 부분이 벌어져 개스가 새어나오면서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수입상 A는 한국회사와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회사 측은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절하였다. 수입상 A는 그 후부터 한국제품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는 오스트리아의 개스라이터 시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라이터수입상이며 여타 수입상들은 대부분 영세하여서 현재 오스트리아 라이터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시장이 협소하여 일부부문에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수입상들이 있으며 이들과의 거래가 잘못된 경우 후속 수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15. 진출 성공/실패사례/H사의 무선전화기 진출 성공사례

한국의 H사는 오스트리아의 A사와 장기간 절충을 벌인 후, 오스트리아 통신법 규정에 부합되는 3,000대의 무선전화기 생산에 들어갔다. 품질에 만족한 동 A사는 독일 그룹인 G사에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차 3,000대를 주문하였다.

통신제품의 경우 오스트리아 통신법 규정에 걸리거나 CE마크가 없어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H사의 경우에는 주문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노력한 결과 후주를 따낸 대표적 케이스라 하겠다.

16. 진출 성공/실패사례/현지인을 활용한 시장침투 성공사례

- 한국의 H타이어는 오스트리아에 지사를 설치하면서 본사 파견직원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대신 동 방면에 경험이 풍부한 오스트리아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단기간 안에 시장 침투에 성공하였다.

< 시사점 >

- H타이어의 경쟁업체인 K타이어가 시장침투에 실패하고 지사를 철수한 사실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한국직원이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외국에서는 한계가 있다. 구태여 한국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빠른 시장침투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인다.

17. 주요이슈/유러화 도입에 따른 영향

【 유러화 도입에 따른 영향】

1. 오스트리아 기업이 받는 직접적 영향

가. 비용절감 효과

- 환전료 절감
- 환차손 대비 비용 절감
- 환율에 따른 각종 가격 계산비용 절감
- 환차손 정정구좌 유지 비용 절감
- 유로화 도입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연간 금융비용절감 예상액
 - 약 ATS 190억 = 약 US\$ 15억3천5백만 (1998년 경상환율 기준)
 - 유로화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GDP의 0.8% 수준

나. EU역내 교역 및 역내 상호투자 증가

-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인센티브
 - 실질적인 금융비용절감
 - 환차에 대한 우려 불식으로 심리적 안정
 - 가격비교 용이
 - Just-in-time-Production에 유리. 지리적으로 근거리이며 환차, 통관세 부담이 없어 소량 주문에 응하기 쉬움
- 역내 교역 증가의 결과
 - 역내 가격 및 품질경쟁 강화
 - 유통업종의 대형화
 - 공업원료 및 반제품의 경우에는 Just-in-time-Production을 위한 소량 주문이 강화되어 역외기업들에 대한 소량주문 요구가 늘어나는 반면 해당부문의 역외 Out-Sourcing을 고려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 금융비용 절감 및 역내교역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향후 5년간 매년 +0.4%의 부가적 국내총생산 실질성장 효과
(예 : 유로화 도입이 없었을 때 3 % = 유로화 도입으로 3.4 %)

2. 간접적 영향

가. EU역내 시장통합 강화

- 단일 화폐 통용에 따라 시장통합 심리 강화
- 역내 상품가격 비교가 쉬워짐

나. EU역내 가격평준화 가속 진행

- 국가별 가격차이가 큰 경우 역수입이 가능해져 가격평준화 진행 가속

※ 참고: 1998년 독일의 폴크스바겐(Volkswagen, 약자 VW)사는 역내 회원국간 현저한 자동차 가격차이 때문에 포르투갈에 수출된 후 독일로 역수입되어 판매되는 자사 승용차의 독일내 판매를 저지하다가 EU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을 추징당 한 바 있음.

동일제품의 EU 역내 국가별 가격차이

품 목	승용차	시 계	향 수	청바지	티셔츠
상 품 명	VW Golf	Swatch	Chanel No.5	Levis 501	Lacoste Polo
최고가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최저가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가격차이	34%	53%	24%	34%	28%

다. EU역내 가격 및 품질 경쟁 심화

- 가격평준화는 가격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져 가격경쟁 심화
- 이와 함께 품질 경쟁도 고조

라. 기업 집중 심화

-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영합리화 추진 강화
- 약체 기업은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패배, 도퇴
- 결과적으로 기업집중

마. 대 EU 수출품의 가격/수량 조건 변화

- Just-in-time-production 추세 강화에 의한 가격/수량 조건 변화
 - 공업 원료 및 반제품의 경우 소량주문 강화 예상

- 유통업종의 대형화에 따라 가격/수량 조건 변화
 - 일부 소비제품의 경우 대량주문 가능
- 자국 통화 기준 가격의 유로화 환산 후 끝수가격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가격 정책 수정
- 참고
 - EU역내에서는 끝수가격이 일반화 되어 있음.(예: 99 실링, 990파운드, 1,990 마르크 등) 소매 가격이 199 실링인 제품을 유로화로 환산할 경우 EUR 14.4 환산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 되어 있는 바, EUR 14.99로 상향 -조정은 위법임.
 - 이 경우 끝수 가격을 맞추기 위해 동 제품의 소매가는 EUR 13.99가 될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바이어는 물론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가격/수량조건 수정 불가피하게 됨.

바. 유로화 도입의 궁극적 결과

- EU역내 자연적 구조조정
- 생존한 EU역내 기업들은 철저한 국제경쟁력 보유

3. 유로화 도입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업종별 경쟁력 변화

가. 개요

- 오스트리아 경제전문가들은 유로화 도입에 따른 직접적 비용절감효과가 국내총생산 증가에 약 +0.4% 기여 할 것으로 분석
-
- 산업별 경쟁력 변화는 당해산업의 EU역내 수출/수입 의존도 및 역내 수량/가격변동, 보유기술력 등에 따라 차이

나. 오스트리아 산업부문별 EU역내 경쟁력 변화(오스트리아 CA은행 분석)

- 고려한 변수
 - 당해산업 EU역내 수출 비중 및 수출시 환거래 비용 절감
 - 당해산업 EU역내 수입 비중 및 수입시 환거래 비용 절감
 - 유로화 도입에 따른 당해산업 제품 EU역내 가격변화
 - 유로화 도입에 따른 당해산업 제품 EU역내 수량변화
 - 유로화 도입에 따른 EU역외 국가 대상의 가격 및 수량 변화
 - 금융시장 통합 및 안정에 따른 효과

- 등급
 - +5 = 경쟁력 향상 최고점,
 - +1 = 이전과 큰차이 없음
 - -5 = 경쟁력 악화 최악
- 산업별 평가
 - 전산부문 서비스업 : +5
 - 자동차 산업 : +5
 - 제지산업 : +5
 - 전기발전 설비산업 : +4
 - 제철/제강 산업 : +4
 - 관광업 : +3
 - 통신업 : +3
 - 기계산업 : +3
 - 인쇄업 : +3
 - 비철금속제품 : +2
 - 섬유산업 : +2
 - 건설업 : +1
 - 의료/측정기기 : +1
 - 시멘트산업 : +1
 - 화학 : +1
 - 목재산업 : +1
 - 의류산업 : +1
 - 스포츠용품 산업 : -1
 - 대형 유통 : -2
 - 보험업 : -3
 - 일반 소매업 : -3
 - 기호식품산업 : -4
 - 금융업 : -5

18. 주요이슈/이라크 전후복구사업과 오스트리아 기업

오스트리아기업, 전후복구사업 진출에 쟁 걸음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군납기업들은 전쟁관련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전쟁 시작 이전에 이미 군납의 길을 열어놓아 이라크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던 기업들은 주로 식품관련 업체들이다. 독일 주둔 미군병력의 일부가 쿠웨이트 지역으로 파견되면서 식품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군측은 거래 중이던 독일업체를 제치고 오스트리아 기업들로 공급선을 교체하였다.

공급선으로 선정된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이미 미군측에 군납을 해오던 업체들이지만 독일기업들이 주공급선이었으며 오스트리아기업들은 극히 일부만을 공급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주공급선이 오스트리아 기업들로 교체된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독일의 전쟁반대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군납선을 교체하였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주로 유제품, 특히 치즈, 우유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제 군납업체들도 새로운 군납선 확보를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측은 군납선 확보를 교두보로 삼아 전후복구사업진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민간차원 교류단체로서 3개의 오스트리아-이라크 친선협회가 있는데, 이들이 그 동안 구축해 놓았던 이라크 지도층 인맥은 후세인정권의 몰락으로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오스트리아 연방상의는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미군정이 전쟁복구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로비만으로는 전쟁복구사업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이미 미군과 군납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교두보로 삼아 미군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로비도 시도하는 양면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스트리아 연방상의 바그다드사무소 소장 겸, 주이라크 오스트리아 상무참사인 슈뢰더(Schroeder)는 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오스트리아로 귀국하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할만한 업체들을 방문하여 경영진들과 전쟁복구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스트리아 최대의 설비업체인 VA Tech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논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이라크 오스트리아 상무참사 슈뢰더는 민간차원의 접근은 별 문제가 없으나 미군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자료원: 1. 오스트리아 일간지 Der Standard 2003년4월14일자
2. 오스트리아 일간지 Die Presse 2003년 4월12일자 종합

19. 주요이슈/오스트리아 IT 기술수준

1. 기술수준

- 주재국 오스트리아는 인구 8백만으로 시장이 협소하며, 경제대국인 독일이 인접국이어서 IT기술의 주류(主類, Main Stream)제품시장은 포기하고 틈새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제조 시뮬레이션, 공장최적화 프로그램 등 제조업 분야 소프트웨어와 의학용 하드/소프트웨어 등 일부 분야의 기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며, 산학협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함.

2. 사례

- 비인공대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연구소에서는 반도체 생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에 성공하여 반도체생산업체에 공급한 바 있으며, 비인 국립대 양자물리학연구소에서는 일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양자물리학을 활용한 E-Security제품을 개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 한편, 린츠(Linz)대학 부설 R.I.S.C. 연구소는 Symbolic Calculation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Heinemann Oil Technology사의 경우, 석유시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약 세계시장의 총아로 주목 받게 되었음.
- ARTMA GmbH사의 경우, 수술로봇을 원거리에서 작동하여 수술을 집도하는 하드/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환자가 원거리 병원에 있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실제로 약 400 km 떨어진 병원에 있는 환자를 비엔나 종합 병원에서 성공리에 수술집도하는 등 이미 사용되고 있음.

20. 주요이슈/오스트리아 학계, 경기부양책 촉구

오스트리아학계, 경기부양책 촉구

경기부양책에 대해 언제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오스트리아 경제학계에서 최근 정부에 대해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IHS 연구소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양대 경제문제연구소 중 하나인 WIFO 는 오스트리아 근로회의소(AK)가 의뢰한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첫째, 중위 및 하위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 인하

둘째,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

셋째, IT기술분야 투자 및 투자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보고서는 세금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IT분야 투자유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간 추가적인 경제성장율 1 ~ 1.1%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러한 경우 21,000 ~ 2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2004년부터 새로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될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의 중간에 위치하여 동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도로 건설 및 기존도로 정비의 필요하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정부에서 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33,000 ~ 3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진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위 및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제시한 방안들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적자예산운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최소 54,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고용창출 효과를 보게 되고 내수도 진작되어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균형재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동보고서는 오스트리아에서 현재 야당인 사민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오스트리아 근로자회의소(AK, 상공회의소와 대비되는 근로자대표기관)에서 의뢰한 것이어서 보수계인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에서 동 보고서의 방안을 그대로 채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1. 오스트리아 영어일간지(Austria Today 2003년 10월 17일자)

2. 기타 무역관 자료 종합

21. 주요이슈/오스트리아기업들 기술혁신 유럽연합내 4위

오스트리아기업들 기술혁신 유럽연합내 4위

1위 아일랜드, 2위 독일, 3위 벨기에 순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회원 각국 기업들의 기술혁신(Innovation) 정도를 평가했는데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기업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유럽연합 통계국은 매 3년간을 기간으로 등록된 회원국기업들의 기술혁신정도를 평가하는데 최초의 평가는 1992~1994년, 두번째 평가는 1995~1997년을 기준으로 시행됐으며, 이번 3차 평가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술혁신을 평가했다.

기술혁신평가는 생산기술(Production-Technology)혁신과 생산공정(Prozess)혁신 두개 분야로 나누고 이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혁신을 달성한 경우로 하였으며 등록된 업체 중 몇 퍼센트가 평가기간 3년 동안 이러한 기술혁신을 이뤘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별도의 기업등록기준은 없으며 대부분의 회원국 중견 이상 기업들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평가한 결과 아일랜드 기업 중 65%가 기술혁신을 이루어 유럽연합 연합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독일(61%), 3위는 벨기에(50%)가 차지했다. 오스트리아는 등록기업의 약 절반인 49%가 기술혁신을 이룩하여 4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룩셈부르크 48%, 스웨덴 47%, 핀란드 45%, 네델란드 45%, 포르투갈 44%, 덴마크 44%, 프랑스 41%, 영국 36%, 이탈리아 36%, 스페인 33%, 그리스 28%를 기록하였다.

한편,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증가면에서 독일기업들이 23%의 수익성 증가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는데, 독일 기업들은 기술혁신 및 수익성 기여도 양면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기술혁신에서 중위권을 기록한 핀란드와 하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증가는 18%와 17%를 기록하면서, 회원국 중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양국의 기술혁신은 수익성증가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스트리아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 증가는 13%를 기록하였으며 룩셈부르크 기업들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증가는 7%를 평가되어 최하위를 기록해했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일간지 2004년6월9일/23일자 종합

22. 주요이슈/오스트리아, 의류직물협회 중국과의 전쟁선포

오스트리아 의류직물협회 중국과의 전쟁선포

오스트리아 의류직물 협회는 2005년부터 이루어지는 섬유쿼터폐지에 대항하여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7월말 제네바Genf에서 전체 모임을 갖을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의류직물 협회는 47개국의 WTO회원국과 연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의류직물협회 회장 Wolfgang Sima씨는 2005년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의류직물 수출로 인하여 2년내에 3천만명의 실업자들이 전세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자국시장 보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협 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 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03년 오스트리아의 의류직물수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유로

국가	수입량	증감율
독일	9억 2백만	-8.10%
중국	3억5천만	23%
이탈리아	2억9천만	-6.10%
터어키	2억4천만	12.80%
헝가리	1억5천만	-3.00%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의 의류직물관련 주요수입국가는 독일이지만 2002년 대비 2003년 수입액이 8.1%감소한 반면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은 23%증가하였다. 23%라는 증가율은 중국의 의류수출규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만일 수출규제가 해지 된다면 순식간에 오스트리아의 대중국 수입량은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Wolfgang씨는 단언했다.

2003년 오스트리아의 대아시아 의류직물 수입현황

중국	3억5천만	23%
방글라데시	9천2백만	26.30%
홍콩	7천9백만	4.60%
인도	5천7백만	57%
인도네시아	4천5백만	-5%

오스트리아의 대 아시아 의류직물수입현황을 살펴 보면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홍콩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의류직물수출 규제가 해지되게 되면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및 대 유럽수출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제의류직물 시장변화의 흐름에서도 제품경쟁력을 유지라는 길은 오직 제품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고급제품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자료원 : Wirtschaftblatt (2004년 6월22일 경제일간지)

23. 주요이슈/오스트리아의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 성공적

오스트리아의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 성공적

- 수출산업이 산업공동화 방지에 큰 역할

최근 촉발된 “일자리 수출” (산업공동화) 논쟁에 대해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저명한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은 몇 주전 “일자리 수출, 세계챔피언 독일!”이라는 타이틀로 산업공동화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산업공동화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오스트리아 학계와 재계의 주된 입장은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 일부 사양산업에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자에 들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산업공동화 현상이 멈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되는 수치는 최근 10년간 실업률이 4.1 ~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03년도 유럽연합 전체 평균 실업률인 8.1%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같은 고임금국인 독일(9.6%), 프랑스(9.4%)나 스페인(11.3%)의 실업률과 비교하면 더욱 돋보이는 수치이다.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문제연구소 중 하나인 WIFO의 마르터바우어(Marterbauer)박사는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가 의뢰한 조사보고서 발표에서 최근 3년간 오스트리아 제조업분야의 일자리 수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은 이미 1990년대에 진행되어 현재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노조들이 최근 불황 때문에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있는데, 임금인상 요구 자제가 산업공동화 방지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산업공동화방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수출산업의 활성화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올해 오스트리아의 수출액이 8% 신장된 것으로 예상되어 불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되어 2006년에는 오스트리아 수출이 US\$ 1천억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르티마우어박사는 오스트리아의 산업공동화 정책이 성공한 이유로 다음3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철저히 시장기능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허약한 기업이 이미 퇴출되었으며
둘째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수출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미 달성되었고
셋째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가 강력한 기계산업과 같은 미드텍(Mid-Tech)을 IT기술과 접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예를 들어 PDM (Production Data Management), SCM (Supply Chain Management),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리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이 기계 수출산업에서 일반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일간지 Der Standard 2004년11월7일자

24. 주요이슈/오스트리아 2005년 수입시장 전망 및 시장진출 전략

내구재 소비활성화 등 한국산 수입 희망적 요소 많아
섬유·의류 등은 EU 쿼터해제로 불리할 듯

[개요]

2004년도에 1.7%의 저조한 실질성장을 보였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5년도에 세제개혁효과 등에 힘 입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며, 수입시장의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오스트리아 경제 분석]

2004년도에는 오스트리아 내수시장이 부진했던 반면, 수출이 8.3%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미국, 일본, 중국경제의 활성화가 오스트리아 수출산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2004년도 하반기부터 기업인들의 체감경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2004년도 오스트리아 내수시장의 경우,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가 +1.5%에 불과한 소득증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돼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2005년도에는 내수시장 회복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05년도 전망]

올해 내수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에 따라 가구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2004년도 중반 오스트리아 국회를 통과한 신세법은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 50%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과세표준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세제개혁효과로 올해 오스트리아 가구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평균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소득증가 수치 중 최고 수치여서 실질적인 소비증대가 기대된다는 것이며, 수입시장도 오스트리아 내수시장 회복에 힘입어 신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입시장 전망]

특히 지난 3년간 저조했던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산 승용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부품 수입시장 역시 희망적이다. 한편, 휴대폰, 위성수신기 등 IT 관련품목도 수입이 계속 늘 전망이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유럽연합 쿼터제가 해지되면서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타 범용제품의 경우에도 가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간품질의 중간가격제품은 시장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하자면 고품질 고가제품과 저품질 저가제품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진출전략]

수많은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처음에는 다품종 소량주문이 많고 C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나 제품설명서가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것을 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확한 시장 상황판단 및 대상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KOTRA 각 무역관이 개재하는 시장정보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심층적이고 능동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KOTRA 본사에 관심이 시장조사 대행을 신청해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약 5~10개의 국가 무역관에 시장조사를 의뢰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시장공략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 2005년 1월분 종합.

25. 주요이슈/오스트리아 내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비준 전망

堯,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분위기 및 그 비준 전망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비교적 긍정적.

의회 비준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 속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지난 2004년 10월 29일 서명된 유럽 헌법의 비준과 관련하여 그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은 사실 이번 헌법에 포함된 개별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 비준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비준 방법에 있어 25개 회원국이 통일된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10개국은 국민투표, 나머지 15개국은 국회 또는 의회를 통한 비준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오스트리아는 의회를 통한 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야당인 사회당(SPÖ)을 위시한 여러 단체에서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비준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실제로 5천3백여명의 서명이 모아져 의회에 청원 형식으로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지난 3월2일 소집된 의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는 “ 종지부를 찍었는데, 여야 4당이 만장일치로 „상하 양원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유럽연합 헌법 비준 방식 “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꾸준히 국민투표를 요구하였던 사회당이 당의 입장을 바꾼 것이 의회를 통한 비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3월 2일 이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사회 여러 단체에서 이번 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들의 공통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를 통한 유럽연합 헌법 비준 “ 에는 오직 탄탄대로만이 놓여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도 좋은 편이다. 지난 2월 18일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정치를 위한 모임(Ögfe) “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천2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46%가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지지를, 37%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 게다가 그 바로 사흘 전인 2월 15일에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정서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수행한 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7%가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단지 15%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본 인권헌장 도입 등 기본권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개별 국가들과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마찰 및 혼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럽연합 외무장관직 신설 등 유럽연합 내의 조직 신설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여야 4당의 합의 속에, 5월로 예정된 유럽연합 헌법의 의회 비준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가지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 그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 “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55년 10월 26일 이후로 국제법상의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나라 사이의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도 가담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 조약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전경

바로 이 부분이 유럽연합 헌법 제 40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상충될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EU에서 수립한 공동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을 각 회원국들이 유보 없이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 지위 및 의무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EU 조약에서 중립국 지위를 „특수한(예외적인) “ 안보 정책으로 인정하여 왔던 바, 금번 유럽연합 헌법에서 특별히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영세중립국들은 안보정책상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바, 영세중립국 지위와 상충되는 EU의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해 그 수행 여부, 또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등의 여부가 해당국가 정부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모든 정당 공히,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헌법을 비준하더라도 영세중립국 지위에 반하는 어떠한 군사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화 및 구호 목적의 활동에만 참여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영세중립국의 지위에 반하는 군사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금번 유럽연합 헌법 비준이 정치인들에 의해 악용되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제도적 또는 법률적 장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에 4개 정당간에 확정된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헌법 비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월 말까지 유럽연합 헌법 비준案이 의회에 제출되면, 토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순까지 하원에서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비준案이 5월 말을 기한으로 상원에서의 심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세력들의 행동 또한 예정되어 있지만(예: 국민투표를 통한 유럽연합 헌법 비준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5월 중 의회 건물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그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 바, 유럽연합 헌법 비준안이 오스트리아 의회를 통과했다는 신문기사를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자료원 : 2005년 1,2월 오스트리아 일간지 종합

26.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1. 비자

- 비자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한다.

<주의>

유럽연합(EU) 쉥겐(Schengen)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가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간 비자 면제 기간이다. 부연하자면 쉥겐조약 가입국인 프랑스에 1월1일에 입국해서 1월31일까지 체류하고 2월1일날 오스트리아로 왔다하더라도 무비자 90일 계산의 시점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2월1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입국한 1월1일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에 1월1일날 입국해서 60일간 머물다가 프랑스에 갔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쉥겐조약 가입국 전체에 무비자 90일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쉥겐조약가입국>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2. 무비자 입국 후 비자 수속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장기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국가의 오스트리아 대표부에 가서 체류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자연장 :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3. 비자 발급처

오스트리아 영사관/대사관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913호

전화: 732-9071/2

휴일: 토, 일요일 및 양국가의 공휴일

대민업무시간: 10:00 - 13:00

4. 출입국 절차

출입국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5. 통관 절차

입국시 신고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 이외에는 세관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세관검사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Sample등의 경우 이를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면세품 한도

- 담배 : 200개비
- 브랜디/위스키 : 1 Liter
- 포도주 : 2 Liter
- 선물용품 : Euro 150 이내 (약 US\$ 150 이내)

<출입국시 유의 사항>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필요하지 않으나 오스트리아에 장기체류하거나 오스트리아에서 숲 혹은 산악지대를 장기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중부유럽에만 서식하는 책헨(Zecken)이라는 흡혈곤충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 바람직).

자료원 : 오스트리아 내무부 출입국절차 자료 종합(2005년 3월).

27. 환전

<화폐단위>

원래 화폐단위는 실링(Schilling)이었으나 유럽화폐동맹(EMU)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통화이다.

약자는 Euro, 독어발음은 유로가 아니라 "오이로"이다.

1 Euro는 100 Cent(센트)이다.

유럽화폐동맹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Euro화와 실링이 같이 통용되었음.

구화폐 실링의 환전은 이 글 마지막 부분 참조.

<주화 종류>

1, 2, 5, 10, 20, 50 Cent, 1, 2 Euro

<지폐 종류>

5, 10, 20, 50, 100, 200, 500 Euro

<최근 3년간 년평균 환율>

2000년 평균 환율 : 1 US\$ = 1.0823 Euro

2001년 평균 환율: 1 US\$ = 1.1166 Euro

2002년 평균 환율: 1 US\$ = 1.0583 Euro

2003 년 평균환율: 1 US\$ =0.8843 Euro

2004년 평균환율: 1 US\$ =0.8065 Euro

◎ 최근 유로화 전신환율 (2005년 6월28일, Erste 은행 발표 기준)

매입율 1 US\$ = 0.8124Euro

매도율: 1 US\$ = 0.8368 Euro

<환전>

외환소유 및 환전액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 시내 은행에서 제3국 지폐를 환전하면 환전금액의 1.5 - 3.0% 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환전소 또는 호텔에서는 대개 5 - 7%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대부분의 선진국가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지폐는 Giro Kredit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음.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 한국지폐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좋음.

Giro Credit 은행 주소

Herrengasse 12, A-1010 Wien, Tel: 71 1940

<구화폐 실링화의 환전>

예전 화폐인 오스트리아 실링화 환률(Austrian Shilling)은 국립은행에서 무기한 환전해줌.

* 고정환률: AS 100 = 약 Euro 7.26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주소

Wien 9, Otto-Wagner-Platz 3

Postfach 61, 1011 Wien

Tel: +43 1 404 20 0

Internet: <http://www.oenb.at>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28. 기후

1. 기후

<기후특성>

대체적으로 대서양기후의 영향이 많으나,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 특징이 점점 두드러 진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겨울에는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상례이다.

연평균 기온은 15 - 18도C이며 강우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 동부 :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적은 편이며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

◎ 서부 : 편(Foehn)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온다.

◎ 남부 : 일조량은 많은편이나 알프스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며 강우량도 많다.

◎ 알프스 산간지역 :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고온을 보이거나 비가 오면 급격한 온도강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겨울철이 길고 눈이 많음.

<주요도시의 기후>

◎ 오스트리아 동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비인의 경우 겨울이 길고 겨울에는 햇볕 보기가 힘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비인시의 월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섭씨, 2003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9	14	20	25	29	30	35	33	24	26	18	10
Low	-8	-7	-2	0	7	8	12	10	6	3	-3	-14

(High : 월평균 최고기온 Low. : 월평균 최저기온)

◎ 인스부르크(서부지역에 해당)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며 여름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기온이 높더라도 불쾌지수가 낮다.

인스부르크시 평균 기온 (섭씨, 2003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2	15	19	23	29	33	33	33	23	24	13	9
Low	-9	-10	-3	-2	6	4	10	8	5	3	-6	-16

◎ 그라츠(남부지역에 위치)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조량이 많고 강설량은 적은 편이나 알프스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춥다.

그라츠시 평균 기온 (섭씨, 2003년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2	14	19	22	29	30	34	33	25	24	16	9
Low	-9	-8	-4	-3	4	5	11	9	5	5	-7	-14

◎ 2003년, 연간 도시별 일기

도시	강우량	강설량(00.12월 - 01년4월)	우천일수*	년간일조시간
비인	534 mm	18 cm	167	1,914
인스부르크	1,014 mm	39 cm	175	1,848
그라츠	600 mm	8cm	115	2,103

주1: 우천일수 = 0.1 mm 이상의 강우가 있었던 날수의 합계

2002강설량은 평년의 30 ~ 40% 수준임

(자료원 : Statistische Jahrbuch 2005)

II. 출장시 추천복장

◎ 초봄 (3월, 4월) 및 늦가을 (10월)

- 매우 추운 날씨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므로 반드시 겨울복장 및 봄철 옷 동시 지참요.

◎ 늦봄 (5월)

- 대부분 따뜻한 편, 봄철 및 여름복장 지참요. 우천후 급격한 기온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여름 (6월, 7월, 8월)

- 대부분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천후 급격한 기온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초가을 (9월)

- 한국의 10월 정도의 날씨, 온난한 기후

◎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 겨울옷 준비

자료원 : 오스트리아 기상청 제공자료 (2005년 5월)

29. 공휴일

<개요>

각주별로 정해진 공휴일은 없으며, 전국공통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있을 뿐이다.

<매년 날짜변동 휴일>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카톨릭국가로서 카톨릭의 축일은 모두 휴일로 하고 있는데, 부활절,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성체축일은 매년 변동된다. 그 이유는 이 휴일들의 날짜 계산이 기독교성경 복음서에 서술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3성왕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은 2세기 이후 로마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5년 날짜	요일
신 년	매년 1월1일	1.01	토
3 성 왕 절	매년 1월6일	1.06	목
부 활 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4.27/28	일/월
노 동 절	매년 5월1일	5.01	일
예수승천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05	목
성령강림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15/16	일/월
성체 축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6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월
국 경 일	매년 10월26일	10.26	수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화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목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토/일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월

2004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4년 날짜	요일
신 년	매년 1월1일	1.01	목
3 성 왕 절	매년 1월6일	1.06	화
부 활 절	유태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4.11/12	일/월
노 동 절	매년 5월1일	5.01	토
예수승천일	유태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0	목
성령강림절	유태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30/31	일/월
성체 축일	유태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6.10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일
국 경 일	매년 10월26일	10.26	화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월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수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금/토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일

<출장 지양시기>

◎ 휴가철 및 방학

오스트리아의 법정 휴가는 4주나 되기 때문에 일년간 여러번에 걸쳐 휴가를 나누어 가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휴가철에는 정상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주요한 휴가철은 부활절 전후(대개 4월경), 여름휴가철(7월, 8월, 9월중순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12월 20일 부터 1월초순까지)이다.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각주별로 에너지절약 방학이 있는데 이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음으로 이시기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 요일별 주의 사항

오스트리아의 근무시간은 월 - 금요일까지 이므로 토요일은 업무 접촉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요일도 오전만 근무하는 직장도 많고 금요일날 약속을 피하려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많음으로 금요일 역시 비즈니스 시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샌드위치 휴일인 경우도 업무를 보지 않는 회사가 많음으로 상기한 년별 공휴일을 참고하여 출장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자료원 : 당무역관 보유자료(2005년 3월).

30.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 동계시간

우리나라와의 시간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시일때 오스트리아는 아직 16시 이다.
동계시간은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
(2004년10월31일 - 2005년3월26일)

◎ 하계시간(Summer Time)

하계에는 썸머타임이 실시되어 한국과의 시간차가 7시간으로 단축된다. 부연하 자면 한국이 24시일때 오스트리아는 17시이다. 하계시간은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그해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
(2005년3월27일 - 2005년10월29일)

<근무시간>

◎ 일반직장의 근무시간

근무처에 따라 다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 - 12:00, 13:00 - 17:00가 일반적인데,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는 직장도 많다. 일반적으로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 관공서 근무시간

관청의 경우, 대민 업무를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청관련 업무는 반드시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목요일에 한해 13:00 - 16:00에 대민업무를 보는 관청도 있다.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 일반상점의 개폐시간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적으로 엄격히 제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09:00 - 18:00, 토요일에는 09:00 - 12:30인데 시내 중심가의 상점들은 토요일에 17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2003년7월 상점개폐시간규정 완화로 목요일에 21시까지 영업하는 상점도 있다.
식료품관련 상점의 개폐시간은 08:30 - 18:30 또는 19:30까지.

토요일의 경우 상가지역의 상점들은 08:30-17:00까지 영업을 하나 기타지역의 상점들은 12:30까지만 개점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요일은 시내 중심가의 토산품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점한다.

◎ 식당의 개폐시간

일반 식당의 경우, 낮 12시에 개점한 후 15시까지 영업한 다음, 약 3시간 동안 휴점한 후 18시쯤 다시 개점하는 것이 상례이다. 현지 중국식당은 물론, 한국식당의 경우도 이러한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15 ~ 18시 사이에 식사를 원할 경우,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은행의 개폐시간

월, 화, 수, 금요일은 08:30 - 12:30 및 13:30 - 15:00이며,
목요일에는 08:30 - 12:30 및 13:30 - 17:30에 개점한다.
시내 중심가 은행의 경우는 점식휴식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추세이다.

◎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않는 상점들

역이나 공항내의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은 매일 23시까지 영업을 한다. 상점개폐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종종 있다

<회계연도>

정부 및 국영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이 사례를 따르지만 간혹 특정한 달(예를 들어 3월 혹은 7월)을 기점으로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기업도 있다.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2005년 3월).

31. 호텔

<호텔등급>

- 호텔의 경우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 특급 호텔의 경우 별 다섯개로 표시. 별의 숫자가 적을 수록 등급이 낮아짐.
- 보통 별3개까지가 호텔이며 2개 이하는 펜지온(Pension)이라고 부름.

*주의: 봄/여름 성수기철에는 호텔 찾기가 매우 힘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가 개최 될 때에도 호텔 찾기가 힘드니 주의요망.

성수기의 경우 1개월 전 호텔예약 권장.

<호텔 요금>

요금은 시즌별로 차이가 있음.

특급 호텔 싱글룸 요금은 대개 Euro 150 - 300 수준이며,

1급 호텔의 경우 Euro 100 - 160 정도,

2급 호텔의 경우 Euro 70 - 120 수준.

3 - 4급 호텔은 Euro 35 - 80 정도

<호텔선정>

- 현지에서의 호텔예약은 공항/역이나 시내의 여행안내소(Tourist Informatio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성수기에는 현지 한국여행사를 통하여 방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현지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격이 약 10%저렴함

다뉴브여행사

사장: 김지수

주소: Viktoriagasse 7, A-1150 Wien, AUSTRIA

전화: (43 1) 892 3571

fax: (43 1) 892 3580

Vienna Holidays

사장: 조성민

주소: Neubaugurtel 4, A-1070 Wien, Austria

전화: +43 (1) 522 1234-0

FAX: +43 (1) 522 1234-5

<호텔>

호텔명: Hotel Marriott

등급: 특급

주소: Parkring12a, A-1010 Wien, AUSTRIA

전화: (43 1) 515 180

Fax: (43 1) 515186510

가격: 싱글/더블 요금에 차이가 없음. 약 Euro 260

비고: 시내중심가에 위치하며 비즈니스센터가 잘 완비되어 있고 시설이 매우 현대적임.

호텔명: Astron Suite Hotel

등급: 1급

주소: Mariahilferstr.32-34, A-1060 Wien, AUSTRIA

전화: (43 1) 52 1720

Fax: (43 1) 521 7215

가격: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비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더블룸의 경우 간이부엌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호텔명: Hotel Anatol

등급: 1급

주소: Webgasse26, A-1060 Wien, AUSTRIA

전화: (43 1) 59 9960

Fax: (43 1) 599 9655

가격: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비고: 시내중심가에 위치하며 다뉴브여행사를 통할 경우 할인 가능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32. 식당

<개요>

많은 식당이 점심 때에는 일반 차림표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점심식사를 판매하며 저렴한 가격의 점심식사 차림표(Mittags Menu)는 대개 일반차림표의 맨 뒷부분에 있다.

오스트리아 식당은 도처에 있으며, 대개 식당 앞에 메뉴(가격 명시)가 게시되어 있다. 중국식당도 비인에만 약 200여곳이 있는데, 중국식당의 식사가격은 대개 일인분에 Euro 7 - 10(중급식당 기준)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요리>

(스프)

*레버크뇌델 수페; Leberkoedel Suppe, 쇠간으로 만든 완자를 넣은 쇠고기국

*플라이쉬 슈트루델 수페; Fleischstrudel Suppe, 쇠고기로 만든 오스트리아식 만두를 넣은 스프

(정식)

- *굴라쉬; Gulasch, 오스트리아식 스튜(찜 요리)
- *슈텔제; Stelze, 훈제된 돼지 넓적다리
- *타펠슈피츠; Tafelspitz, 소의 허벅지살을 백포도주에 삶은 것
- *쯔비벨 로스트브라텐; Zwiebel-Rostbraten, 튀긴양파로 양념한 쇠고기구이
- *비너 슈니첼; Wiener Schnitzel; 송아지 돈까스

(후식)

- *아이스 마릴렌크노들: Eis Marillenknoedel, 살구 아이스크림
- *모온 슈트르델: Mohnstrudel, 양귀비를 주재료한 케이크
- *자크토르테: Sachtorte, 초콜렛으로 만든 케익

<주요 오스트리아 식당>

o Piaristenkeller

- 특색: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이다. 오후 7시반부터 오스트리아 전통악기인 시터(Citer, 하프와 기타의 중간형태 악기) 연주가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 - 9
 - 정식: 약 Euro 13 - 25
 - 후식: 약 Euro 4 - 9
- 주소: Piaristen-gasse 45, A-1080 Wien
- 전화: 405 9152 0 or 406 2474 Fax: 406 4173

o Griechenbeisl

- 특색: 비엔나 최고(最古)의 식당으로 5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함.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 등 유명인들이 식사하고 벽에 사인한 방이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 - 8
 - 정식: 약 Euro 11 - 23
 - 후식: 약 Euro 4 - 8
- 주소: Fleischmarkt 11, A-1010 Wien
- 전화: 533 1941 또는 533 1977 0

o Steirereck

- 특색: 귀족적 분위기의 고급식당,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15 - 25
 - 정식: 약 Euro 25 - 50
 - 후식: 약 Euro 10 - 2
- 주소: Rasumofsky gasse 2, A-1010 Wien
- 전화: 713 3168 0 or 713 5168 0

o Plachutta

- 특색: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 전문점. 양질의 소고기를 계약 목축업자로부터 직접 구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이다.
- 가격
 - 전식: 약 Euro 6 - 12
 - 정식: 약 Euro 14 - 25
 - 후식: 약 Euro 6 - 12
- 주소: Wollzeille 38, A-1010 Wien
- 전화: 515 1577

o 다뉴브(독어로 도나우)강변 지역 바베큐 식당들

다뉴브강 중간의 섬에 위락시설과 바베큐 식당들이 많다.

Strand Cafe:

- 특색: 강변경치를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다. 돼지갈비 전문요리점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현지식 갈비요리 라고 할수 있다. 버드와어저와 함께 더욱 운치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4 - 6
 - 정식: 약 Euro 8 - 16
 - 후식: 약 Euro 4 - 6
- 주소: Florian Berndl Gasse 20, A-1220 Wien
- 전화: 203 6747

o 핫 포도주 전문 식당가

금년산 핫 포도주와 오스트리아 전통 돼지 넙적다리 요리를 즐길수 있는 곳 이며 오스트리아의 서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일인분 식사가 가격은 대개 약 Euro 10 - 20 정도이다.

그린칭(Grinzing, 19구에 위치)지역과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다수에 헛 포도주 전문식당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린칭 지역 식당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며, 오스트리아인들이 애용하는 고급 헛포도주 전문 식당들은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많다.

<한국식당 (한식과 일식이 나옴)>

한식 가격은 대개 Euro 9 - 18 정도이며, 일식 가격은 대개 Euro 10 - 20 정도이다.

o 부산 Busan

- Reinprechtsdorferstr.57, A-1050 (Tel: 544-3644)

o 유 Yoo

- Stumpfergasse 27, A-1060 (Tel: 597-2879)

o 한 일 Hanil (2개가 있음)

- Singerstrasse 13, A-1010 (Tel: 512-8426)
- Gumpendorferstrasse 14, A-1060 (Tel: 587-7941)

자료원 :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5년 3월).

33.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 대한항공은 비엔나에 취항하지 않으나 유럽노선이 거의 매일 한국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쾰른 등이다.
- 기타 Swiss Air, Lufthansa, KLM, British Airway, Aeroflot 등의 항공사가 한국으로 취항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경유지가 다르다.
- 요금 :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같은 항공사라도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함. 왕복요금은 대개 약 Euro 700에서 1,000 사이.

◎ 선편

-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으로서 바다를 접한 국제항구가 없다.
- 도나우(Donau, 영어로는 데뉴브)강에는 독일 및 동구권과 연결되는 국제항구가 있으나 주로 화물운송에 이용된다.
- 봄, 여름철에는 동구권으로 이어지는 유람여객선이 운영하고 있다.
- 한국에서 선편으로 보내진 화물은 주로 독일의 함부르크 또는 네덜란드의 에서 육로운송수단으로 환적되어진다.

<국내교통>

◎ 택시

- 택시의 경우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어려우므로, 택시회사에 전화로 택시를 주문하거나, 대로 주변의 있는 택시전문 정차장 (Taxi-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집 주소들이 도로를 따라 순번체계로 나열되어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되어 있음으로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대어 주면 택시기사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바래다 줌.
- 대표적 비엔나 택시회사 전화번호 : 601600 , 313000, 1715, 814000
- 택시의 기본요금은 Euro 2 이며 비인 시내는 대개 Euro 8 - 16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
-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요금에 Euro 0.8 - 1의 할증료가 추가됨.

◎ 대중교통수단

- 각 지역마다 시내 공공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러시아워에도 그리 붐비지 않음.

◎ 대중교통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 개찰기계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시간과 탑승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번만 하면 됨.
-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동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당도할 때 까지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을 여러 번 바꿔탈 수 있음.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함.
- 가끔 검표원이 탑승하여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개찰하지않은 것이 적발 된 경우 euro 40의 벌금을 물어야함.

◎ 대중교통수단 승차권 구입 방법

-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이나 Tabak이라고 쓴 상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음. 동 승차권은 구입한 도시 내에서만 유효함.
- 1회용 승차권은 비엔나의 경우 전차, 버스 안에서도 동전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예매(Euro 1.5) 보다 비싼 Euro 1.8가 필요.
- 1회용 승차권은 예매의 경우 4매, 8매 묶음으로 판매함.
- 이외에 24시간용, 48시간용, 72시간용, 8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이 있는데 가격 및 효용면에서 1회용 승차권은 여타 승차권에 비해 불리함.

<국제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 지하철 역과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있음.
-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식과 카드 사용의 2가지 전화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음.
- 동전 투입식의 경우 Euro Cent 동전을 해당 투입구에 투입.
- 전화카드는 시내의 Tabak이라고 쓰여진 가게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Euro 10, 20의 카드가 있음.

◎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방법

- 0082 + 한국의 지역번호(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 + 해당 전화번호
- 현지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통화, 0800 200 208를 선택한 후, 0번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온다.
- 교환원에게 전화번호 및 통화할 사람을 전달

◎ 한국에서 현지로의 통화방법

- 001 - 43 -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 지역번호의 경우 국내지역번호의 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함.
- 비인으로 전화할 경우 1 만 돌리면 됨.
예) 001 - 43 - 1 - 587 38 76 (비인 무역관)

<전화요금>

- 전화 : 약 550만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송수신상대 양호.
- 시내통화료 분당 30 Cent
- 시외통화료
100 km 이내 분당 40 Cent(월-금 8시부터 18시), 30 Cent (이외 시간)
100 km 이상 분당 60 cent(월-금,8-18시), 40 Cent(이외시간)
- 핸드폰 : 2004년 3월말 기준 약 550만대
- 국제전화 통화료 기준

단위 : EUR / 분

지역	월 - 금, 8 -18시	이외 시간
1지역 : 대부분의 유럽지역	0.4	0.3
2지역 : 북미지역(알래스카제외)	0.62	0.48
3지역 : 한국,일본, 오세아니아	1.06	0.7
4지역 : 중국,베트남, 북한등	1.46	1.14

* 2005년 3월말 기준

- 개인전화를 이용할 경우, 공중전화요금에 20%에 소비세가 가산된 금액이 실제 전화요금에 됨.
-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호텔자체의 사용료가 공중전화 사용료의 50%에서 100%까지 가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함.
- 식당이나 기타업소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소자체의 할증료가 부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팩스 : 현재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약 4십만대 정도로 추정됨. 팩스요금은 전화요금과 동일.

자료원 : Telecom Austira 2005년 3월 제공자료.

34. 유용한 연락처

<현지 비상연락처 전화번호>

- 경 찰 : 133
- 응급환자 : 144
- 화 재 : 122
- 내무부 소속항공 앰블란스: 1717
- 산악 조난사고: 140

< 현지 한국기관>

o 대사관

- 주소: Gregor Mandelstr.25, A-1180 Wien, AUSTRIA
- 전화: (43 1) 478 1992
- Fax: (43 1) 478 1013

o 대사관 영사과

- 주소: 상동
- 전화: (43 1) 478 19910
- Fax: (43 10 478 1013

<현지 관공서>

o 경제부

- 주소: Schubertstr. 1,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 1) 711000
- Fax: 43 1 710 8573
- URL : <http://www.bmwa.gv.at>

o 환경부

- 주소: Stubenbastei 5,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 1) 515220
- Fax: (43 1) 515 225000
- URL : <http://www.bmu.gv.at>

o 법무부

- 주소: Museumstr.7, A-1070 Wien, AUSTRIA
- 전화: (43 1) 521520
- Fax: (43 1) 52152 2727
- URL : <http://www.bminfv.gv.at>
- 내용설명 : 여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관련 정보

<경제단체>

o 연방상공회의소(Bundes Wirtschaftskammer)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 주소 : Wiedner Hauptstr.63, A-1045 Wien, Austria
- URL : <http://www.wk.or.at>
- 전화 : 501 05 - 0

o 소비자보호연맹(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

- 소비자 계몽 및 제품의 품질 테스트 등을 주로하며, 매월 월간지 발행
- 주소 : Mariahilferstr. 81, A-1060 Wien, Austria
- URL : <http://www.konsument.at>
- E-Mail: konsument@vki.or.at
- 전화 : 588 77 - 0

- o 오스트리아 산업연맹(Vereinigung Oesterreichischer Industrieller)
- 대규모 산업체의 이익단체로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산업정책 입안 건의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주소 : Schwarzenbergpl.4, A-1030 Wien, Austria
- 전화 : 711 35 - 0

<투자진흥기관>

- o Austrian Business Agency(ABA)
- 본사주소: Opern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1) 588-580
- E-Mail : austrian.business@telecom.at
- URL : <http://www.telecom.at/AustrianBusinessInfo>
- 팩스: (43-1) 568-659
- 한편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동경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o ABA 뉴욕 사무소
- 주소 : Austrian Business Agency, New York
747 THIRD AVENUE, NEWYORK, 10017
- 전화 : (212) 980-7970
- FAX : (212)980-7975

- o ABA 동경 사무소
- 주소 : Austrian Business Agency, Tokio
TANAKA HIRO BLDG,5-15-27, MINATO-KU, TOKYO 106
- 전화 : (813)3473-9251
- FAX : (813)3473-9254

- o 비인경제진흥기금 (Wiener Wirtschaft Foederungs Fond)
- 주소: WWFF, Ebendorferstr.2, A-1082 Wien AUSTRIA
- 전화: 43 1 4000 86790
- URL : <http://www.wwff.gv.at/wwff>
- Fax: 43 1 4000 7070

<오스트리아 관련 데이터뱅크, 인터넷 사이트>

- o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지부, 무역자료
- URL : <http://www.austria.co.kr>
- 내용설명 : 수출입 인콰이어리 자료 제공(한글 또 영문)

- o 오스트리아 환경기술 데이터뱅크
 - URL : <http://www.umwelttechnik.at>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보유 기업 명단 및 기술 내용
- o 오스트리아 기업 명부
 - URL : <http://www.compnet.at>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 기업별 매출액, 창립년도, 회사형태, 종업원수, 취급 또는 제조품목 등 각종 정보
- o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URL : <http://www.messe.at>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o 오스트리아 법률
 - URL : <http://www.rsi.bka.gv.at>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의 각종 법률 데이터뱅크
- o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 URL : <http://www.wk.or.at/aw/whis>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 o 오스트리아 일반 정보
 - URL : <http://www.austria.co.kr/tlink.htm>
 - 내용설명 : 간략한 역사, 경제, 정치, 기후 등 일반 정보
- o 오스트리아 연합통신 (A.P.A.)
 - URL : <http://www.apa.at>
 - 내용설명 : 각종 일간시사 정보
- o 오스트리아의 옐로우페이지 (Yellow Pages)
 - URL : <http://www.herold.co.at/herold>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의 옐로우페이지 (Yellow Pages)
- o 오스트리아 전국 전자전화번호부(electro Telphon-book)
 - URL : <http://www.etb.at>
 - 내용설명 : 오스트리아 전국 전자전화번호부(electro Telphon-book)

자료원 : 비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35. 여행시 유의사항

<의복>

봄, 가을로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이므로 대개는 이에 맞추어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드문 경우이지만 5월초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10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으로 봄/가을 여행시에는 겨울옷을 한벌쯤 예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비가 자주 오니 우산은 꼭 준비해야 한다.

여름날씨는 한국만큼은 덥지 않으며 습도가 그리 높지 않다. 가끔 비가 오면 급격히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에 여행하더라도 가을옷을 한 벌쯤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겨울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다.

(월별 자세한 내용은 기후 항목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규격>

220 Volt 50 MHZ, 플러그는 중부유럽방식(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이다. 한국기기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플러그때문에 Adapter가 필요하다. Adapter는 대형 가전제품유통점(Niedermayer, Saturn)등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약 Euro 10 수준이다.

<치안>

주야간 모두 매우 양호하다. 스위스와 더불어 서유럽국가 중에 가장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시장, 박람회에는 간혹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 원정나온 소매치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력사건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택시 및 대중교통 수단>

택시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방법은 교통/통신 항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및 응급대책>

경 찰 : 133

화 재 : 122

응급환자 : 144

144에 전화하면 앰블란스가 오며 고속도로에서 응급사고 발생시에는 내무부 소속 앰블란스-헬리콥터(전화: 1717)를 부를 수도 있으나 일반 앰블란스의 경우 약 Euro 250, 항공 앰블란스의 경우 약 Euro 700을 추후에 지불해야 한다.

현지 의료비는 무척 비싼 편이며 간단한 진찰의 경우에도 미화 50 - 100불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의료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이주정착가이드의 "비상의료대책"부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팁 관행>

오스트리아의 음식점에서 웨이터나 웨이츄리스의 월급을 책정할 때 평균 매상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팁의 액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급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의 팁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웨이터의 서비스에 대해 손님이 그 댓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관행은 오스트리아 식당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운영되는 한국 교포들의 식당도 마찬가지이니 한국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팁을 주는 것이 좋다. 팁의 수준은 음식가격의 약 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대개 요금수준과는 상관 없이 Euro 0.5 - 1 정도면 족하다. 다만 단거리를 택시로 이용한 경우, 즉 요금이 Euro 4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Euro 1 - 1.5 정도를 준다. 이는 오스트리아 택시들이 모두 Call택시여서 대기 순서에 따라 손님을 배정 받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을 한 경우에는 또다시 장시간 대기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는 팁이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준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약 Euro 1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 방 청소를 해주는 경우에도 Euro 1 정도를 머리맡 탁상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다.

<식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의 경우에는 알프스 약수가 수도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도물을 한여름에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수도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데 다만 니더외스터라이히주와 부어겐란드주를 여행할 경우에는 미네랄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은 알프스지역이 아니어서 강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는데 석회가 많이 섞여있다.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식당(한국식당 포함)에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음료수를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음료수가격을 감안하여 음식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발소/미장원>

남녀 구별된 이발소나 미장원이 없으며 남녀 공통으로 Friseur라는 곳에서 이발을 한다. 이발 후 머리감는 데는 추가요금이 붙는다.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인데 Euro 1- 2 정도 지불하면 된다.

<구두닭이>

구두닭이는 특급호텔에 밖에 없으며 가격도 비싸다. 슈퍼마켓에서 구두약과 술을 구입하여 스스로 닭는 방법 밖에 없다.

<물가>

멜론,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은 서울보다 훨씬 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여타 물품은 서울보다 약 1.5배 - 3배정도 비싸다.

<특산품>

○ 광학제품

- 오스트리아 광학기술은 세계 최첨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용 카메라 렌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위탁,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 유명 안경브랜드: ZEISS
- 망원경 및 현미경 브랜드: SWAROVSKI

○ 크리스탈

오스트리아는 황정 당시부터 크리스탈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특히 SWAROVSKI (스바로브스키)社의 제품은 현재에도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간주한다.

○ 특산 의류

양모를 특수 가공처리한 'LODEN'(직물의 이름)제품은 보온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제품은 특히 'GEIGER(가이거)'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여성용 장신구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는 특이하게 칠보공예가 발달했다. 특히 MICHAELA FRAY사의 여성용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는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시킨 제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전통 도자기제품

오스트리아 전통 도자기 공예품, 도자기 인형 등이 유명한데 특히 황정 당시 황궁에 납품하던 AU PORZELLAN社의 제품이 최상으로 인정된다.

정보원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36. 관광명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시의 주요 관광지>

○ 쾨브룬 궁전(Schloss Schoenbrunn)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명으로 1744-49년에 건축되었으며, 현관건물, 중앙건물, 글로리에떼(대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 아름다운 정원과 숲(총 18km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전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441개의 방이 있는데 현재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음. '백만금의 방'은 붉은 장미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무도회장'은 현재 국빈 접대시 사용함.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후에 마리아 앙트와네트에게 청혼을 했던 곳으로 알려짐.

○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비인을 구한 영웅 오이겐왕공의 여름 별궁. 上宮(Oberes Belvedere)과 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상궁은 현재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궁은 고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이겐공이 죽은 후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해서 제1차세계대전의 빌미가 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거주했음.

○ 슈테판 성당(Stephanskirche)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양식 건축물로 '비인의 상징', '비인의 혼'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있고, 사원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있음.

북탑 입구옆에 있는 지하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향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000여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남탑은 343개의 계단을 통해 70m 높이의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음. 또 북탑의 종루가 있는 60.6m 높이의 테라스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음.

○ 국립 오페라극장(Staatsoper)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코코 양식이다. 파리, 밀라노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연일수가 많다.(7, 8월 휴관)

○ 케른트너 거리(Kaerntnerstrasse)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슈테판광장에 이르는 보행자 거리이다. 비인시의 중심가이며 양쪽에 고급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쇼핑가로서 한국의 명동거리에 해당된다.

○ 왕궁(Hofburg)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으로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Neuburg로 이루어져 있음. Alteburg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음. Neuburg(새 왕궁)에는 민속학 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무기. 악기박물관이 있음.

또한 왕궁에는 스페인식 승마학교, 비인 소년합창단이 주일미사시 성가를 부르는 왕궁예배당과 신성로마제국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Schatzkammer)이 있음. (월요일 휴관)

○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유럽 굴지의 미술관으로 역대 합스부르크 왕가의 방대한 수집품 약 7,000 점을 전시하고 있음.

○ 자연사 박물관(Naturhistorisches Museum)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선사시대부터의 동. 식. 광물. 인류학에 관한 많은 史料 및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음.

○ 국회의사당(Parliament)

고대 그리스 신전양식을 본떠 지은 장려한 건물로 1883년에 건축, 1918년에 국회의 개원되었음.

○ 시립공원(Stadtpark)

1862년에 개원한 빈시민의 휴식처로서 영국의 풍경을 본뜬 연못과 분수, 바이올린을 켜는 요한스트라우스 동상, 슈베르트, 부르크너 등 12명의 기념동상이 있음. 인접한 쿠어살롱 (Kursalon)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인 왈츠무도회'가 개최됨.

○ 시청사(Rathaus)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1883년에 건축. 98m 높이의 탑위에 '시청사의 사나이 (Rathausman)'가 있고, 하절기에는 앞뜰에서 야외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함.

○ 도나우강(Donau, 영어로는 다뉴브)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 중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도나우강'의 배경이 된 비인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 강 가운데 있는 섬(Donauinsel)에는 수영시설과 식당가, 술집 등이 집결해 있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음. 도나우강의 원줄기인 알테도나우(Alte Donau)에서는 여름철에 뱃놀이를 즐길 수 있음.

○ 비인 숲(Wienerwald)

비인 숲은 위치상으로 알프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km²의 광대한 숲으로 서 크게 북부의 숲과 남서부의 숲으로 나뉨. 북부의 숲에는 베토벤과 인연이 깊은 하일리겐슈타트시와 도나우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승지 칼렌베르그, 포도밭이 많은 그린징등이 있으며, 특히 그린징에는 소위 '호이리게'(금년산 새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많이 있음. 남서부의 숲에는 슈베르트와 인연이 있는 외들링, 온천지 바덴, 수도원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 영화 '덧없는 사랑'의 무대 마이어링 등이 있음.

<기타 지역>

○ 인스부르크(Innsbruck)

도시 전체가 알프스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세풍의 오래된 건물이 많아 동화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서부오스트리아의 도시.

○ 잘츠부르크(Salzburg)

한국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뮤지컬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배경으로 유명한 중부 오스트리아의 도시. 매년 부활절에 개최되는 음악축제로도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

○ 키츠뷔엘(Kitzbuehel)

덴마크, 영국 등 유럽왕실을 비롯하여 유럽의 명사들이 즐겨찾는 스키관광지.

○ 볼프강제에(Wolfgangsee)

볼프강 호수를 중심으로 한 휴양지로 독일 코올총리가 30여년째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 닥흐슈타인(Dachstein)

알프스산맥의 줄기로 산악관광지로 유명하며 유럽최대의 얼음동굴이 있음.

자료원 : 오스트리아 관광 소개 자료 종합(2005년 3월).

37. 유용한 현지어 표현

<발음규칙>

-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영어 발음기호식으로 읽어 주면된다.
예: Tante = 탄테(고모, 이모), Glass = 글라스(유리, 유리잔)
- 예외

Ae = 헤 Oe = 내에 Ue = 귀 Ei = 아이 CH = 흐 EU = 도이 TSCH = 취 SCH = 슈 W = 영어의 V로 발음 Q = 영어의 KV로 발음 V = 영어의 F로 발음 R = r이 단어의 끝에 올 때 및 자음 앞에 있을 때에는 "러"로 발음.	예: Bae = 배 예: Oei = 왜엘 예: Huelle = 휠레 예: Bei = 바이 예: Buch = 북흐 예: Deu = 도이 예: Deutsch = 도이 취 예: Schule = 슐레 예: Woll e = (volle) 볼레 예: Quell e = (Kvelling) 크벨레 예: Voll = (Foll) 폴 예: Herr = 헤어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Gruess Gott (그뤼스 곱)

좋은 아침입니다.

Guten Morgen. (구텐모르겐)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히 콤메 아우스 코레아)

Ich komme aus Korea.

나는 Mr./ Mrs./ Miss 김 입니다.

Ich bin Herr / Frau / Kim.

이히 빈 헤어 / 푸라우 김

다음에 뵙겠습니다.

Wiedersehen (비더제엔)

또 전화합시다.

Wiederhören(비더회른)

감사합니다.

Danke schoen (당케 쇠엔)

<생활용어>

이것은 얼마 입니까?

Was kostet das? (바스 코스테트 다스)

계산해 주세요!

Bitte zahlen! (비테 찰렌)

영수증을 주십시오

Quitung bitte (크비통 비테)

<식품관련 독일어>

쇠고기 = Rindfleisch

국거리용 = Suppenfleisch

장조림용 = Rindfleisch fuer Gulasch

튀김용 = Rinder schnitzel

갈비찜용 = Beinfleisch

막불고기감 = Hintere Ausgeloeste

등심 = Roastbraten

안심 = Beiried

스테이크용 안심 = Lungenbraten vom Rind

돼지고기

장조림용 = Schweinefleisch fuer Gulasch

삼겹살 = Schweine bauchfleisch

돼지갈비 = Schweine Ripperl

불고기용 = Schweineschulter(지방이 적은 부위), Schopfbraten(지방이 많은 부위)

돼지안심 = Lungenbraten vom Schwein

생선

대구 = Dorsch

가재미 = Scholle

고등어 = Makrelle

갈치 = Degenfisch

청어 = Hering
 정어리 = Sardine
 광어 = Heilbutt
 연어 = Lachs
 바다장어 = Aal
 아구 = Seeteufel
 홍어 = Rochen
 참치 = Thunfisch
 홍합 = Mies muschel
 오징어 = Tintenfisch
 새우 = Schrimps
 대하 = Garnellen
 굴 = Austern
 문어 = Oktopus

<식품관련 무게 단위>

보통 1 kg 이하의 단위에는 Deca(Deca gramm의 준말)를 많이 사용함.

1 Deca(데카) = 10 g

<예: 100 g = 10 deca, 250 g = 25 deca, 600 g = 60 deca>

단: 500 g = Halbes kilo, 1.5 Kg = Andert Halb killo

자료원 : 비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5년 3월).

38. 국토

위치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 중하부에 위치하는데 국토가 동과 서로 길게 늘어서 있다. 북서쪽으로는 독일, 북동쪽으로는 체코, 남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남동쪽으로는 슬로베니아, 동남쪽으로는 헝가리, 동북쪽으로는 슬로바키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위스 등 무려 무려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유럽을 지배해왔던 사실과 서방국가로서는 최동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서구 국가들의 동유럽 전초기지로 자주 사용되며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서유럽에 대한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면적

면적은 85,853평방킬로미터로 남한보다 약간 작다.

지형

동과 서로 길게 늘어선 국토는 70%가 산악 지대이다. 동부지역은 비교적 평지가 많고 헝가리와 국경지역인 동남쪽으로는 평야가 전개된다. 슬로베니아와 국경지역인 남동부에서 시작되는 알프스산맥은 국토를 길게 관통하면서 스위스로 이어져 프랑스 동남부에서 끝난다. 알프스산맥의 약 60%가 오스트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알프스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알프스라고 하면 스위스만을 연상하지만 유럽에서는 스위스 보다는 오스트리아를 알프스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토지이용실태

전국토의 28%를 차지하는 동부 3개주에 전체인구의 42%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의 41%를 차지하는 서부지역의 4개주에 전국민의 36%가, 남부 2개주(전국토의 31%)에 전국민의 31%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인 비인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비교적 평지이고 기타 남부 및 서부지역은 알프스 산맥의 산간지역으로 지형이 험한 데 기인한다. 토지대장상의 지목별 비율을 보면 농지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알프스지역의 산간농지를 포함한 수치이다.

<2004년 1월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면적에 대한 지목별 비율>

대지	농지	정원지	산림지	와인농장	하천	기타
0.8%	31.4%	2.0%	53.5.8%	0.6%	1.7%	10.0.3%

자료원 : 2005년 오스트리아 연감

부존자원

오스트리아 국토는 수천만년간의 지질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사시대의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수많은 광물자원의 퇴적 및 생성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텅스텐 원광이 대량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텅스텐의 부존량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밖에도 암염과 석회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

한편 광범위한 석탄매장을 비롯, 하이드로 카본계 퇴적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스타이어 지역에서는 노천광에서 철광석이 채광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총 100만톤의 철광석이 채광된 바 있는데 기계류 제조 등에 필요한 절대량에는 모자라 총 430만톤의 원광은 수입해야 했다. 이들 지역에서 채광된 철광석은 린츠 등에 소재하고 있는 제련 및 제강회사를 제련가공된다. 최근 동구 개방이후, CIS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과의 가격경쟁 열세로 철광 및 석탄/갈탄류의 경우 국내수요를 위해서만 채광할 뿐이며, 많은 광산들이 휴광 상태에 있다.

원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까지 발견된 원유의 총 매장량은 3억1천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1억6천6백만톤 정도를 채굴, 현재의 시추방법으로 매년 약 1백만톤을 채굴하여 연간 전체 원유 수요의 약12%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매년 약 13억 입방미터로 전체수요의 20% 정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기타 자료 종합(2005년 3월).

39. 국민

인구

2003년도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8백12만명으로서 소국에 속하지만 서유럽만을 놓고 본다면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다. 서유럽 국가 중 인구 2천만이 넘는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며 네덜란드도 1천5백만에 불과하다. 인구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당 96.8명으로 낮은 편이며 (남한 450명) 대도시도 인구 밀도는 그리 높지 않다. 오스트리아도 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수도 Vienna 에 밀집해 150만명이 살고있다.

종족

◎ 내국인 (총인구의 약 91% = 약 735만명)

현재 오스트리아 내국인 중 약 98%는 통상 독일계 게르만족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2%는 국경근처에 거주하는 슬로베니아인, 크로아치아인, 헝가리인 그리고 집시 등이다.

오스트리아의 종족은 원래 독일계 게르만족이 중심이지만 동구유럽을 장기간 통치해왔던 결과로 슬라브족의 유입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유입된 슬라브족들은 대부분 독일계 게르만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오스트리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북부독일지역에서도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독일민족의 본거지처럼 되어버린 북부독일 프로이센지역의 경우, 최초 게르만족 이주 시절에 게르만민족이 지배계층이었으며 피지배층은 폴란드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동화되어 그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상주 외국인 (총 인구의 약 9% = 77만명)

70년대 고도성장시기에 인력부족에 봉착한 서유럽 선진 국가들은 후진국들로부터 대량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입하였는데 오스트리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가족들을 불러들였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들이 오스트리아에 상주하게 되었다. 상주 외국인 중 약 35%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며 약 12%는 터어키인 들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학력, 저소득층이며 주로 3D 직종에 근무한다.

언어

공식어는 독일어이다. 슬로베니아어, 크로아치아어, 헝가리어, 슬로바키아어등 4개 언어가 소수민족 언어로 인정되지만 이 언어는 국경지역의 소수민족 거주지에서만 사용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동 소수민족들로 독일어를 구사한다. 오스트리아의 표준 독일어 억양은 남부독일과 매우 비슷하며 북부독일과는 다소 다르다. 통상 독일어 표준어는 독일 하노버에서 쓰이는 것으로 일컬어지는데 지역별로 사투리가 심하다.

종교

◎ 카톨릭교 (전체국민의 약 74%)

오스트리아 카톨릭교는 유럽 카톨릭교내에서 진보적인 편에 속함. 예를 들어 인공적인 피임을 금물로 여기는 교황청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피임문제는 신자 양심에 맡긴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5년도에는 세계최초로 오스트리아 카톨릭 신자들이 신자청원을 시도하여 피임자유화, 성직자들의 결혼허가 등 9개 항목에 걸친 청원을 1백여 만명이 서명하여 교황청에 제출하였음. 국민의 74%가 카톨릭신자라고 하지만 이는 출생신고 당시 자동적으로 카톨릭신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임.

실제로 성당에 나가는 신자들은 20% 미만이며 카톨릭교세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음. 카톨릭의 종교적인 축제일이나 예식은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있음.

◎ 교회세

출생과 함께 카톨릭신자로 분류되었거나 신교(루터리안교파)를 믿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본인의사와 상관 없이 매년 1년 수입의 1%에 해당하는 교회세가 부과되며 교회세는 신자비율에 따라 구교와 신교에서 나누어 가짐. 교회세는 외국인에게도 부과므로 오스트리아 주재 외국 상사원들도 정식으로 오스트리아 카톨릭교회나 루터리안 교회에 신자로 신고한 경우 교회세가 부과므로 주의하여야 함. 만 18세가 넘은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개종했거나 무교라고 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회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교회세를 내지않기 위해 카톨릭 교회로부터 탈퇴하는 오스트리아인들도 있음.

◎ 프로테스탄트 (전체국민의 약 5.5%)

독일계의 전통 루터리안(Lutherian)교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에 퍼져있는 영미계통의 교파는 극소수에 불과함.

◎ 이슬람교 (전체국민의 약 4.2%)

기독교 다음으로 많이 퍼져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주로 터키나 구유고연방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신봉하고 있음. 수니(Suni)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이(Shie)파는 소수에 불과함.

◎ 불교 (전체국민의 0.3% 이하 추정)

불교는 19세기 후반 철학적 연구대상으로 인도불교의 원시경전이 유입된 것이 그 시초인데 현재는 티베트의 라마교와 일본의 선종이 오스트리아 불교계를 양분하고 있음. 주로 인텔리계층에 유포되어 있는 불교는 세력은 미미한 편이지만 일반 오스트리아인들도 대부분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음. 일례로 티베트불교의 체력단련법을 소개한 책자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독일어권에서 1996년 수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음.

오스트리아의 민속학자인 하러(Harrer)씨는 1939년 독일군장교로 인도산악지대 탐험대를 지휘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국군에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티베트로 탈출하였는데 티베트에 체류 중 7년간 달라이라마의 가정교사로 일하였음. 이러한 연유로 오스트리아는 티베트에 우호적임.

◎ 기타

일부 여피(Yupi)족 사이에서는 뉴우에이지(New Age)운동이나 무속 등 잡다한 신종교들이 퍼져 있음. 풍수지리설은 프랑스의 풍수지리연구회를 통하여 60년대부터 오스트리아에 소개되었는데 현재 일부 건축가 및 컨설팅 회사들 사이에서 실용되고 있음.

풍수지리설을 채택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오스트리아 금융그룹인 디 에르스테(Die Erste)의 계열사인 지로크레디트(Giro Credit)은행의 지점 개축공사를 들 수 있는데, 동 은행은 중국계 풍수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산하 모든 지점을 개축하였으며 그 후 은행운영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성

게르만인 중 가장 인사성이 밝고 예절을 중요시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있다. 이 때문에 북부 독일인들은 오스트리아인 들이 과장되게 인사성과 예절을 중시하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경쟁했던 19세기에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해 북부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의 결과로 보는 오스트리아인들도 많다.

오스트리아인 들이 자신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북부독일인들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대신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 평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프랑스 인이나 이탈리아인에 비교한다면 오스트리아인들의 기질은 독일인에 가까운데 특히 남부 독일인들과 비슷하다.

오스트리아인들의 학문적 업적

오스트리아는 과학기술, 의학,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류사에 남을 업적을 많이 기록하였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여 유전공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멘델, 녹슬지 않는 철강제조 공법을 개발한 막스 바우어만, 가스라이트를 발명한 카알 아우어 벨스바크, 독일과학자 오토와 함께 핵물리학 분야에서 족적을 남긴 리제 마이트너 박사등 많은 세계적 인물을 배출하였다.

의학분야에서는 비엔나 의과대학의 창설자인 테오도르 빌로트라가 후두 및 복부수술에 신경지를 개척한 사람으로 유명하며, 페르디난드 헤브라, 요제프 히르틀, 요제프 스코다 등 해부학의 거성들은 해부학 및 수술의 용어체계를 수립할 정도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율리우스 바그너 자우렉은 말라리아 백신치료제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심리학의 거성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배출했으며, 카알 멩거, 뱀베르크 등 한계효용학파가 경제학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이래 노벨상을 수상한 폰 하이에크 등을 배출, 오스트리아 학파의 명성이 높다.

◎ 오스트리아인의 노벨상 수상 경력

《 평화상 》

- 1905 베르타 폰 수트너: 작가, 1차세계대전 발발의 저지를 위해 노력
- 1911 알프레드 프리이트: 저널리스트, 유럽의 평화운동 확산에 기여

《 의학상 》

- 1914 로버트 바라니: 귀 내부의 균형감각 유지장치에 대한 연구
- 1927 율리우스 바그너-자우렉: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 1930 카알 란트스타이너: 혈액형 연구
- 1936 오토 로우비: 신경 및 근육의 화학적 작용에 관한 연구
- 1947 카알 게르티 고리: 효소 연구
- 1973 카알 프리쉬/ 콘라드 로렌츠: 동물행태에 관한 연구

《 물리학 》

- 1933 에르빈 쉬뢰딩저: 양자(quantum) 메카닉 연구
- 1936 빅토르 프란츠 헤스: 우주 라디에이션 연구
- 1945 볼프강 파울리: 양자론의 파울리 원리

《 화학 》

- 1923 프리츠 프레겔: 미세 화학연구
- 1925 리하르트 치그몬티: 콜로이드 화학에서의 측정방법 발전
- 1938 리하르트 쿤: 비타민 연구
- 1962 막스 페루츠: 단백질 분자구조의 정의

《 경제학 》

- 1974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화폐 경기변동론

《 문학 》

- 2004 엘프리데 엘리벵

보건수준

서유럽국가 중에도 상당히 높은 보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3명이며 간호사/원 숫자는 8.7명이다. 1996년 말 기준으로 종합병원 숫자는 124개이며 수용가능 환자는 46,276명이다. 대형 전문병원은 204개가 있으며 수용가능 환자는 23,920명이다. 사망원인 중 1위는 심장병이며 2위는 뇌출혈, 3위는 폐암이다.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심장병과 뇌출혈이 많은 이유는 오스트리아인들이 과다하게 동물성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문화수준

오스트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문화 활동은 수천년간의 역사를 지닌 기념건축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술전시회 및 음악회, 연극, 축제는 물론 전통적인 풍속행사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으로서 비인 필하모니, 비인심포니가 있고, 합창단으로는 비인소년합창단 및 비인오페라합창단이 유명하다. 오스트리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부르크너 등 세기적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한편 구스타브 말러는 무조의 교향곡을 작곡해 전통음악의 한계를 깬으며, 12음계 음악을 처음 시작한 쉰베르크와 알반베르크, 안톤 베버 등도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오스트리아 서부지방의 보덴제 축제로부터 동부지방의 뮌헨비취호수 축제 등 각종 클래식 음악축제가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문화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뮌헨뮌헨해도 찰스부르크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축제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비인 페스티벌이 매년 수개월씩 개최되어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 문학/연극

오스트리아 문학의 역사는 1200년경에 쓰여진 "니벨룽겐 비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릴파르쳐나 민중시인 라이문트, 요한 네스트로이와 같은 19세기 고전 작가들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빈 국립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비엔나의 부어그극장은 유럽의 주요 극장 중 하나로 정평이 나있으며,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최고의 극장으로 손꼽힌다.

한편 비엔나극장에서는 주로 뮤지컬이 연주되고 있는데, 성공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유럽 초연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밖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 극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 민간 극장들은 각각의 테마별로 특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잉글리쉬 테아터는 영어 연극을 그리고 캄머오페라는 젊고 재능있는 오페라 가수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

◎ 미술

오스트리아의 미술은 클림트로 대표되던 유겐트 슈틸 비엔나 세션 (SECESSION)이 빈에 그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바 있음. 유명한 현대 화가들이 여러 명 있지만 특히 훈더트바서와 환상적 사실주의 비엔나파를 만들어낸 쿼터스로(1973년 사망) 하우스너, 폭스, 후터 등이 유명하다. 또한 알프레드 흐르들리치카 등 유명 조각가들도 많이 있다. 년중 지속적으로 곳곳의 박물관이나 화랑에서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원 : ABA 자료 종합(2005.2)

40. 역사

고대

o 켈트족의 노리쿰왕국

도나우(영어로는 데뉴브)강 부근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서력 기원전 약8만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고학적 자료부족으로 이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기원전 9세기경부터는 게르만계 민족인 일뤼러(Illyrer)족이부족국가를 형성하여 오스트리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는데 염광과 철광이 개발되면서 소금과 철광석을 수출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지역의 소금과 철광석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당시 영국과 북서부 및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켈트(Kelt)족이 오스트리아에 진출하여 일뤼러족을 축출하고 노리쿰(Noricum)이라는 고대왕국을 건설하였다. 노리쿰왕국은 서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동족들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금과 철광석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가를 운영하였는데 기원전 200년경 중서부 유럽에서 켈트족들이 철수하여 판매망이 붕괴된 후 게르만계 민족들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 켈트족은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o 로마의 지배

게르만부족들이 오스트리아지역에서 군웅할거시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원전 15년 로마군이 오스트리아 지역 도나우강 유역을 점령하고 도나우강를 로마제국의 북동부 국경으로 삼았다. 로마지배하에 오스트리아 곳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최대의 도시는 카눔툼(Canuntum)으로 약 2만명의 상주 인구가 존재하였다고한다. 국경지대에서는 게르만 부족들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선진국인로마는 와인등 기호식품과 의류등을 수출하고 후진적인 게르만부족들로부터는 모피/피혁 등 목축/수렵산물과 소금, 철광석등 원자재를 수입하였다.

처음에는 물물교환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후에는 은 또는 금으로 교역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상품의 가격결정을 로마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마찰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무력충돌도 야기되었다고한다. 로마측의 수입규제 품목은 없었으나 수출금지품목으로 철제무기가 있었다. 3세기말부터 로마 쇠퇴기에 접어들자 게르만인들을 용병으로 채용하는 일이 많졌으며 이때부터 게르만인들에 대한 철제무기 수출금지가 유명 무실하게 되어버렸다. 4세기 초반부터게르만용병들의 반란이 자주일어나 로마통치가 느슨해졌으며, 395년에는 고트(Goat)족이 대거 침입하여 로마통치가 막을 내렸다.

o 북방아시아계 아바렌족의 오스트리아 통치

고트족이 철수한 후 게르만부족들이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6세기경에 북방아시아계 유목민족인 아바렌(Awaren, 몽고족 계통 추정)족이 기마전술을 이용하여 도나우강유역의 게르만계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아바렌왕국을 건설하였다. 아바렌족은 게르만부족들에게 일부 자치권을 주는 대신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를 경영하였는데 교역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않았다. 799년에 당시 게르만계 민족이 서부유럽지역에 건설한 프랑크제국의 카알대제가 대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지역에 진출하여 아바렌족을 몰아내고 오스트마르크(Ostmark, 동쪽변방의 주라는 뜻)를 세우면서 게르만족의 오스트리아지배가 확정되었다.

중세

o 오스트리아의 건국

오스트리아 지역을 정복한 프랑크왕국은 후일 스페인, 프랑스, 독일제국 등으로 분화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독일제국의 일원으로 남게된다. 당시 독일제국은 철저한 봉건제국으로 황제 휘하에 여러 봉건왕국이 존재하였는데 황제지위는 세습제가 정착되지 않아 황제가 사망하면 게르만족 풍습에 따라 봉건영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제의 지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실권은 개개 봉건영주에게 있었다.

976년 오스트마르크의 영주로 봉해진 바벤베르그가문은 변경의 슬라브민족을 축출하고 게르만계 부족을 식민시키는 방식을 통해 영토를 넓혀나갔다. 996년 문서상 최초로 오스타리키(Ostarrichi)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고대 게르만어로 동쪽의 제국이라는 뜻이며 현재의 국명인 오스트리아의 어원이다. 1156년 바벤베르그가의 명군 레오폴드3세는 능란한 외교술을 발휘하여 독일황제로부터 봉건왕국의 위치를 인정받았다.

즉, 오스트리아가 변경지방의 주에서 봉건국가로 승격된 것이다. 1246년, 바벤베르그가의 프리드리히 2세 사망 후 세자가 없어 왕위승계문제가 일어나자 오스트리아 귀족들은 프리드리히2세의 여동생과 결혼한 보헤미아(현 체코지역, 당시는 게르만계 민족 거주지)의 오토카왕을 오스트리아의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이로써 바벤베르그가문의 오스트리아 통치가 막을 내렸다.

o 오스트리아의 전성기, <오스트리아 세계제국시대>

오토카왕은 독일황제 휘하로 들어가 독일제국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격분한 독일지역의 제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에 침공하여 오토카의 군대를 격퇴하고 동지역을 수복하였다. 동연합군을 지휘한자는 합스부르크가문의 루돌프인데 루돌프는 승전후 자신의 아들을 오스트리아 왕으로 봉하였으며 이때부터 합스부르크왕조의 오스트리아 통치가 시작된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 봉건왕국 중 선두주자의 위치를 달리게 되었으며, 15세기 후반 합스부르크 왕조의 프리드리히 3세는 독일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독일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직위의 세습제를 관철하였다. 그는 교황의 승인을 얻어 국명을 신성로마제국으로 정하고 제국의 수도를 비인(영어로는 비엔나)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19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는 전독일 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서유럽통일을 목표로 소위 '결혼정책'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어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정책은 16세기 초반에 절정에 달해서 오스트리아의 카알5세는 전독일 지역은 물론, 스페인, 네덜란드,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령 신대륙식민지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제국은 '합스부르크 세계제국'으로 불리는데 봉건왕국의 연합형태여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관세는 각국별 주요 수입원이었다.

o 세계제국의 와해

1700년 오스트리아의 스페인 통치를 거부하는 스페인 영주들과 오스트리아 원정군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스트리아 원정군이 대패하여 스페인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서유럽 통일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동방정책을 채택하여 동유럽 국가 정복에 나선다. 1806년에는 오스트리아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북부독일지역의 지배권을 상실하였으며 이 결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1세는 독일황제의 칭호를 반납하고 오스트리아 황제로 재즉위한다.

근세

o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유럽연합의 이데올로기 오스트리아 황제가 독일황제 칭호를 반납하였다고는 하지만 전독일지역의 지배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으며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은 여전히 오스트리아 황제를 섬기는 봉건왕국으로 남았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북부독일에 위치한 프로이센왕국이 급성장하면서 북부 및 중부독일의 봉건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항하게 된다. 1866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독일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결전을 벌여 오스트리아가 패배하였다. 패전의 주요인은 오스트리아 육군의 소총이 매번마다 총알을 한발씩 장전하여 사격하는 화승총형태의 구식이었던 반면, 프로이센의 소총은 라이플형태의 현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은 프로이센이 화전조건으로 상당한 영토나 금전을 요구할 것으로 믿고 대단히 긴장하였었다고 하는데, "철혈재상"으로 불리우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총리는 향후 오스트리아가 독일지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만을 요구하였고 오스트리아 황실은 이를 쾌히 수락하였다. 1867년, 오스트리아 황실은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헝가리의 왕을 겸임한다는 형식으로 헝가리와 연방제국을 건설한다. 헝가리는 16세기 초반부터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피지배민족 중 오스트리아 황실에 가장 충성심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 댓가로 연방제국의 구성원으로 선택되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치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헝가리,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현 오스트리아 지역을 영토로하는 대국이었는데 지역별 산업특화정책을 추진하여 체코 및 슬로바키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헝가리 및 폴란드 지역은 농업지역, 크로아치아지역은 어업, 그리고 현오스트리아 지역은 목축업지대로 선정되었다.

각 민족마다 개별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족국가이론은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와서야 형성되었다. 오스트리아 황실은 당시 타오르는 민족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자국을 민족주의를 초월한 민족연합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유럽민족 연합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물론 이 이론이 타민족지배를 합리화하는 성격도 있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오스트리아 황실의 이론을 현 유럽연합(EU) 기본성격의 정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반전운동 및 유럽국가결속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받은 수트너여사(1905년) 와 프리이트(1911년)가 오스트리아인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현대

뒤늦게 식민지 획득경쟁에 뛰어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자국의 잉여공산품의 수출시장 및 원자재 조달시장로서의 식민지가 모자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동부유럽에 눈독을 드리고 있었으며 독일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미 19세기말부터 유럽 열강간에 막심한 군비경쟁이 일고 있었다.

1914년, 당시 세르비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국수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암살이유는 오스트리아가 동유럽 민족들을 탄압한다는 것이었는데 범인인도문제를 놓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 유럽각국이 참전하여 결국 1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페르디난트 황태자의 암살사건은 전쟁의 촉발제가 되었을뿐 실제 전쟁 이유는 당시 세계경제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진지전으로 전개되어 대량의 인간소모만 있을뿐 지지부진하였는데 영국이 개발한 신무기, 탱크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다.

o 제1공화정과 오스트리아 파쇼체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스트리아는 영토의 90%를 상실한 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당시 지역별 산업특화정책에 따라 공업에 등한시 해왔던 현 오스트리아 지역만을 가지고 제1공화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제1공화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였으며 더구나 1920년대 세계공황 여파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타고 파쇼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기민당 당수 돌프스는 오스트리아 파시즘을 주창하면서 1933년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체제를 확립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오스트리아의 독일 합병을 추진하였다. 1934년 오스트리아 사민당계 민병이 무력봉기하여 민주화투쟁을 시도하였으나 정부군에 의해 유혈진압되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민당을 강제 해산 시킨 후 좌익계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하였다.

이렇게 해서 좌익은 정리되었지만 우익계는 오스트리아 파시즘 추종자와 독일의 나치즘추종자로 양분되어 공개적인 권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19세기 중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주도권을 놓고 벌였던 헤게모니투쟁의 재판으로 남부 게르만인들(오스트리아인)과 북부 게르만인들(북부 독일인)의 싸움인데, 1938년 나치독일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강점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나치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나치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는 오스트리아 우익계 지도자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하였다. 결국, 오스트리아의 좌/우익계 지도자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극심한 군력 투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참회하고 향후 좌우합작을 맹세하였다고 한다.

o 제2공화정의 성립과 국토분단위기 극복

제2차세계대전 종반, 독일군이 패주하고 소련군이 오스트리아 동부지역을 점령하여 강제노동수용소를 해방시키자마자, 오스트리아 정계에서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우익계에서 결성한 국민당은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였으나 단독정부 구성을 포기하고 유효득표 5%에 그친 공산당까지 참여시킨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 정부가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으며 독일과 비슷하게 동부 지역은 소련군이, 서부지역은 서방연합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은 오스트리아의 분단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양대정당인 국민당과 사민당은 분단방지에 필살의 노력을 기울였다. 1955년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이 된다는 조건아래 소련설탁에 성공하여 그 해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하고 주권을 완전 회복하였다. 영세중립국이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군관련 협약이나 조약을 맺지 않으며, 전쟁 발발시 관련국가 중 어느 한편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구히 국가기본강령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대내적인 의미는 없다. 오스트리아는 대내적으로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였다.

o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국가의 확립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사민당은 대연정을 지속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 또한 노사정 협의체인 사회동반자제도를 구성하여 노사문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을 중추로 하고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산업구조가 확립되어 갔다. 1970년대에는 사민당 단독정부가 사회복지국가체제를 확립하였다. 2005년 현재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정부를 이끌고 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역사와 미래 (1999년 발간)
오스트리아 경제발전사 (2002년 발간)

41. 국가조직

행정부

o 연방공화국: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 공화국이다.

o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큰 실권은 없다.
- 총리를 내각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 내각은 총리 및 12명의 장관 그리고 2명의 국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개 외무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

o 주정부(Landesregierung)

- 주지사(Landeshauptmann)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 주정부는 연방헌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법률을 제정한다.

사법부

o 개요

- 사법부는 연방에 속하며 각 주는 사법권이 없다.
- 사법부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헌법상에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o 일반법원의 구성

- 구(區)법원(Bezirksgericht): 한국지방법원 단독심에 해당하며 주로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이혼소송도 관할한다.
- 1심법원(Gerichtshof 1. Instanz): 한국지방법원 합의부에 해당하며 보통 1명의 부장판사를 2명의 배석 판사가 보좌. 1987년 사회노동법원이 폐쇄된 이후 사회/노동법 관련 사건의 1심도 관할하게 되었다.
- 2심 = 주(州)법원(Landesgericht):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
- 3심 = 최고위법원(Oberster Gerichtshof):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o 특수 재판소

-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shof): 법원간의 권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권한문제, 헌법소원, 선거무효소송등을 관할.
- 행정재판소(Berwaltungsgerichtshof): 지방 및 연방정부 행정 관련 소송을 관할.

o 배심원제도

형법상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가 가능한 재판의 경우 동재판에는 8명의 배심원이 참가하여 유무죄를 가림.

o 사형제도의 폐지

1974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무기형이 가장 중한 형벌임.

입법부

의회 : 양원제 (Nationalrat, Bundesrat)

o 하원(나치오날-라트, Nationalrat)

- 정원 183명의 입법부
- 내각의 구성을 승인하거나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입법부 역할을 한다.
- 일반 법안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되며 헌법의 개정은 정족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상원(분데스라트, Bundesrat)

- 정원 64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체적 성격의 기관.
- 하원에 비하면 큰 실권이 없으며 각 주를 대표한다.

- 입법권은 없으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대해 심의권과 거부권이 있다.
- 상원에서 법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동법안의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으면 하원이 정한 법률시행일로부터 6개월후에 동법률이 자동적으로 시행됨. 부연하자면 상원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시행을 늦추는 기능밖에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상원에서 법률안이 거부된 경우 정치적 타협을 거쳐 법률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사정 협의체

o 사회동반자제도(Sozialpartnerschaft)

오스트리아는 사회적합의주의(Neocorporatism)형태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본과 노동의 연합체적 성격을 띤 국가임. 사회적 합의주의는 거리의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그리고 정부가 연합하여 3원주의적 체제 아래 국가를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취지 아래 '사회동반자제도'라는 특수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동제도는 오스트리아 정치 및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회동반자 제도의 최고기관은 평등회의이다. 평등회의의장은 총리이며 사측은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2명의 대표, 노측은 오스트리아 노총에서 2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정부측에서는 재무 및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리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노사측 각2명과 경제부장관, 재무부장관이 투표권을 가진다. 1966년 당시 국민당의 단독정부가 성립되었을 때 정부에서 투표권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정부측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평등회의는 비공식 기관인데 주요한 업무는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및 사회보장관련 법률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2005. 3)

42. 정치제도

o 대통령

6년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으로 오스트리아 마지막 왕조인 합스부르크(Habsburg)가의 자손이 아닌 자가 지니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진다.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야 하며 1차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차 선거의 상위 1, 2위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서 큰 실권은 없으나 정부구성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o 연방 하원(Nationalrat)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서 매 4년 직접선거를 통해 183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만 22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지니며,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진다. 선거방식은 전국구를 핵심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대선거구방식의 지역구선거를 가미한 형태이다. 1인2표제로 투표용지에 정당 기표란과 인물기표란이 분리되어 있다. 즉 정당기표란에 전국구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인물기표란에서 지역구의를원을 선출한다. 지역구 및 전국구에 동시 공천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전국적인 정당별 득표결과(백분율)에 따라 유효투표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의석점유 결과를 통보하며 각 정당은 의석점유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구 순위 및 지역구 득표율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유효득표의 3%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지역구 출마자가 5만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의회진출이 가능한데, 대선거구제여서 5만표 득표는 매우 힘들다.

제1공화정의 성립(1919년)과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온 탓으로 연방하원은 지역구의 이해타산과는 다소 거리가 먼 연방정치의 장이라는 의식이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구선거방식 도입은 1995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들과 지역구 후보간의 연대감이 희박하다.

o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실제권한은 없다. 각 주별로 대부분 매 5년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Oberoesterreich 주는 예외적으로 6년마다 선거 실시)

피선거권은 각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만 22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 가지며, 선거권은 각주별 주의회 소속의 의원이 지닌다. 의석수는 총 64석인데 각 주의 주민의 수에 따라 주별 의석수가 배당된다. 연방상원의원은 주의회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으로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형식적인 투표를 통해 연방상원에 진출한다.

<정당제도 및 현황>

o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Oesterreichs)

1886년에 창당된 오스트리아 최고(最古)의 정당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 사민당과 함께 유럽 사민주의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온 관록의 정당으로 1972년 이후 최근까지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다가 2002년 총선에서 국민당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었음. 창당 이후부터 줄곧 노동운동에 진력해 온 결과 오스트리아 노동계와 각별한 관계에 있음.

당노선은 중도좌익으로서 온건 사회개혁을 통한 복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80년대 이후 당내 우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주류인 당내좌파도 온건좌파 세력으로서 급진좌익세력과는 관계가 없음. 전통적인 지지계층은 근로자, 퇴직한 사회복지연금 생활자, 지식인계층 등인데 최근 들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음.

o 오스트리아 국민당(Oesterreichische Volks Partei)

1938년 나치독일 점령군에 의해 강제 해산된 기독교민주당의 당원을 중심으로 1945년에 창당된 보수우익정당으로 1996년 현재 당내주류는 중도우익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농민, 자영업자, 사무직근로자 및 경영인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오스트리아 카톨릭계와 각별한 협력관계에 있음.

1972년 이후 제2당으로 전락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의 이탈 및 신세대 사무직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제3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 총선에서 다시 제 1당으로 부상함.

o 오스트리아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Oesterreichs)

1952년 결성된 무소속연합을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 구성초기부터 국수주의적 노선과 자유주의적 노선의 의원들간에 노선투쟁이 심했음.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초반까지 자유주의적 노선의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였으나 1985년 이후 국수주의적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음.

EU인권위원회는 1995년 공식문서에서 오스트리아 자유당을 인종주의 색채가 짙은 반민주정당으로 지목하였으며, 현재 EU의회 내에서 오스트리아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어떠한 원내교섭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985년까지 전체 유효투표의 5 - 10%를 차지하는 군소정당의 위치에 있었으나 국수주의적 선동정치가인 하이더(Haider)씨가 당수로 선출된 후 지지층이 확산되어 90년대 치루어진 총선에서는 20 - 2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음.

지지층은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며 주로 정보화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불만계층임. 한때 가장 인기있는 정당이었으나, 최근의 각종 지방 및 지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연이어 의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다가 2005년 4월 내부분열로 인하여 Strache 지지자들은 자유당에 남고, Haider 지지자들은 독립하여 오스트리아 미래당(Bündnis Zukunft Österreich)을 창당하였음.

o 오스트리아 미래당(Bündnis Zukunft Österreich)

자유당 내 Haider 지지 세력들이 독립하여 2005년 4월 결성한 신생 정당.

o 녹색당(Gruene)

1985년 창당된 환경보호주의 정당. 창당 후 좌익계 환경보호주의자와 우익계 환경보호주의자간에 노선투쟁이 심했으나 현재는 좌익계가 당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음. 1994년 우익계는 탈당하여 시민환경당(Buegliche Gruene)를 창당하였으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여 존립위기에 처해 있음. 당목표는 환경보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며 일부 문제에 있어서 녹색당 노선은 오스트리아 사민당보다 좌익에 속함. 지지기반은 인텔리계 층과 학생층 등임.

오스트리아 정당의 의석 점유 현황

정당명	독어약자	상원	하원	EU의회
국민당	ÖVP	27	79	7
사회민주당	SPÖ	26	69	7
자유당	FPÖ	3	8	6
미래당	BZÖ	2	10	
녹색당	GRÜNE	4	17	2

註: 1) 상원 및 하원은 2002년 11월 총선 이후 결과임.

2) EU의회 파견의원은 2000년 10월 선거결과임.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43. 정치사회동향

<개황>

오스트리아는 1945년 제2공화정 성립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중도좌익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과 중도 우익의 국민당을 기축으로 한 양당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당을 선두로 한 군소정당의 급부상으로 다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2000년 초에는 제2공화정 성립 후 처음으로 우익 진영만으로 구성된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오스트리아 정치무대에 대대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자유당의 극우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2002년 상반기 정치사회 동향, 하부 참조)

< 2004년 정치/사회동향>

오스트리아 법인세 대폭 인하, 출산장려 세제 채택

국민당과 자유당의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소득세의 누진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법인세 인하

현행 34%에서 25%로 인하되었다. 199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정부는 법인세를 42%에서 34%로 경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도한 바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여타 서유럽 국가들도 법인세를 34% 수준으로 내리기 시작하여 이제 법인세 34%는 별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여타 서유럽국가와 차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자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소득세 누진단계 축소

소득세의 누진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을 줄이면서 중산층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세제는 4단계의 누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신세제는 소득세율을 단계별로 23%, 33.5% 그리고 50%로 정하였다. 전체적인 조세부담율은 43.9%에서 42.3%로 줄어들 전망이다.

3. 출산장려 정책

육아 가정의 경우 첫 아이에 대해서 Euro 130 이 소득액에서 기초공제되며,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Euro 175 가 공제되고 세 번째 아이부터는 Euro 220 기초공제하는 것이 신세제에서 출산장려책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3세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 정책은 이와 무관하게 지속 된다고 한다.

각계 반응

학계반응은 전반적인 방향은 옳지만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 야당들은 알리바이용 세제개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여당 측은 오스트리아의 민성재정적자 및 누적된 국가부채(년간 GDP의 68%수준)를 감안할 때 최상의 세제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본사 유치를 목적으로 한 회계법 개정

2005년부터 실행될 이 법안의 골자는 다국적 기업이 오스트리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오스트리아 본사의 세금정산시 100%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본사는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자회사의 주력업종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반도체 생산을 주력품목 삼고 있으며,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어린이 놀이동산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자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회계상 이 적자가 본사로 이전됐다면, 이 손실을 본사의 세금정산시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의 손실을 내국에 위치한 본사의 세금정산시 반영해 주는 세제는 북유럽 일부 국가들이 실행하고 있지만, 자회사의 업종을 불문하고 51% 이상의 주식 소유만으로 총조조건을 규정한 나라는 유럽연합국가 중 오스트리아밖에 없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현재 오스트리아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에도 공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 국민소득 4위인 오스트리아가 고임금 국가인 만큼 생산기지 이전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사무직 위주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유지하자는 것이 이 개정 회계법의 목적으로 사료된다.

<2003년 정치/사회 동향>

2002년 11월24일 총선을 치루었던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장 3개월이 넘는 지루한 연정협상 끝에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2003년 3월 1일부로 구성됐다. 이번 연립정부 구성이 이렇게 오랜 걸린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30년만에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데 기인한다. 52석에서 79석으로 의석이 늘어나면서 만년 제1당을 자처해온 사민당을 제2당으로 몰아낸 국민당은 의기양양하게 연정협상에 임했었다.

제1당이 되었으니 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국민당의 노선을 관철시키겠다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당내 인사들이나 오스트리아 재계에서 갈망했던 사민당과의 대연정 구성은 실패했다. 연정구성 실패의 공식적 이유는 국민당이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차세대전투기 구입사업을 사민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가 소식통들에 의하면 진짜 이유는 국민당 당수이며, 총리에정자인 슈셀(Schuessel)이 내심 자유당과 연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사민당은 다루기가 힘든 파트너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국민당은 녹색당과도 연립정부 협상을 벌였었는데, 역시 전투기 구입문제로 결렬됐다. 사민당 및 녹색당과의 연정협상에 소요된 기간이 약 2개월 반 정도 된다. 국민당의 2002년 11월 총선 이전의 연정 파트너는 자유당이었는데, 자유당내 권력투쟁으로 연정이 붕괴된 이후 국민당내 많은 인사들은 자유당과의 연정을 꺼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자유당내 권력구조가 불분명해 과연 자유당이 연정 계약을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서유럽국가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향후 연립정부의 노선에 대해 정책을 협의한 후, 협의된 사항이 명시된 연정계약을 맺게 되며 이 연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시해나가게 된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쟁

오스트리아는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노령화되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연구하여왔으며 연립정부구성 협상 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았었다. 국민당의 개혁방안은 연금제도 규정 강화 및 최소 근로연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통과를 앞두고 연정 협상 때에 국민당의 방안에 동의하였던 자유당에서 갑자기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연정붕괴 위기까지 몰렸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당에서 동의하였으나 불안한 상태이다.

한편, 사민당과 녹색당 등 야당은 국민당의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이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반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유일의 상급노조인 오스트리아 노총도 정부의 법안 제출에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막후 실력자 하이더의 중앙정치무대 복귀설

자유당내에서는 선동주의적 국수주의노선을 추구는 세력이 득세하고 온건파가 몰락한 상황이어서 연정계약서를 맺는다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4년간 자유당이 이 계약서를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이 국민당 인사들 사이에 많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재계에서는 국민당이 사민당과 연정을 맺고 여러가지 개혁을 해주기 바랬던 것인데, 국민당 당수 슈셀이 결국 자유당을 주니어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의석이 52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이번 연정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당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한다. 현재 자유당 당수이며 전당수인 하이더의 측근인 하우스프트는 이번 연정은 절대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자유당내에서 국수주의 정치가인 하이더의 영향력이 아직 막강해 이번 연립정부가 4년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히 존재한다.

특히 2004년, 자유당내 막후 실력자이며 국수주의자인 하이더의 중앙정치무대에 복귀할 것이라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국민당과 자유당 연립정부가 다시 구성됐음으로 전체적인 경제정책은 지난번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축소될 것이며 국가부채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2년 정치/사회동향>

2002년 11월 오스트리아 총선: 국민당, 36년 만에 숙원 달성

2002년 11월 24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국민당이 유효표의 42.3%를 획득하면서, 36년 만에 원내 제1당의 위치를 회복하였다.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1966년 총선에서 전설적인 오스트리아 정치가 크라이스키가 이끄는 사민당에 패배하여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어 준 후, 만년 제2당의 위치를 지켜왔으며, 1999년 총선에서는 414표 차이로 자유당에 이어 득표율 기준으로 제3당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었다.

이번 국민당의 역사적 승리는 현총리이며 국민당 총재인 슈셀(Schuessel)의 공로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1999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제3당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과 협상하여 총리자리를 얻어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인기 있는 자유당 정치인 그라서(Grasser)를 국민당으로 끌어드리는 파격적 선거전을 주도하여 국민당 36년의 숙원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년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득표율 증감	의석수	의석증감
국민당	42.2 %	+ 15.4 %	79	+ 27
사민당	36.8 %	+ 3.8 %	69	+ 4
자유당	10.0 %	- 16.4 %	18	- 34
녹색당	9.2 %	+ 1.6 %	17	+ 3

자료원 : 오스트리아 내무부(2002년 12월)

국수주의 성향의 자유당 2002년 총선에서 참패

국민당의 숙원달성 이외에 이번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소 극우적 성향 때문에 유럽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자유당의 참패이다. 자유당 인사들은 독일나치의 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켜 온 정당이다.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득표한 절대수치는 약 47만 표로 1999년 획득하였던 125만 표에 5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친다. 자유당의 참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손꼽히는 것은 이당 시절 남발하였던 선동적 공약을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나서 실현하지 못하여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유당내 온건파와 국수주의 강경파간의 내분으로 국민당과의 연립정부를 붕괴시켜버림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이 4석, 녹색당이 2석을 추가하였으나, 자유당과 국민당의 의석을 합치면 98석으로 국회제적 과반수인 92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중도우익인 국민당과 우익정당인 자유당과의 새로운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성립된다면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면 단기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어 반짝경기 가능성도 있었으나 국민당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의사가 없음으로 긴축예산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내년도에도 경제는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경제단체인 연방상공회의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 이슈 중 하나가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이었는데 국민당은 연방상공회의소 입장을 반영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동유럽국가와의 경제유대강화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수보다는 헝가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긴축예산집행에 따른 오스트리아인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범용 소비재시장의 경우 저가제품시장의 확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산 범용소비재는 더욱 강력히 가격경쟁력 향상을 요구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황을 타지 않는 청소년 대상 제품, 예를 들어 휴대전화 또는 MP3 Player 품목에서는 한국산제품이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전망이 밝은 편이다.

<2002년도 상반기 정치동향>

[자유당의 인기하락]

자유당은 선동정치를 바탕으로 커온 정당임. 이 과정에서 기성정치인들의 특권, 예를 들어 각종 공직의 겸직 등을 비판하였으며, 집권하면 전문인들로 구성된 내각을 조직하여 국가경영을 혁신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해왔음.

그러나 정작 자유당이 집권하자 기성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인사, 공직 겸직 등의 사례가 빈발하여 인기가 많이 하락하였음.

2002년 6- 7월에 들어 시행된 각 언론 기관의 여론 조사에 따른 정당별 인기도는 다음과 같음.

여당 = 국민당: 23 - 25%, 자유당: 20 - 22%

야당 = 사민당: 32 - 34%, 녹색당: 10 - 12%

[차세대 전투기 논쟁]

오스트리아 공군은 드라켄(Drakken)이라는 스웨덴산 구형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체가 시급한 상태임. 국민당/자유당의 연립정부는 2년에 걸친 검토 끝에 유로파이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였음.

유력한 경쟁 대상은 미국의 F-5와 스웨덴의 신형 드라켄이었는데, 가장 비싼 유로파이터가 선정되어 논란이 많았음. 유로파이터는 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이 조직한 컨소시엄에서 생산하는 기종이라서 동국가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언론에 무성함.

야당인 사민당과 국민당은 전투기구입을 반대하는 입장임.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국수주의적 경향>

1986년 극우 성향의 Haider가 자유당 당권을 장악, 자유주의 성향인 비주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Haider씨는 나치독일의 고용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외국인 배척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 실시를 시도하여 유럽정계로부터 신나치주의에 연관된 인종차별주의 성향이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1995년,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당시 자유당 당수 하يدر(HAIDER)씨를 지칭하여 "극우 파쇼분자들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발언한 녹색당 국회의원 필츠(PILZ)에 대해 하يدر가 제기한 명예회손 재판에서 필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1996년 5월초 EU의회의 인권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정당이라고 지적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에서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연립정부참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1997년부터 자유당 당수 하يدر(Haider)는 국수주의적 발언을 자제하고 온건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중산계급에 어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1999년 총선 이후 다시 선풍적 국수주의 노선이 등장하였다.

2002년 2월에는 전 자유당 당수이자 현 케른텐(karnten)주 주지사인 하يدر가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을 방문하여 파문을 일켰다.

<2001년 정치사회 동향>

o 개황

5월 비인 지방의회선거에서 참패한 자유당은 향후 노선 설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동 당의 전통적인 국수주의 노선이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비인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승리한 여세를 몰아 대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필하자는 작전으로 나가고 있으며 녹색당 역시 연립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o 하이더의 반유대주의적 발언

2001년 3월, 하이더가 공식 석상에서 비엔나 유대인연합회 회장 아리엘 무찌칸트(Ariel Muzikant)에 대해 "깨끗하다는 뜻을 지닌 아리엘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오물 속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이더의 동 발언은 묘한 뉴앙스를 지니고 있다. 서양문화에서는 "더러운 유대인"이라는 말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이더의 동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o 비인 주의회 선거

득표율 사민당=46.8%(+7%), 자유당=20.3%(-7%), 국민당=16.4%(+1%), 녹색당=12.5%(+4%)
자유광장당=3.5%(-4%), (괄호 안은 지난번 선거결과와 비교)

<선거결과분석>

사민당의 장기집권에 싫증을 느껴서 자유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자유당/국민당 연정을 경험한 후,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느낌을 받아 사민당에게 다시 돌아온 것으로 사민당의 압승을 분석할 수 있다. 자유광장당은 당내 내분으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해 유효투표의 5% 득표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의회 진출이 좌절되었다.(비인지방선거법상,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주 의회에 진출 할 수 있음)

<2000년 하반기 정치사회동향>

o 정치개황

사민당 정치에 싫증을 느껴서 자유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국민당/자유당 연정에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특히 자유당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가고 있음이 지방 의회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o 부어겐란트 주의회 선거 득표율

사민당=46.6%(+2.1%), 국민당=35.3%(-0.8%), 자유당=11.3%(-2.0%), , 녹색당=5.5%(+3%),
(괄호 안은 지난번 선거결과와 비교)

o 슈마이머마크 주의회 선거 득표율

국민당=47.3%(+11%), 사민당=32%(-3.6%), 자유당=12.1%(-5%), 녹색당=6.2%(+1.3%), (괄호 안은 지난번 선거결과와 비교)

<2000년 상반기 정치동향>

o 개황

자유당은 1999년 말 총선에서 28.1%를 획득하여 제2당이 되었으며 국민당은 0.1%차로 제3당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러한 국면을 역이용하여 제1당인 사민당과 제2당인 자유당에 동시에 추파를 던지며 연정 참여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고자 했다. 정부참여가 최대의 희망이었던 자유당이 연정구성 대가로 총리직을 국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이에 국민당이 응락하여 2000년2월초에 1945년 제2공화정 성립 후 최초로 우익계 정당으로만 구성된 연정이 성립되었다. 국민당/자유당 연정은 만성재정적자 개선을 위하여 초긴축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 현재 국민들은 관망자세에 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일간지 보도자료 종합(2005년 6월).

44. 국가원수

<대 통 령> (상징적 국가원수)

o Dr. Heinz Fischer 의 약력

생년월일 : 1938.10.09

학력 : 빈 국립대학 법학대학원 수료, 정치학 박사

가족사항 : 1968년 Margit 여사와 결혼

1972년 아들, 1975년 딸 출생

주요경력

1962 : 국회부의장 보좌

1963 : 사회당 서기

1968 : Margit 여사와 결혼, 1남 1녀

1971 : 하원의원에 당선

1975 : 원내대표

1979 : 사회당 부대표

1983 : 과학기술부 장관

1990 : 국회부의장

1994 : 국회의장

1996 : 국회의장

2000 : 국회의장

2003 : 국회부의장

2004 : 사회당 대통령 후보당선

2004년 4월 25일 오스트리아 대통령 당선

2004년 7월8일 대통령 취임

- 참고사항 : 사회당원으로서 약 4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중립국으로서의 오스트리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헌법보호를 주장하였다.

<최고 실권자>

총 리: Dr. Wolfgang Schuessel (국민당 당수)

- 생년월일: 1945.06.07
 - 최종학력: 비인국립대학 법학연구소 수료, 법학박사
 - 가족사항: 결혼, 1남
 - 주요경력:
- 1968: 오스트리아 국민당 원내 부총무
 1975: 오스트리아 재계연합(국민당 사조직) 사무총장
 1989: 경제부 장관 (국민당과 사회민주당과 구성된 연립정부)
 1995: 국민당 총재
 1995: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국민당과 사회민주당과 구성된 연립정부)
 1997: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2000: 자유당과 연정으로 총리 (2002년 연정붕괴로 총선실시)
 2003.03.01: 총리 취임

참고사항: 국민당내에서 재계와 가까운 소위 경제파에 속함.

자료원 : 오스트리아 정부 인터넷 신상자료(2005년 3월).

45. 주요인사

<정부 각료>

(부총리 겸 교통/기술부 장관)

Mr. Hubert Gorbach (자유당)

- 1956년 07월28일생
- 상업고등학교 졸업
- 자유당 주의회의원, 주정부 장관, 국회의원 역임.

- * 참고: 원래 부총리는 외무부를 관장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상례인데, 자유당이 여타 유럽연합국가들로부터 국수주의 성향이라고 비난 받고 있기 때문에 연립정부에서는 국민당에서 외무부를 맡고 있음.

(사회부 장관)

Mrs. Ursula Haubner (자유당)

- 1945년 12월22일 생
- 교육대 졸업. 중고교 교사 역임
- 자유당 상원의원, 주정부 장관 역임
- 자유당 막후 실력자 하이더(Haider)의 친동생으로 정치경력은 짧으나 자유당 실세로 통함

(외무부 장관)

Mrs. Dr. Ursula Plasnik (국민당)

- 1956년 5월 23일생
- 비인법대 법학박사
- Bern 대사(1984-86)
- KSZE 대표단으로 다년간 역임
- 2004스위스 대사로 역임

(재무부 장관)

Mr. Karl-Hainz GRASSER (원래 자유당인사였으나 현재는 무소속)

- 1969년 1월 2일생
- 클라게푸르트대학 경영학부 졸업, 경영학 석사
- 자유당 사무국 유럽연합/관광부 부장,
- 케른텐주 부주지사 역임

(경제/노동부 장관)

Dr. Martin BARTENSTEIN (국민당)

- 1953년 6월 3일생
- 그라츠대학 화학박사
- 제약회사 회장, 국민당 공업부문 대변인
- 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환경부장관 역임.
- 가족/청소년부 장관 역임.

(내무부 장관)

Mrs. Liese Prokop (국민당)

- 1941년 3월 27일생
- 1968년 멕시코올림픽 5종경기 은메달리스트
- 1969년 5종경기 세계기록수립, 유럽챔피언
-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주정부 문화, 예술, 사회복지, 청소년, 가족분야 장관
-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부주지사 역임

(법무부 장관)

Mrs. Karin Miklautsch (무소속, 자유당계)

- 1964년 3월11일 생 (Graz에서 출생)
- Innsbruck 법과대학 졸업
- 캐른텐주 정부 환경보호과장 역임
- 세계 직장인 여성 연합회 ZONTA Klagenfurt 회장역임

(교육/과학/문화부 장관)

Mrs. Elisabeth GEHRER (국민당)

- 1942년 5월11일 생
- 사범대 졸업
- 초등학교 교사, 지방정부 교육부장, 교육감 역임
- 포어알베르그 주정부 가족/청소년 주무 국장 역임
- 국민당계 여성운동본부장 역임.
- 교육문화부장관 역임

(교통기술부 국무상)

Mr. Eduard Mainoni (자유당)

- 1958년 2월10일생

(농림부장관)

Mr. Josef Proell(국민당)

- 1968년 09월14일 생
- 비인국립대 농학과 졸업, 농학 석사
- 연방 농림인연합 요직 및 사무총장 역임
- 농림부장관 비서실장 역임

(국방부장관)

Mr. Guenter Platter (국민당)

- 1947년 생
-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 국방부 국장, 국회의원 역임

(재무담당 국무상)

Mr. Dr. Alfred FINZ (국민당)

- 1943년 10월7일 생
- 비인대학 법학박사, 감사원 사무관으로 출발, 요직 역임
- 감사원 국제협력처장 역임

(정무담당 국무상 / 총리 직속)

Mr. Franz MORAK (국민당)

- 1946년 5월25일 생
- 비인대학 중퇴
- 연극배우 및 감독으로 명성
- 국회의원 역임

(사회복지/가족문제 담당 국무상)

Mr. Sigisbert Dolinschek

- 1954년 2월 18일생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 기계제조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 1994년부터 클라겐푸르트 주 자유당 구(區)지부장 역임

<참고 사항 1.>

국무상(Staatssekretaer)은 차관과 장관의 중간 위치. 거의 장관급 대우.

자료원 : 해당 장관부서 인터넷 자료 (2005. 5)

46. 행정구역

<개요>

오스트리아는 9개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1919년 제1공화정 성립 이후부터 줄곧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독일에 비하면 약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강하다.

<주별 현황>

o 비인 주

- 면 적: 414 km²
- 인 구: 159만명
- 수 도: 비인 (인구 1,590천명)
- 주요기관: 정치, 경제 중심지
- 특기사항: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1개 주

o 니더외스터라이히 주

- 면 적: 19,174 km²
- 인 구: 153만명
- 수 도: 장크트폴텐(인구 51천명)
- 주요기관: 상공회의소
- 특기사항: 소규모 유전지대, 공업단지, 백포도 산지로 유명

o 오버외스터라이히 주

- 면 적: 11,979 km²
- 인 구: 138만명
- 수 도: 린츠(인구 200천명)
- 주요기관: 상공회의소
- 특기사항: 소규모 유전지대

o 슈타이어마르크 주

- 면 적: 16,388 km²
- 인 구: 120만명
- 수 도: 그라츠(인구 240천명)
- 주요기관: 상공회의소
- 특기사항: 자동차 부품공업지대, 140개 주요 기업이 연관 기업집단 구성

o 티롤 주

- 면 적: 12,647 km²
- 인 구: 66만명
- 수 도: 인스부르크(인구 120천명)
- 특기사항: 알프스 산악지대, 스키관광 및 산악관광으로 유명

o 케른텐 주

- 면 적: 9,533 km²
- 인 구: 56만명
- 수 도: 클라겐푸르트(인구 90천명)
- 특기사항: 알프스 산악지대, 산악관광으로 유명, 산간목축 및 농업지역

o 잘츠부어그 주

- 면 적: 7,153 km²
- 인 구: 52만명
- 수 도: 잘츠부어그 시(인구 150천명)
- 특기사항: 알프스 산악지대, 잘츠부어그 음악제 국제적 명성, 도시, 호수 및 산악 관광으로 유명

o 포어알베어그 주

- 면 적: 2,601 km²
- 인 구: 35만명
- 수 도: 부레겐츠(인구 120천명)
- 특기사항: 스위스 접경의 공업지대

o 부어겐란트

- 면 적: 3,965 km²
- 인 구: 28만명
- 수 도: 아이젠슈타트(인구 11천명)
- 특기사항: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EU가 지정한 낙후 지역으로 이 지역에 투자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금액의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는 농업 지역이며 특히 적포도주 산지로 유명하다.

<자치행정 구역>

- 주 이하의 자치행정구역은 광역자치지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 광역자치지역은 광역자치도시와 Landbezirk(란트베찌역, 우리나라 군에 해당)으로 분류.
- 기초자치지역(Gemeinde)은 도시기초자치단체(Stadtgemeinde)와 시장기초자치단체(시장을 중심으로 나눈 시골의 행정구역)로 나뉜다.
- 특별한 예는 비인시로서, 비인시는 연방의 한 주로서의 인정을 받지만 1개 도시이므로 주정부와 광역자치시정부가 동일하고 1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관광청 제공자료(2005. 3.)

47. 대외관계

기본노선

- 영세 중립국으로 연방헌법에 명시된 "항구적중립국"이 기본외교노선
- 70년대 이후 적극적 중립으로 자세전환을 시도, 국제문제중재, 조정역할을 담당하며 UN 평화유지군 파견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신장 및 지위향상 노력
- 외교목표로 동서군축 및 긴장완화, 남북협력, 약소국 주권 독립침해방지, 인종차별 배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중시하여 왔음.

동구권과 유대 관계

- 구 동구권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황정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원으로 유대가 강한 편임.
- 특히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황정을 식민지배 정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유하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여 오스트리아와 유대가 매우 강함.
- 러시아와는 전후 밀접한 관계유지, 경제협력 강화

친 아랍 노선

- 70년대 크라이스키 총리(사민당 소속, 유태혈통)은 친 아랍, 반 이스라엘 외교 노선 추구하여 아랍계 국가들에 대한 입지가 확고함.
- 오스트리아는 PL0를 국가기구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임.
- 크라이스키 총리 이후에는 아랍 및 이스라엘과 등거리 외교노선이 확립되기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U가입 이후 및 2000년대 외교노선

- 1995년 EU 가입후 역내 관계강화 역점, 인접 동구국가에 EU 창구 역할.
- EU가입 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음.
- 1998년 7월1일 - 12월31일까지 순번재로 돌아오는 EU 의장국 역임.
-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의 EU가입과 동시에 EU의 안보동맹인 WEU에는 정회원으로는 가입하지 않고 단지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음.
- 2005년 현재, EU와 EEA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통합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집행기관에서 농림부장관은 전 오스트리아 농림부 장관인 Fischler씨가 맡고 있음.

외교이슈: 유럽연합의 외교제재 조치와 해제

2000년 1월초,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국수주의 성향의 자유당과 연립내각 구성 협상에 들어가자 여타 EU회원국들은 불안의 눈초리로 이를 주시하게 되었으며 프랑스대통령 시락 및 벨기에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EU회원국 수뇌들이 오스트리아 대통령에게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자유당 당수 하이더는 프랑스 대통령 "시락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에서 실정만 거듭한 사람"이며 "벨기에 정부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하였다. 또한 "서유럽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오스트리아 자유당과 같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저지하려 한다"는 나치선전구호와 매우 유사한 발언도 하였다.

이러한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과 벨기에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가 EU성명으로 표면화 되었다. 2000년 1월30일, 당시 EU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4개 EU회원국 이름으로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F.P.Oe)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14개 회원국이 오스트리아와의 상호평등원칙의 외교관계 한시적 단절 및 여타 정치적 관계를 재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EU역사상 초유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문 전문 번역)

현재 EU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14개국 EU회원국 이름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14개 EU회원국은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14개 EU회원국이 공동으로 취하게 될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였다. 포르투갈 수상은 오늘, 2000년1월31일 월요일,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및 총리에게 동 합의사항을 통고하였으며 포르투갈 외무부장관은 오스트리아 외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주지하였다. 14개 EU회원국은 만약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공동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 14개 EU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해 상호평등원칙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공식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평등원칙을 바탕으로 한 수동적인 공식 외교관계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2) 14개 EU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인이 어떠한 국제기구의 직책을 맡기 위해 출마할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3) EU 14개국 주재 오스트리아의 대사들은 (대사급 외교수준에서 격하되어) 실무자들과의 접촉만 가능하다. 포르투갈 수상과 외무부장관은 오스트리아 측 책임자들에게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경우 외교관계에 있어서 business as usual 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유럽연합 외교제재조치 해제

국수주의적 자유당의 연립정부 참여에 두려움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해 내린 외교적 제재조치는 2000년9월13일 해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연립정부 참가 이후 자유당이 국수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교적 제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나, 사실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세에 유럽연합이 굴복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동안 유럽연합이 외교적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토(Veto)권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의 모든 의사결정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비토권을 계속 행사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외교개황

o 독일과의 협력

- 동구권 붕괴 이후 외교문제에 있어서 독일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EU권에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친독일계 EU국으로 분류됨.

o 헝가리와의 협정

- 1993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외교협정을 맺어 자국의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 헝가리영사관이 존재하는 경우 헝가리영사관에서 오스트리아인들에 대한 영사업무를 실시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에서 헝가리인에 대한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유고내전 전후의 상황

- 현재 종식된 유고 내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 유산으로서 당시 터어키 침공에 대비 전략촌에 이주시킨 슬라브계 유랑농민(세르비아계)과 황정의 동방정책에 따라 해안선에 정착한 슬라브계 어민(크로아치아계) 및 터어키 지배시 회교로 개종한 슬라브계 농민(이슬람계)의 국수주의적 지역 분쟁임.
-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함께 친 크로아치아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대비 오스트리아의 대 크로아치아 원조액은 세계 최고임.
- 1997년4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약 1만여명의 구유고연방계 피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정착금조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EU측이 난색을 표명함.

o 영세 중립 포기 논의

- 1995년1월1일부 EU가입 이후 영세중립 포기 대한 논의가 오스트리아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1955년 당시 소련군 철수 조건이었으며, 그 후 냉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의 정치 경제적 생존을 보존해준 영세중립에 대해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의존감이 많아 영세중립의 급작스러운 포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

o 터키와의 관계 냉각

- 1995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자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1996년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간축예산집행과 경상수지적자 대응책의 일환으로 본국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 오스트리아내 많은 취업자를 가지고 있는 터어키는 이를 문제삼아 크게 반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터어키의 관계가 다소 냉각되었음.

o 이란과의 관계

- 1997년4월, 1987년 비인에서 일어난 쿠르드(Kurd)족 거물 망명정치인 피살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서 이란과 오스트리아 사이가 미묘하게 되었음.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입수하여 공개한 오스트리아 국가보안경찰의 극비문서에 의하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국가보안경찰측은 이란인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체포하려 했으나 이란측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수사를 포기하였다고 함.

자료원 : 오스트리아 일간지 보도자료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 5).

48. 국가경쟁력

오스트리아 연도별 종합순위

2000	2001	2002	2003	2004
18 위	14위	15위	14위	13위

요소별 연도별 순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Economic Performance	17위	18위	27위	21위	15위	21위
Government Efficiency	14위	15위	11위	18위	19위	14 위
Business Efficiency	23위	17위	12위	13위	13위	14 위
Infrastructure	19위	14위	11위	11위	13위	17 위

요소별 세부항목

요소	기준	순위
Economic Performance	- Domestic Economy	27
	- International Trade	23
	- International Investment	39
	- Employment	17
	- Price	27
Government Efficiency	- Public Finance	28
	- Fiscal Policy	33
	- Institutional Framework	9
	- Business Framework	4
	- Education	13
Business Efficiency	- Productivity	15
	- Labor Markets	4
	- Financial Markets	21
	- Management Practices	12
	- Impact of Globalization	12
Infra structure	- Basic Infrastructure	11
	-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18
	- Scientific Infrastructure	15
	- Health and Environment	1
	- Value System	13

자료원 :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49. 도량형

도량형

-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무게에는 Kg 및 Gramm을 사용하는데 10 Gramm을 1 Deca(데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유용한 현지어 참조). 일반적으로 1kg 이하의 물건을 사면서 무게를 표시할 경우 Dek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쏘세지, 치즈 등을 구매할 때).
- 폰트(Pfund)는 500 Gramm을 뜻한다.

전기규격

- 50 Herz, 220 Volt
- 한국에서 사용되는 200 Volt / 60 Herz 용 제품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원 : 비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50. 관공서 관행

대민업무 시간

대민업무의 경우 대개 평일(월 - 금) 오전 8시에서 오후 12 - 13시 정도까지 업무를 보며, 목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대민업무를 보는 관공서도 많다. 부서마다 대민 업무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전화로 업무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전화문의

전화 문의에 친절히 응하는 편이지만 영어로 대화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를 하기 전 정확한 업무용건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처리 원칙 및 소요기간

일처리는 원칙을 고집하여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오스트리아인 들 자신들도 오스트리아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매우 늦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면 대기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부서에 가면 번호표가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번호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관공서방문시 유의 사항

외국인육체근로자(항목 국민 참조)들에 대해 관공서 직원들이 고자세이므로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벡타이와 양복을 착용하여 외국인 육체근로자와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2005. 3).

51.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비인 국제공항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Flughafen Wien AG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Handling Services
P. O. Box 1
A-1300 Vienna Airport, Austria
Phone: ++43/1/7007-22038
Fax: ++43/1/7007-25733
E-mail: v@viennaairport.com

-

잘츠부어그 국제공항 (Salzburg International Airport)

각종 주요부서 연락처

사장단 : 00423 8580-100 8580-110

간부단 : 0043 8580-451/ 8580-458

안 내 : 8580-7911 8580-7909

Salzburg Airport Services: 승객이동 8580-251 8580-260

국제항구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바다에 인접한 항구는 없으며 Wien과 Linz에 다뉴브 강의 항구가 있음.(Rhein-Main-Donau운하를 통하여 독일과 연결됨)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52. 매스미디어

<매스컴 현황>

o 라디오 방송

- 전국적인 방송채널로는 0e 1, 0e 3 그리고 Blue Danube Radio 가 있음.
- 이외에 지역별로 지역방송국(0e 2)이 있음. 주파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1998년 4월부터 민영방송이 허가되어 약 40여개의 지역 라디오방송이 생겨 난 바 있음.
- 라디오 방송별 주파수 및 특성

라디오방송	주요방송내용	주파수(비인의 경우)
국 영 방 송		
0e 1	클래식음악 및 뉴스	92.05 MHz
Radio Wien(0e 2)	팝송 및 지역정보	98.95 MHz
0e 3	팝송 및 생활정보	99.95 MHz
ORF Music Review	국영TV방송안내 및 팝송	97.95 MHz
Blue Danube Radio	영어뉴스, 팝송	103.85 MHz
민 영 방 송		
88.6	팝송 및 교통정보, 간단한 뉴스	88.65 MHz
RTL	팝송 및 교통정보, 간단한 뉴스	92.95 MHz
Antennen	팝송 및 교통정보, 간단한 뉴스	102.55 MHz
Radio Energy	팝송 및 교통정보, 간단한 뉴스	104.25 MHz
Radio RPN	팝송 및 교통정보, 간단한 뉴스	105.85 MHz

- 라디오 뉴스 중 정평이 있는 것은 0e 1의 1시간동안 방송되는 12시 및 18시 뉴스이며 0e 3와 Blue Danube Radio에서는 매 정시마다 5 - 10분간의 짤막한 뉴스가 있음. Blue Danube Radio에서도 매시간 짤막한 영어뉴스가 있는데 영어뉴스 이후 불어뉴스도 방송함.

o 일반 TV

ORF1, ORF2의 2개의 국영 채널이 있으며, 뚜렷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없음.

뉴스 시간 : ORF1 09:00, 13:00, 17:00, 19:30,

ORF2 19:30 (ORF1와 동일), 22:00 (심층분석, 해설위주), 24:00 (주요뉴스 분석)

o 유선TV방송

유럽각국의 공영, 민영방송 및 CNN등 약 30여개의 채널시청 가능.

o 일간지

2005년 3월 현재 17종의 일간지가 있음. 영향력 있는 일간지는 Die Presse, Der Standard, Kurier 등이며 발행부수가 많은 대중지 Neue Krone Zeitung 및 Taeglich Alles는 가십(Gossip)기사 위주의 황색저널지로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못함.

유력 전국지

신 문	발행부수	성향	주요독자층
Die Presse	30만	보수	재계, 카톨릭계
Der Standard	35만부	중립, 자유주의적	인텔리 계층
Kurier	80만부	보수중립	폭 넓은 독자층 대중지적 성격강함
Neue Kronen Zeitung	280만부	극우, 보수	가십기사 위주 황색저널
Taeglich Alles	80만부	국수주의적	저학력, 중산층 이하 Gossip기사 위주 황색저널

o 주간지 및 월간지 : 2004년 3월 현재 약 160종의 주간지 및 월간지가 존재함.

유력 주간지 및 월간지

주간지	성격	성향	주요독자층
Profil	시사주간지	중립, 정치시사 위주	인텔리계층
Format	시사주간지	보수, 정치, 경제보도	폭 넓은 독자
News	시사주간지	중립, 정치	Gossip 보도 폭 넓은 독자층
Trend	월간지	보수	중산층 이상
Gewinn	경제전문 월간지	보수	중산층 이상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53. 주한 주재국기관

o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913호

전화 : 732-9071/2

팩스 : 732-9486

o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914호

전화 : 732-6649, 732-7330

팩스 : 732-4337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54. 물가정보

도시명 : 비엔나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게	12.7	1인분
식 품 기호품	햄버거	3.2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4.1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460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845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2,3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9,967	한국산, 오토, 에어컨
교 통 차 량	시내버스 요금	1.85	1구간(구간 무제한)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2.8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0.3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185	시내, 3분

통 신 전 기	국제전화(할인)	1.6	현지-서울, 3분
통 신 전 기	전기요금	0.172	가정용, 1Kwh
통 신 전 기	인터넷 사용료	70.(ADSL)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3,120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12,15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69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저.오락	영화 관람료	10.7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61.5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246(조식포함)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123(조식 포함)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1,859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	3,075	대졸, 초임

자료원 : 세계주요도시물가조사 2004년판

55. 경제발전사

<국가경제 재건: 1945 - 1954>

1938년 나치독일에 강제 합병되었던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 제3제국의 일부로서 독일의 경제의 한 부분을 형성했었다. 이에 따라 1945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을 때 독립적인 국가경제를 재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편 연합국 측, 특히 소련에서는 전쟁배상금 명목으로 독일정부소유로 되어 있던 오스트리아 소재 기업들 (대부분 유대인들로부터 나치정부가 몰수한 기업들)의 설비를 분해하여 소련으로 수송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공업 설비들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사민당에서는 소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군소 정당인 오스트리아 공산당을 포함시킨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1947년 독일정부 소유로 되어있던 기업들을 전면 국유화해버렸다. 이 국유화조치는 당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우익계의 국민당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국유화의 목적은 첫째, 전쟁배상금 명목으로 오스트리아 기업이 소련에 몰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둘째, 당시 오스트리아 내에 축적된 대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민영화시킬 경우 결국은 국제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 국유화된 기업들은 대개 기간산업분야의 기업들이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 재건에 나섰다.

당시 미국에서는 전후 피폐한 유럽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경제원조정책인 마셜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국가경제재건의 두 기둥은 국유화된 기간산업과 마셜플랜에 의한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국가 경제기반 재건에 성공하였다.

<경제 도약기: 1955 - 1969>

1955년은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군들이 철수를 완료하여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해인데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국민경제도 새로운 장을 맞게 된다. 즉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미 다져진 국가경제기반을 토대로 오스트리아 특유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특유의 경제정책이란 기간산업의 중추인 국영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 또는 반자재를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로 공급하는 것이다. 1960년에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가입하면서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다.

노사안정의 확고한 틀도 이시기에 마련되었다. 1957년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였던 라압(Raab, 국민당소속)과 노총회장이었던 뵘(Boem, 국회 부의장 겸직, 사민당 소속)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동 노사정협의체는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1962년 사회동반자제도 (Sozial Partnerschaft)라는 명칭의 상설기관으로 정착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파업율이 항상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노사안정과 상술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근간으로 삼으면서 오스트리아는 대외지향적(outward)인 경제개발계획, 즉 수출산업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에 임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 형성기: 1970 - 1982>

60년대 말부터 오스트리아의 경제성장세는 다소 주춤하게 되었으며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오스트리아의 고도성장시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국민들 사이에는 그간 이루어온 고도성장의 열매를 나눌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1970년 크라이스키(Kriesky)씨가 이끄는 사민당이 국회의석 과반수 획득하면서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양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질적인 경제성장, 특히 완전고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데 있다. 크라이스키 집권기인 12년간은 통칭 "크라이스키"시대라 불리우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과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오스트리아의 크라이스키 총리, 독일 총리인 브란트 그리고 스웨덴의 팔메 총리는 유럽 사민주의운동의 트로이카시대 개막하면서 유럽 사민주의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1980년대>

그동안 오스트리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국영 기업들이 7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적자를 보게 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수 차례에 걸쳐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렇다할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결정되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한 소유주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상술한 오스트리아 특유의 경제구조, 즉 국영기업이 저렴한 원/반자재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특유의 경제구조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들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확고한 기술적 노우하우를 획득하여 이미 자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향후 전개될 국제경쟁시대에서 오스트리아 경제가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EU가입을 결정하고 80년대 말부터 EU와 협상에 들어간다.

<국제 경쟁시대: 1990년대 - 현재>

EU가입이 확실시되면서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향후 전개될 EU역내 경쟁에 대비하여 경영합리화 작업에 들어간다. 오스트리아 재계에서는 전체 기업의 약 10%가 EU가입 및 유로화 도입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5년 1월1일부 EU가입이후 독일계 대형유통업체의 오스트리아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규모 수입상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비시장에서는 가격양극화 양상이 진행되었다. 저가제품시장의 경우 중국을 필두로 한 저임금국가의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고가제품시장은 선진국의 유명브랜드가 시장을 석권한 반면 중간수준의 가격 및 품질의 시장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중간 수준인 한국상품의 오스트리아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료원 : Wirtschaftsgeschichte Oesterreichs(2005년 3월).

56. 경제정책

경제정책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온 국영 기업들이 최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경영난 등이 겹쳐 근자에 들어 민영화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인프라스트럭처 재정비, 경제활동 규제해소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의 오스트리아 본사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법원소송절차 간소화, 최고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국제경쟁력 강화

재산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수출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연방상공회의소와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통한 투자 활성화 등 직접지원의 주체는 항상 법률적으로 순수 민간 단체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가 담당하므로 WTO나 여타 국가로부터 불공정거래라는 비난을 면하고 있다.

2. 인프라스트럭처(Infra Structure) 확충 정책

인프라 확충계획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수도 비인과 팔츠부르크를 잇는 서부간선철도의 수선 및 확충 프로젝트, 오스트리아와 이태리 국경의 산악지대에 터널을 뚫어 철도를 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 등에 2002년 말까지 Euro 약 65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동구권과의 교통량 증대에 대응한 도로확충 프로젝트, 수도 비인의 지하철망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3. 재정적자 해소정책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1980년도에 당해년도 국내 총생산 규모의 약 26.3%에 해당하는 누적된 국가부채가 있었던 것이 13년 후인 1993년도에 당해년도 국내총생산규모의 50% 선을 초과하여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등장하였다. 2002년도 누적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58% 수준. (긴축예산 집행)

오스트리아 정부는 1996년부터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동 초긴축 예산안 실행으로 다소간의 소비위축이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책

2000년 2월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매우 강력한 재정적자 해소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민세학적 국민구조의 노령화로 재정적자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개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01년 균형재정을 이룩하였음. 2005년 초 현재, 긴축정책 계속 추진 중.

5.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가. 단순투자유치가 아닌, 본사 유치를 목적으로 한 법안 발표

다국적 기업이 오스트리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업종에 무관하게 그 손실을 오스트리아 본사의 세금정산시 100% 반영해줌. 단 본사가 자회사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2005년부터 실시)

나. 법원소송절차 간소화

기존의 법원소송진행이 1개월만 빨라진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7천만 유로의 부담을 덜게 된다. 비엔나 상사재판소는 1년에 약 5천 건의 상사관련 법정소송과 4천 건의 상사파산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상사관련 법정소송처리 소요시간은 65%가 1년 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20%는 1년에서 2년, 7%가 2년에서 3년, 8%는 3년 이상이다. 모든 소송을 가능한 한 1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다. 법인세 인하

오스트리아 정부는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함으로 그에 따르는 외국기업의 오스트리아 내 투자효과를 기대하고있다. 독일의 법인세는 25%(기업의 실조세 부담율은 38.2%)이며 최고소득세율은 51.17%, 오스트리아의 최고소득세율은 50%이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5년 5월).

57. 금융통화제도

<금융시장 개황>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은 1995년1월1일부 오스트리아의 EU가입과 함께 완전히 개방되었다. 소규모 은행들과 신용금고가 다수 존재하지만 향후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어 대규모 금융기관들만이 존재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외국자본의 급격한 진출은 없으나 독일계 대형 은행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정부 및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금융산업을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은행들은 동구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에는 총 968 개의 금융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지점 수는 약 5,500개소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의 국립은행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Oe.N.B.)>

- 1955년 연방법에 의해 발권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통화 안정유지를 주 업무로 한다.
- 오스트리아 특유의 사회동반자제도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노총(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사),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정)가 국립은행(Oe.N.B.)의 주식을 배분하여 소유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의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특별한 영향력 행사는 없음.
- 1995년: 오스트리아 노총은 노총계 유통업체 KONSUM의 부도 위기 해결책으로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반관반민의 중앙은행)의 소유지분 8%를 우체국 은행(국영)에 매각함으로써 말미암아 노총의 국립은행 소유지분이 12.5%로 감소함.
- Euro화폐동맹 참가로 발권력이 1999년 유럽중앙은행으로 이관 되어 현재는 큰 실권이 없음.

<은행제도>

- 일반 민영은행은 최소 Euro 512만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음.
- 연간 회계규모 US\$ 200억 이상의 은행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은행(Bank Austria), 노총계 은행인 BABWAG, 오스트리아 농협계 은행인 Reiffeisen, 오스트리아 은행 계열사인 Giro Credit 그리고 연방정부 소유의 체신은행(P.S.K.)이 있으며, 중소기업부문의 조합은행으로는 Volksbank등이 있음.

<기타신용기관>

- 각 주별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당은행(Landeshypothekenbank)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용금고(Sparkasse)도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금고들은 72개사에 이르며 이들은 1,50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 체신청의 Oesterreichische Postsparkasse는 우체국 은행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있는 2,300개소의 우체국이 은행창구의 역할을 함.

<증권시장>

- 비엔나 증권거래소는 177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치하에서 중부/동부유럽의 재정거래의 중심으로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 1980년대 중반 증권 거래 부흥기를 맞아 증시가 활황을 보인바 있는데 60개 회사의 신규상장, 거래방식의 현대화 등 증권시장의 질과 유동성 양면에서 활황을 보였음.

- 증권(주식과 채권)은 재무부의 허가 없이 비엔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음.
- 이는 비엔나 증권거래협회의 신청으로 루어진 조치임. 구비서류로는 회사설립명서(prospectus)가 있는데, 이는 보통 은행과 거래하는데 있어서 준비되는 서류로서 회사의 허위 설립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04년도 기준으로 총 160여개 오스트리아 기업과 50여개 외국합작 기업이 비엔나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으며 총 시장규모는 Euro 400억 정도임.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발행의 약 3,700 여 고정이자 조건부 채권이 이 증시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도 한데 총 거래 규모는 약 Euro 730억 정도임.

<국영 및 시영은행 민영화정책>

- 90년대에 들어 국영 및 시영은행의 민영화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 비인 주정부가 대주주인 오스트리아 은행(Bank Austria)은 1997년1월 민영화된 Credit Anstalt은행을 ATS 12.4억에 인수 합병하여 오스트리아 최대규모의 은행으로 부상하였음. 오스트리아 은행의 대주주인 비인 주정부는 2006년까지 오스트리아 은행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할 방침임. <가명, 익명, 차명구좌 가능>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선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저축예금과 증권구좌의 익명구좌가 허용되고 있다.
-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과 EU가입 추진 등으로 실명제 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민의 전통적인 저축관행이 되어온 익명 구좌의 실명제 전환에 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폐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 94년 10월부터는 Euro 9,000 이상 금액의 예금 또는 인출시 실명 요구.
- 외환거래상의 규제는 없으며 Euro 14,500 이상의 거래의 경우 실명 및 거래내역을 거래은행에 신고 하여야 함.
- Euro 3만5천 이상의 외환거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에 자동적으로 보고됨.

<금화>

- 오스트리아 동전 주조청의 금화는 세계적 히트상품. 1995년 전년대비 금화 매출 154% 신장. 2001년 금화 매출액 Euro 4억. 세계적 인기제품은 비엔나필하모닉 금화임.

<보험업>

- 보험부문에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있는 보험회사가 있으며, 이들 사회보험회사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함.
- 이밖에 사 보험회사로는 2001년 말 기준, 60개의 오스트리아 보험회사와 13개의 외국 보험회사 지사가 있음.
- 국민의료보험 적자가 누적되어 연방정부는 사회동반자제도에 국민의료보험 개선책을 의뢰하였으나 사회동반자회의에서 개선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방정부에서 단독적인 방안을 강구 중.
- 오스트리아의 사회연금보험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칭찬 받아 왔으나, 민세학적 국민연령구조 측면에서 볼 때 유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5년 6월).

58.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산업구조의 특징>

나치독일의 오스트리아 강점 당시 상당수의 유태계 기업이 몰수되어 친나치 기업인에게 증여되거나 국유화되었는데 나치독일 패망 후 친나치 기업인들도 철수하여 대전 직후 오스트리아에는 약 5000여개의 주인 없는 기업이 있었다고 한다.

대전직후 구성된 사회당/국민당 임시정부는 소련이 전쟁배상금 명목으로 나치독일계 기업시설을 몰수할 것임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치독일계 대기업을 전격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국유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 현재에도 국영기업이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90년대 초반부터 국영기업이 민영화정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기계공업 및 첨단산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스트리아 산업구조는 국영기업이 기간산업분야를 선도하면서 원료 및 반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국가가 경제적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민영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 국가체제의 중핵인 사회동반자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대기업과 국영기업)

국영기업은 이제까지 고용정책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 비대한 경영구조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실책의 누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정치 문제로 되었다. 80년대 말부터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재편성과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2000년 중반 현재 오스트리아의 국영기업은 "오스트리아 산업 관리주식회사"(OeIAG)를 모기업으로 하는 Holding 형태의 국영기업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열사들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국영기업 그룹 이외의 대기업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호되는 기업의 법적 형태)

국영 및 민영 대기업은 주식회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이 까다로운 점과 전통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한국과는 달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법인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산업의 특징)

소비재 산업 보다는 투자재 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수입의 약 50%가 소비재이다. (한국은 약 10-15%) 특히 기계공업과 설비산업, 환경산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외에 광학기기, 유리산업 등이 유명하다.

<1차산업>

1차 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1950년대에는 15%에 까지 이르렀으나, 60년대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대에는 3% 이하로 하락하였다. 1995년 1월1일부 EU 가입에 따른 EU산 저가농산물의 오스트리아 시장진출로 향후 농가수 및 농임업의 GDP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농임업이 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불과 2.1%에 불과하며,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 어업분야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2차산업>

광업의 경우 70년대까지는 GDP 기여도가 약 5%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86년도에 0.7%, '90년도에 0.6%, '96년도에 0.4%로 집계 되었다. 제조업의 비중도 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0년대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약 20% 수준이다. 건설업 및 에너지 수급산업의 GDP기여도는 각각 약 7%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조업부문 개황>

제조업은 전후 오스트리아 경제복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60년대 및 70년대 고도성장 시기 경제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제조업 부문 고용인원은 90년대에 들어 감소 추세가 시작되었으며, 전체 고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인구 밀집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비인과 인근의 Wiener Neustadt, Leoben과 Graz지역, Linz지역, 그리고 서부의 Innsbruck, Kufstein지역과 Vorarlberg주등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중화학 공업)

동부지역에는 주로 기계공업, 화학공업 및 전기 전자제품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부지역은 주로 섬유 및 유리공업이 발달해 왔다.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등 중화학공업 분야에는 국영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영 철강회사인 Voest-Alpine는 현재 세계 제철공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산소전로공법의 창시자이며 최근 포항제철이 도입한 첨단 전기로공법인 Corex공법도 동회사 작품이다. 자체 자동차 브랜드는 전륜 구동자동차 소규모 생산업체인 슈타이어-다이믈러-폭흐(Steyer-Daimler-Puch)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벤츠(Benz), BMW, 크라이슬러사등 세계 유수 회사에 엔진, 구동시스템 등을 비롯한 주요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경공업)

과거 오스트리아의 수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섬유산업은 동구개방과 함께 EU-동구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여러 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양산업화되고 있다.

<3차산업>

3차 산업의 경우는 80년대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90년대에 들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GDP의 69.3%를 차지하였다. 오스트리아 재계에서는 3차산업 중 특히 금융분야가 미래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동구권 진출의 경우 오스트리아 금융계의 현지 투자가 활발하다.

<최근동향 및 전망>

- 2000년도에는 서유럽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산업의 호조로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 2001년도는 서유럽, 특히 독일경기의 영향으로 저조한 신장세를 보였다.
- 2002년도 1.2% 경제성장.
- 2003년도 1.2% 경제성장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7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차산업	4.9	2.3	2.2	2.1	1.9	2.1	2.0	2.1
- 농.임업	4.9	1.4	1.4	2.1	1.9	2.1	2.0	2.1
2차산업	37.0	30.4	31.0	29.5	29.1	29.2	28.7	28.7
- 광업	1.3	0.4	0.3	0.3	0.3	0.3	0.3	0.3
- 제조업	25.6	19.8	20.4	19.0	18.7	19.4	19.5	19.3
- 에너지 및 수자원 수급	2.9	2.8	2.8	2.5	2.3	2.7	2.0	2.0
- 건설업	7.2	7.4	7.5	7.7	7.8	6.8	6.9	6.9
3차산업	58.1	67.3	66.8	68.4	69.0	68.7	69.3	63.3
- 유통	14.5	13.3	13.1	12.0	11.9	11.9	11.9	11.5
- 숙박/요식업	4.1	3.8	3.9	3.7	3.7	3.4	4.0	4.1
- 교통, 통신	5.8	6.4	6.2	6.8	6.6	6.9	6.6	6.8
- 금융/보험업	5.1	7.3	7.6	6.4	5.9	6.4	6.2	6.1
- 부동산/재산신탁 등	6.3	13.3	13.7	14.4	14.6	14.4	15.9	16.2
- 기타 서비스업	3.5	12.8	12.7	12.9	12.8	13.1	12.9	13.3
- 기타	18.8	10.4	9.6	12.2	13.5	12.6	11.8	5.4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59. 주요산업동향/광업

<개요>

텅스텐, 철광, 갈탄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암염과 석회, 마그네사이트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채굴지는 오스트리아를 동서로 길게 관통하고있는 알프스산맥 지역이다. 동구권 개방이후, CIS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과의 가격경쟁 열세로 철광의 경우 국내수요를 위해서만 채광할 뿐이며, 많은 광산들이 휴광 상태이다. 시멘트산업도 발달하였는데 특수시멘트의 일종인 내화시멘트 생산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광업부문 현황 및 특성>

갈탄 채굴 업체는 1970년에 15개에 이르렀으나 채산성문제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1년 말 현재 2개업체에 불과하며 피고용인 수는 약 400명이다. 갈탄생산량은 약 90만톤이었다. 철편을 채굴하는 업체는 2001년 말 현재 1개뿐이며 약 2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연간 채굴량은 120만 톤(Ton)으로 1970년 399만 톤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회석/대리석채굴은 광업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1995년 135개 업체가 석회석 및 대리석을 채취하였던 반면, 2001년 말에는 100개 업체가 이 부문에 종사하면서 1천680명을 고용하고 있다. 채굴량은 250만톤이었다. 석회석과 대리석은 건자재용으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내화제품 생산에 주로 쓰이는데 1980년부터 6개 업체가 존재하여왔으며 2001년 말 현재 약 1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채굴량은 약 80만톤이었다.

알프스지역이 주라기에는 해저에 있었던 관계로 암염도 생산되는데 서북부 지역의 산간지역에서 채굴되며 4개의 업체가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01년 생산량은 200만톤을 채굴하였다. 이 암염에서 소금을 채취한다. 암염은 석회석/대리석 그리고 마그네사이트와 함께 오스트리아 광업계에서 채산성이 높은 광물에 속한다.

<시멘트제조업 현황 및 특성>

일반시멘트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 2001년에는 9개 업체가 약1,2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업체 숫자나 종업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총 생산량은 400만 톤이었는데 대부분 국내수요로 충당되었으며 수출은 미미한 편이었다. 수입량은 무려 150만톤인데 주로 독일을 비롯한 EU권 국가 및 동구권 국가로부터의 수입이었다.

오스트리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수시멘트인 내화시멘트 및 내화벽돌 등 내화제품들이다. 내화시멘트의 경우 세계시장의 약 16%를 점유하여 점유율 1위에 있다. 주목할 만한 회사는 세계 내화제품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오스트리아 파이취-라덱스-디들어(Veitsch-Radex Didier)사이다. 동사는 세계 최대 내화제품 생산업체로 세계시장의 9%를 석권하고 있다.

<진출방안>

상술한 암염,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업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사양화되고 있으며 저가의 동유럽제품 때문에 광업상품 진출은 쉽지 않다. 시멘트는 다소 가능성이 있는 편 인데 역시 저가의 동유럽 제품에 시달리고 있다. 시멘트는 향후 가격조건에 따라 시장확보가 결정될 것이다. 내화제품에 관련한 기술협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협력 유망분야 - 내화시멘트제품>

파이취-라덱스-디들러사의 주력제품은 내화시멘트를 비롯한 공업설비용 내화건자재로서 용광로의 외벽이나 기타 내화를 필요로 하는 설비물 외장에 사용되는데 세계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동사는 내화성건자재 개발에 전력투구하면서 일찍부터 세계화경영에 착수하여 독일과 미국에 연구소를 건립하였으며 현지 회사들과 연결하여 판매망 구축에 노력, 성공한 케이스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지역별로 서유럽 41%, 북미 29%, 태평양 아시아 12%, 아프리카 및 중서아시아 6%, 동유럽 및 러시아 6%, 남미 5%로 분포되어 있다. 유럽을 비롯한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30개 이상의 생산기지과 세계 시장의 고객을 위한 범세계적인 서비스 및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고온 기술분야의 엔지니어링은 물론 설비설치 및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고객접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 내화연구소를 보유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 꾸준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자체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와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사 제품은 최초로 EN ISO 9001, 9002 표준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여 한국의 내화제품회사인 P사 그리고 일본의 S사와 접촉하였으나 경영권소유문제 때문에 실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향후 기술협력을 해볼 만한 업체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2005년3월).

60.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관광업 현황 및 특성>**

오스트리아는 스키관광, 산악관광, 호수관광, 도시관광 등으로 사시사철 관광이슈가 있으며, 관광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5 - 6%를 차지하고 있음. 동 수치는 EU역내는 물론 OECD 역내 최고 수치이다.

◎ 계절별 관광 이슈

오스트리아에는 88개의 대형호수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호수 관광으로 유명함. 독일 콜 총리는 30년째 매년 여름휴가를 오스트리아에서 보내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서 산악관광이 예로부터 발달하여왔으며 겨울 스키시즌에는 영국, 덴마크왕실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관광을 즐긴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화를 비교적 덜 입은 관계로 비엔나, 잘츠부르크, 린츠 등의 도시들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도시관광도 각광받고 있다.

◎ 관광업계

숙박업 및 요식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4.2%(2000년 기준)에 해당된다. 2000년 중반 기준으로 46,000개의 숙박업소와 약 3만개의 민박가정 등, 총 약 7만6천여 개의 숙박업소가 존재하며 총 베드수는 약 1천1백만개이다. 관광업이 가장 잘 발달된 지역은 Tirol주이며, 그 다음으로 Salzburg, Kaernten주의 순서이다.

◎ 관광수입

최근 몇 년간 관광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관광 추세가 산악 및 도시 관광에서 해수욕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항공여비의 가격하락으로 유럽 이외의 국가 관광이 점차 선호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관광업은 오스트리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무역수지적자의 대부분을 상쇄시켜 줌으로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92년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경상수지가 매우 악화 되었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 관광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1998년부터 관광수입이 다시 성장세로 반전되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관광수입 추이 (Euro 억)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관광수입	147	147	113	117	121	170	179
관광지출	117	124	92	93	96	139	138
순 관광수입	30	25	21	24	25	31	41

자료원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Statistisch Uebersicht 2005.1/3, 98년부터 통계 방식 변경

◎ 관광정책 및 경기

오스트리아 정부와 관광업계는 관광객 유치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업이 계속 부진할 경우 오스트리아는 만성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 관광협회는 97년9월 내부용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통해 9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관광업계의 불황이 일차적으로는 유럽인들의 기호변화에 기인하지만 이차적으로는 투자미비와 일부 관광업 종사자들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교통업 현황 및 특성>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전차 그리고 지하철은 모두 해당 지방정부 소유이며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수지역에 한해 오스트리아 철도청과 체신청등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가 있으나 기차가 더 많이 이용된다. 2000년 기준 철도는 총 연장 6,300 km 이며 이중 5,600 km 가 국철인 ÖBB에 의하여 운영 되어진다. 철도는 국내 및 유럽 각국은 물론 동유럽지역과도 연결되어 있다.

항공업은 3개의 민영항공사가 존재하는데, 오스트리아항공(AUA)은 국영이었다가 1997년에 민영화된 기업이며 라우다항공(Lauda Air)는 Formula 1 자동차 경주 세계챔피언이었던 라우다가 설립한 항공사로 독일 루프트한자가 대주주이다. 국제선의 경우 유럽 주요도시(동구포함)의 경우 매일 수 차례 운행되고 있다. 역시 민영인 티롤리언에어(Tirolian Air)는 주로 국내선을 운영한다.

오스트리아 도로망은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력수송의 80%, 화물운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도시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접국가의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된다.

<진출방안>

오스트리아의 교통업이나 관광업에 진출하기는 힘들다. 대신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축적된 노하우 및 Financing 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업 노하우 이전 및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의 무주리조트 사업에 오스트리아 기업이 참가한 사례가 있다.

자료원 : ABA 자료 종합(2005년3월).

61. 주요산업동향/금융업

아래수치는 2005년도 오스트리아 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현황>

채신청의 Oesterreichische Postsparkasse는 국영은행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있는 약 2,300개소의 우체국이 은행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2001년 말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에는 총 950 개의 금융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지점수는 총 5,500개소에 이른다.

◎ 은행 및 신용금고

대형은행은 63개이며 이들은 총 810 개소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주별로 저당은행(Landeshypothekenbank)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용금고(Sparkasse)도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농업부문의 조합은행으로 Raiffeisenkasse가 있으며, 중소기업부문의 조합은행으로는 Volksbank등이 있다.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금고들은 70개사에 이르며 이들은 약 1,400 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보험업

보험부문에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있는 사회보험회사가 있으며, 이들 사회보험회사는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한다. 이 밖에 사 보험회사로는 2001년 말 기준, 50개의 오스트리아 보험회사와 12개의 외국 보험회사 지사가 있다.

국민의료보험 적자가 누적되어 연방정부는 사회동반자제도에 국민의료보험 개선책을 의뢰하였으나 사회동반자회의에서 개선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방정부에서 단독적인 방안을 강구 중 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사회연금보험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칭찬 받아 왔으나 민세학적 국민연령구조 측면에서 볼 때 유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성>

오스트리아 정부 및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금융산업을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다.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은 개방 이전부터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오스트리아 은행은 오스트리아 은행(Bank Austria, 민영)의 자회사인 CA은행 산하 CA International, 농협계 은행인 RZB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일은행(Erste Bank) 등 3개 은행이다.

2000년 말 기준으로, 동 3개 은행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치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총 50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점들의 2000년도 회계액수 합산금액은 약 120억 Euro를 초과하였다. 특히 동유럽 CA International의 경우 2000년도 회계액수가 62억 Euro에 달해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 중 회계액수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진출방안>

역사적 지리적으로 동유럽에 가까운 오스트리아는 동유럽 금융시장에 관한 엄청난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있다. 향후 한국금융업계에서 동유럽권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오스트리아은행과 합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일간지 보도 종합(2005년3월).

62.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개황>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임으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국토면적의 약 17%가 경작지이며, 25% 정도를 목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 제지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농업 및 축산업 현황 및 특성>

2001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용에 기여하는 비율도 3%에 미치지 못하였다. 2001년 말 기준 약 20만호의 농축산업 가옥이 있는데, 이중 약 9만호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이며 나머지는 부업 삼아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전체 농가의 약 52.6%가 호당 경지면적 1~ 10 ha의 소규모 농가이며, 100ha 이상의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는 2.6%에 지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과일을 제외한 여타 농산물을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일부 잉여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경작지역은 알프스 북부지역과 도나우강 유역 그리고 동부의 평야지역으로 곡물, 과수원, 포도밭과 목축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산간지역은 주로 목축과 임업이 행해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 EU가입 이전 오스트리아 농산물시장은 높은 보호무역장벽에 쌓여있었으며 많은 오스트리아 농산물, 특히 밀 등의 곡식은 국제경쟁력이 없었다. EU가입 이후 EU권 저가 농산물의 유입에 따른 오스트리아 농가의 소득감소가 확실시되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오스트리아 농가들을 EU권에 적응시킨다는 목표 아래 2001년도 말까지 농가별로 수입감소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농업부문은 EU권 저가농산물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의 국내 및 국제시장 마케팅기법>

90년대에 들어 오스트리아의 EU가입과 그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예상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각도로 농축산업계 자구책을 연구해왔으며, EU가입을 2년 앞둔 1993년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마케팅회사(Agramarket Marketing Austria, 이하 AMA)를 농림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시장에서 EU권 국가들의 저가 농산물 침투 저지는 물론 EU권에 대한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수출정책 추진기관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AMA의 주요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업무는 오스트리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선전이며 둘째는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품질보증 마크인 AMA마크(AMA Zeichen)제도를 도입하여 오스트리아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이미지 선전의 경우, AMA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오스트리아 농가가 소규모라는 점에 착안(오스트리아의 총 25만호 농가 중 56%가 1-10헥타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며 100 헥타 이상의 대농은 2.6%에 불과함) 대규모 낙농업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즉,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은 바겐세일이 난무하는 대규모 디스카운트?의 무명제품이 아니라 소규모 고급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유명브랜드 제품과 같다는 이미지 선전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광우병 및 살모넬레병이 대규모 낙농업의 병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선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농산물품질마크(AMA Zeichen, 이하 AMA마크) 제도를 도입하였다.

AMA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농산물이 오스트리아에서 생산 되었다는 증명이외에 AMA에서 설정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MA마크 이외에 무공해농산물 마크(Bio-Kontrollzeichen)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무공해농산물 생산농가로 등록된 농가에는 수시로 검사관이 파견되어 AMA가 제정한 무공해농산물 제배 과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AMA의 홍보전략은 EU권 시장공략에도 효과를 나타내어 EU가입 이전 거의 전무 상태이던 오스트리아 농축산물의 대 EU 수출이 신장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일지역에 대한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홍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지역의 경우 AMA는 독일인들이 오스트리아를 관광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알프스 산맥의 자연환경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는 고급식품전문점!"(Feinkost-Laden AUSTRIA!)이라는 표어를 만들어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이미지 선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와 비슷하게 소규모 농가가 많은 아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자국농축산물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농정당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임업특성>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46%로 386만 ha에 이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6위의 침엽수 목재 수출국으로서 대부분(85%)이 EU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산림보호는 지방정부, 임업자협의회 및 수렵단체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임업자협의회와 수렵단체의 조언을 얻어 산림보호관련 지방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수렵단체가 산림보호에 관련하는 이유는 산림과 사냥 대상인 동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슴, 노루, 산돼지들이 너무 많이 번식한 경우에 신생 나무들이 피해를 입어 숲의 성장이 저해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면 나무순이나 껍질을 먹어서 나무에 피해를 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단체회원들과 임업자들이 공동으로 겨울철에 동물사료를 준다. 그 해에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는 수렵단체에서 임업자들의 조언을 얻어 자율적으로 조종한다.

<제지업 현황>

오스트리아는 세계6위의 종이/판지 수출국으로서 세계종이시장의 약 4%를 점유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제지업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제지업체는 약 100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실제 수출에 종사하는 대규모 업체는 30여 개에 불과하다. 피고용인은 약 1만5천명이며 생산액은 44억2천만 Euro를 기록하였으며 총생산의 약 75%를 수출하고 있다.

<제지업분야 주도회사>

주목할 만한 회사는 판지, 판지박스(Box)생산에서 세계정상을 달리고 있는 마이어-멜른호프 판지주식회사(Mayr-Melnhof Karton AG)사이다. 동 사는 18세기 후반, 현 대표감사인 고에스사우라우(Goess-Saurau)의 4대조 외조부가 마련한 회사로서 오스트리아 본사에 약 5,200 명 (1998년 말 기준)의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매년 약 10억 Euro의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999년 1월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판지제조회사 레노 디 메디치(Reno di Medici)를 합병하여 1999년도 매출 및 생산량 면에서 세계판지제조업체 중 2위로 부상하였다. 폐지재생부문에서 세계적 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판지시장 점유율 30% (1998년, 1위), 유럽 포장재 시장점유율 8% (1998년, 1위)를 기록하였다.

<진출방안>

몇 년 전부터 일고 있는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고조로 근자에 들어 농산물시장 진출을 가능케 해줄 여건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제 두부나 녹차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한국산 농산물 진출에 한계가 있다. 상술한 오스트리아 농산물의 국제적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EU권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구사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지분야는 유럽자체내의 생산력 과잉 및 기술우위로 진출이 힘든데 대신 기술제휴나 J/V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술협력유망분야 - 판지/재생지>

판지/재생지 제조회사인 마이어멜른호프사는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권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왔다.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판지, 판지박스, 포장재, 재생종이 부문에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여 유럽시장에 이어 아시아권 시장을 제2주력시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동사의 계획이다. 이러한 장기계획 1차적 단계로서 판지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아시아권 국가 중 한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고 H제지, D제지 등 3개사와 협상하였으나 주식 배분 비율 문제로 실패하였다.

마이어멜른호프사는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한국진출을 희망하였는데, 한국 진출이 성공한 경우 유럽내 계열 공장 중 생산성이 낮은 공장 1개소를 폐쇄하고 한국공장의 생산품을 유럽 및 기타 시장 수출품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 한국 회사들과의 협상 결렬 후,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여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유럽 8개국에 29개의 판지제조회사/포장재제조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41개의 J/V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주시할 만한 회사로 사료된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63. 주요산업동향/석유화학산업**<개요>**

오스트리아에는 서유럽국가 중에는 드물게 산유국이다. 물론 매장량이 그리 큰 것도 아니며 자체 소비량의 약 12% 정도를 충당할 뿐이지만 여기서 터득한 시추기술을 이용해 중동산유국가 및 아시아지역에 진출해 있다. 화학산업은 전통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독일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 산업 현황 및 특성>

2002년 말 기준으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종사하는 업체는 11개이며 약 1,400명의 피고용인을 두고 있다. 2002년 원유 수출량은 약 600만 Euro로 미미한 편이지만 원유가공품(경유, 휘발유 등)의 수출액은 약 3억 Euro로 2000년 총수출액의 약 0.3%를 차지하였다. 원유수입액은 약 65억 Euro 였으며, 30억 Euro 어치의 원유가공품이 수입되었다. 원유 및 원유가공품이 2001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이다. 2001년도에 천연가스의 수출은 없었으며, 5억2천만 Euro 어치의 천연가스가 수입되었다.

현재까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원유의 총 매장량은 3억1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1억7천만톤 정도를 채굴하였다. 현재의 시추방법으로 매년 약 1백만톤을 채굴하여 연간 국내 원유수요의 약12%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수요는 주로 중동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로 충당된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매년 약 15억 평방미터로 전체 국내수요의 20% 정도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러시아산으로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 되어진다.

오스트리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실적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원유(천톤)	965	972	925	817	814	815
천연가스(백만m3)	1,492	1,427	1,014	1,063	1,033	1,012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 현황 및 특성>

화학산업의 경우, 2002년 말 기준으로 약 35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총 피고용인원 숫자는 27,000 여명이었다. 당해년도 총매출액은 약 69억 Euro 였는데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40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화학제품 수입액은 50억 Euro 였는데 주로 독일, 스위스에서 제품이었다.

고무/플라스틱산업의 경우, 2001년 말 기준으로 57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총 피고용인원 숫자는 28,000명이었다. 당해년도 총매출액은 약 40억 Euro 였는데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24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수입액은 약 27억 Euro 였는데 주로 독일, 스위스의 고가제품과 동유럽산의 저가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진출확대방안>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은 그간 저가를 무기로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해 왔으나 동유럽개방 이후 지리적 이점으로 단시일 내 소량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동유럽 제품들에게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가격/수량조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의 특수화학제품의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이 많다.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획득이 관건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협력 유망분야>

◎ 석유시추부문

오스트리아 자체 원유매장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오스트리아 석유시추 및 개발회사인 OMV사는 중동지역과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있다. 석유시추방면에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사와 J/V를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 특수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시공이 간단하고 단가가 싼 반면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 고착제를 사용한 아스팔트 도로 및 활주로는 온도가 매우 낮게 내려 갈 경우 동파(凍破)되고,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연화(軟化)되면서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는 수송차량의 무게에 의해 요철(凹凸)을 일으키게 되어 끊임없는 보수작업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할 방안을 학창시절부터 연구해온 오스트리아인 릭하르트 펠징어(Richard Felsinger)는 대학 졸업 후 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도로포장 전문 건설회사의 연구진에 참여하여 아스팔트 고착제를 활용한 아스팔트의 온도적응성 강화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고 70년대 말 드디어 특수 고착제 개발 및 혼합에 성공하고 이 제품을 노보팔트(Novophalt)라고 명명하였다.

노보팔트의 기술의 장점을 종합해보면 온도변화에 대한 아스팔트의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접착성 및 장력강화이며, 이러한 장점은 결과적으로 도로의 수명연장 및 보수율 극소화로 연결되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도로보수비 절감시켜 도로포장비용의 효용가치를 높여 준다.

릭하르트 펠징어 그룹의 계열사 중 국제기술협력분야는 "R. 펠징어 국제유한회사"(R. Felsinger International GmbH)가 담당하고 있다. 동 회사는 자본금 약 US\$ 1백5십만과 국내 사무직 요원 35명으로 규모상 소기업에 속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굵직한 공사들에 노보팔트 기술이 많이 사용 되었다. 특히 공항 활주도에 대한 공사들이 많은데 큰 공사들만 헤아려 보더라도 휴스턴 국제공항(1989년), 북경 국제공항(1996년), 중국 지방 국제공항 3개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1998년 진행 중)등 이 있다.

펠징어사에 의하면 동사는 한국의 L사와 기술이전 협상을 상당기간 진행해왔으며 1997년도 말, 성사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한국의 외환사태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릭하르트 펠징어 그룹(Richard Felsinger Gruppe)에서 한국에 대해 특수 고착제 제조 및 혼합공법 기술이전 의향을 가지고 적당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일간지 보도 종합(2005년 3월).

64. 주요산업동향/일반기계산업

일반기계산업

<현황>

기계공업 및 첨단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계산업분야 업체의 숫자는 2002년 말 기준으로 약 1,600개이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72,000명이었다. 총 매출액은 100억 Euro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70억 Euro 어치가 수출되었다.

오스트리아 일반기계 및 기계설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EU권 국가들로서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이 16%, 미국이 9%, 아시아권 국가들이 8% 그리고 EFTA 역내 국가들이 6%를 차지하였다.

<특성>

오스트리아가 확고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기계공업을 비롯한 Mid-Tech 분야는 현재는 Mid-Tech분야와 High-Tech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특수용접분야의 전문회사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시도하거나 자동차 전문 구동장치의 컴퓨터제어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IGM사의 경우, 자동차 생산용 용접 및 절단 로봇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진출확대방안>

오스트리아는 기계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상당량의 기계 및 기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반기계류 총 수입량은 2002년 기준으로 약 65억 Euro인데 증가세에 놓여있다. 일반생활용품과는 달리 가격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으며 브랜드명보다는 품질에 따라 진출이 결정되는 기계류 및 기계부속품 분야는 한국상품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진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오스트리아는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소량주문이 많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거래가 성립되고 품질을 인정받게 되면 장기거래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셈치고 거래를 더 보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한 방법이다.

<기술협력유망분야>

상술한 IGM사의 경우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성형사출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ENGEL사도 한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계분야 다방면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향후 기계분야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회사들과 합작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세계 기증기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팔핑어(Palfinger)사도 한국기업과 J/V를 희망하고 있다. 동사는 1932년에 건립된 회사로서 2000년 말 현재, 독일 3개, 슬로베니아 및 캐나다에 각각 1개씩의 현지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 이탈리아 및 프랑스회사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도에 한국시장에서 (주)삼보가 에인트를 맡는 조건으로 진출하였는데, 1997년도까지 매년 500여대의 기증기를 한국시장에 수출하였다. 다른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특수 기증기도 한 대를 주문 받아 제작 공급한 바 있다고하며 한국시장의 약 35%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보사의 부도사태로 한국 보세지역에 묶여 있던 기증기 70대가 공매처분 위기에 놓이자 동 제품들을 오스트리아로 재수송한 바 있다. 기증기 제작에 관련하여 한국회사와 조인트벤처 희망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조인트벤처 회사에서 주요부품을 오스트리아 본사로부터 받아 조립하게 될 것이며 일부 부품은 한국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의 H사와 접촉하였으나 J/V사 주식의 51%를 팔핑어사가 소유하는 조건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한다. 적당한 한국회사 물색에 실패하였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기계산업협회 자료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65.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

<개요>

오스트리아 자동차산업 중 중요한 부문은 완성차의 생산/어셈블링(Assembling)분야보다는 부품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엔진을 비롯한 중요부품을 독일계 자동차회사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생산 산업 현황 및 특성>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생산 댓 수는 2002년말을 기준으로 14만여대로 미미한 편이며,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35,000여명이 250여 개의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생산액은 63억5천만 Euro로서 국내총생산(GDP)에 3%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2002년도의 오스트리아 승용차 생산 수량은 12만 4천대였다. 총 생산 댓 수의 97%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오스트리아산 승용차 중 국내용으로 판매된 승용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 상용차의 경우, 2002년도에 15,000대가 생산되었는데, 이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것이다.

대부분 화물트럭이었으며 버스는 65대(조립생산)에 불과하다. 총 승용차 생산 댓 수의 약 55%가 적재량 12 ton 에서 20 ton의 중대형 화물트럭이었다.

2002년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진출확대방안>

참신한 대중매체광고를 통해 한국의 승용차 회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획득해가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년에 들어 디젤엔진 차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의 한국산 승용차들이 휘발유엔진 차종이어서 선호추세와는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다.

몇 전까지만 해도 디젤엔진은 소음이 많고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공해도 많아 휘발유엔진에 비해 열등한 기술로 인식되었으나 근자에 들어 Peugeot, BMW, Benz 등 유럽 유수의 승용차회사에서 개발한 디젤엔진은 소음도 거의 없고 공해문제도 크게 개선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시장은 미국과는 달리 휘발유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휘발유가격에 1/3에 밖에 되지 않는 디젤이 각광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소형 차종에서뿐만 아니라 중대형 차종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휘발유엔진 차종만으로는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 기술협력을 통한 디젤엔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협력 유망분야>

◎ 디젤엔진

오스트리아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로 막대한 양의 자동차 엔진을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산업의 두 기수는 AVL과 위 승용차생산부문에서 언급된 S.D.P.사인데, 특히AVL사는 엔진 테스트연구소로 출발한 중견기업으로 60년대 중반부터 엔진설계부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SDP사는 원래 승용차 생산회사였는데 제2차세계대전 후 유럽 승용차시장에서 경쟁에 밀려난 후 방산업체로 전환하여 특수차량 제작과 4륜 구동기술 개발에 전념해 왔다. S.D.P.사는 AVL사와 합작하여 엔진생산의 노우하우를 익혀왔는데, 이 결과 독일의 BMW사는 AVL사와 합작으로 엔진 설계를 마친 후 S.D.P.사에 수요량의 상당부분을 하청주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오스트리아에 엔진생산공장을 건립하였다.

Ford 계열사인 독일의 OPEL사 역시 BMW와 같은 방식으로 AVL사와 합작설계를 거쳐 S.D.P.사에 상당한 양의 엔진 생산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스트리아가 고부가 핵심부품인 자동차 엔진의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풀세트(Full Set)방식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에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다.

한편 BMW에서 오스트리아를 엔진생산기지로 선택한 데에는 상기 이유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과 유럽 내에서 가장 파업이 없는 나라라는 이유도 작용하였다고 한다. 2000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약 1억8천만 Euro 어치의 자동차엔진을 수출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 자동차부품 연관 기업집단

오스트리아의 산업정책 전문가인 클레멘트(Clement)박사에 따르면 연관기업집단(Cluster) 형성이란 특정산업 부문에 연관된 중소기업끼리 자원조달, R & D부문,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풀세트(Full Set)방식의 생산구조를 창출해 냄으로써 개별적 중소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원래는 프랑스의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이러한 연관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들은 연관기업집단의 모국인 프랑스는 물론 유럽 내 자동차왕국으로 군림하는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부문의 연관중소기업집단 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자동차부문 연관기업 집단의 선도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주에 위치하는 AVL사와 SDP사이다. 엔진생산에 경험이 있는 SDP사는 AVL사와 합작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엔진의 연구개발을 시도하면서 연관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어 공조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지원 아래 여타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와도 연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연관 중소기업집단은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주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의 하청전문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청에서 재미를 본 독일의 BMW사는 1978년 BMW Austria라는 엔진 생산전문회사를 슈타이어마르크주에 설립하였으며 미국의 크라이슬러(Chrysler)사에서도 1990년 오스트리아를 유럽생산기지로 확정하였다. 최근 2년간만해도 대오스트리아 자동차 부문 외국인직접투자가 US\$ 1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스트리아는 세계 자동차 엔진시장에서 8%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게 된 이면에는 엔진설계에서 하청은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오스트리아 연관중소기업집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클레멘트 박사는 연관 중소기업집단 형성의 이점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제적으로는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크기를 지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부가적 이점은 하청업체들이 연계되어 부품을 납품하므로 대기업에서 개별적인 하청업체들처럼 간단히 하청선을 바꾸기 어렵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에는 약 130개의 중소기업에서 시트커버에서 엔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부문 연관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피고용인들은 약 1만2천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성공을 거울삼아 여타 오스트리아 지역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연관중소기업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업인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이러한 연관기업집단의 형성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자동차산업협회 자료 및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66. 주요산업동향/철강, 금속산업

<개요>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철강/금속산업이 발달해온 국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용광로 중 70여 퍼센트가 오스트리아의 뢰스트알피네(Voest Alpine)사가 개발한 산소전로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강 및 특수강 구조물 제조에도 많은 Know-How를 축적하고 있다.

<제철/금속제조업 현황 및 특성>

2004년 말 기준으로 약 180개 제철/금속생산업체가 존재하며 총 33,000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총 매출액은 70억 Euro이며 이중 약 58%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주요수출대상국은 독일을 필두로 한 EU권 국가이다. 수입품은 주로 저가의 동유럽 제품인데 2004년 기준으로 33억 Euro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속가공업 현황 및 특성>

2004년 말 기준으로 약 3,30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67,000명이다. 동년의 총매출액은 63억 Euro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약 46%가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제철/금속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권 국가이다. 동년 금속가공제품의 총수입액은 27억 Euro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되었다.

<진출확대방안>

철/강철제품의 경우 동유럽 저가제품의 공세로 시장진출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압연강판을 비롯한 일부품목은 한국으로부터 계속 수입되고 있다. 다만 고정적인 수요보다는 물량부족에 따른 대체적인 수입이 많아 수입물량이 고정적이지 못하다. 비철금속제 역시 비슷한 실정이며 금속제가공품은 오스트리아 제품 및 여타 서유럽산 제품의 품질 우세로 시장진출확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의 대형 수요자들과 직접적인 상담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들은 대개 자체적으로 전문 에이전트를 두고 있어서 수입선 개척이 쉽지 않다. 가격/수량조건 재고와 기술획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협력 유망분야>

◎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뵐러/우도홀름(Böhler-Uddeholm)사는 여타회사들이 신경쓰지 않던 기타 합금강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세계 유수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뵐러/우도홀름사는 여타 회사들이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등안시해 온 공구용 강철, 절단선, 합금강판, 압연된 터어빈셔블(Turbinshovel) 등 틈새 금속제품 생산과 개발에 주력해온 전형적인 틈새시장 공략 회사이다.

매년 상당한 R & D투자를 통해 축적된 Know-How는 세계적 수준이며 현지 바이어보다는 브랜치 오피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세계 44개국에 100여개의 지사를 설치하여 판매에 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동양 진출의사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중이라고 하므로 향후 기술협력을 위해 주목해 볼만한 회사이다.

◎ 제철기술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 최초로 제철기술을 이전해준 회사는 오스트리아의 뵐스트알피네(Voest-Alpine)사이다. 동 사는 산소전로공법을 개발한 이후 한상 최첨단 제철기술을 개발해내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 기술개발 회사이다. 근년에는 전기로 공법 중 최첨단인 코렉스(Corex)공법을 포항제철에 이전해주었다.

◎ 특수 철제 가공품

뵐스트알피네(Voest-Alpine)사는 특수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차선로의 경우 일반 선로보다 훨씬 길고 온도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제품을 개발하여 주로 독일 및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다. 동 사는 1998년에 철도선로부분에서만 2억 US\$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시장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사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낸다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는데 동사는 이러한 특수철제가공에 관한 기술이전은 다소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금속가공협회 자료 및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67. 주요산업동향/환경산업

환경 산업

<현황>

오스트리아 정부, 학계 및 재계에서는 환경산업분야를 금융산업과 함께 미래의 중추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환경산업분야는 오스트리아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2002년 오스트리아 환경산업의 매출은 약 150억 Euro라고 하며 매년 총산업 평균 신장율을 월등히 앞서가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계산상 EU역내 인구 3억6천7백만의 약 2%가 되는 인구 8백만의 소국인 오스트리아이지만 EU역내 환경산업에서 오스트리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비율의 2배가 넘는 5%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전세계인구 60억 중 0.1%의 인구를 가진 오스트리아가 전세계 환경산업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2.2%에 이르고 있어서 무려 20배가 넘는다.

<특성>

오스트리아의 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환경산업분야 역시 중소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항목 전체산업동향 참조).

한편, 산학연계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가 일사분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연방법에 의해 오스트리아 전 상공인이 강제로 소속되는 조직으로서 산하에 지방상공회의소와 산업별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방상공회의소는 연방상공회의소의 연락소 수준인 반면, 산업별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당해 산업 업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산업별 조직들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산학연계를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

<진출방안>

오스트리아가 보유한 환경기술이 월등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1999년 말, 오스트리아의 태양열 집광판 제조회사가 한국회사와 합작으로 오스트리아에 J/V를 구성하고 EU시장 공략에 나선 사례가 있다. 환경산업의 경우 오스트리아 회사와 J/V 구성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협력방안>

세계적 수준인 오스트리아의 환경기술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기술이전이 수월한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기술 구입도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에서 환경관련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근교에 위치하는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자이버스도어프(Austrian Research Centre Seibersdorf) 이다.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자이버스도어프의 환경기술 데이터뱅크

<http://www.umwelttechnik.at>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 3월).

68.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개황>**

- 오스트리아는 유럽특허협정 및 특허협력조약, 세계 지적재산권 협회 및 특허국 제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등의 회원이며 지적재산권보호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발명특허>

- 발명특허는 신청 후 18년간 유효하며 국제 산업재산권 협정, 즉 소위 파리유니언의 회원국 상호간에는 외국기업도 오스트리아 내국기업과 동일한 특허보호의 수혜 받을 수 있음.
- 특허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되었음.
- 특허권 발급소요기간 약 2년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매년 특허권 보호에 따른 특허권 보호료(1997년 현재 연간 약 US\$ 150)를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이 상실됨.
- 주무관청 : 오스트리아 특허청(Oesterreichisches Patentamt).

주소 : KOHLMARKT 8-10, A-1010 VIENNA

전화 : (43-1)534-240

FAX : (43-1)534-23250

<상표권>

-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
- 10년 유효 상표권 등록도 가능하며, 만료 6개월 전에 10년 연장 가능
- 주무 관청 : 오스트리아 특허청(Oesterreichisches Patentamt)

<저작권>

- 저작권 보호는 문학, 음악, 그림, 그리고 영화분야에 적용됨. 이 법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으나,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계획 중임.
- 저작권법하에서 저작권 보호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3상 반도체 칩의 레이아웃 디자인도 보호의 대상임.
- 오스트리아에서 53년에 제정된 디자인 등록에 관한 법률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의장권>

- 의장권 보호법(1991)에 의하여 보호됨.
- 5년간 유효하며, 2회 연장 가능 (최대한 15년간 유효).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69.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 개황>

- 1962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연방소비자보호법에 생산자, 판매자 등에 의한 최소 보증기간(대부분6개월) 및 방문판매 및 전화판매 금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1975년에 제정된 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법률은 내부장식에 사용되는 특정염료의 사용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완구, 섬유, 도자기, 식기용 철물 등에 유해요소의 최소 함유치를 규정하고 있음.
- 연방부처 중 소비자보호는 여성부 소관이며 동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연맹(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비자 계몽 및 제품의 품질 테스트 등을 주로 실시하며, 매월 KONSUMENT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 소비자보호 연맹 (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
주소 : Mariahilferstr. 81, A-1060 Wien, Austria
URL : <http://www.konsument.at>
E-Mail : konsument@vki.or.at
전화 : 588 77 - 0
- 동 단체는 정당 및 업계단체와 노동자단체 등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협의함. 이와는 별도로 동 정부부처 산하의 위원회 조직으로서 방송 광고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 혹은 신문 잡지 등의 광고의 허위여부 및 정보가치성, 그리고 윤리적 적합성 등을 심의하여 위반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광고 제재조치를 가함.
- 의약품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음.

<독과점 금지>**(1) 개요**

- 72년에 제정된 카르텔 법에는 카르텔과 기업들의 시장지배에 의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음.
-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담합가능 등록서 (kartellregister)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카르텔법의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기업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혀 경쟁을 하지 않거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국내시장의 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전체 내수시장에 2-3개의 기업들밖에 공급자가 없는 경우
동시장에 진출한 4대 기업 중 하나이고, 동 4개의 기업이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자료원 : 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 자료 종합 (2005년3월).

70. 수입관리제도**<개요>**

EU가입으로 특정 관리 품목을 제외하고는 EU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과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제도가 EU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2005년 상반기 현재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음. 다만,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 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특정 관리품목>

관리품목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상공부, 농림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입license를 발급하며, 이의 유효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1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관리품목은 페니실린등의 항생물질과 농산물, 그리고 전매품인 담배, 조류, 소금 등이며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규제 품목이 아니다.

<대오스트리아 수출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수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Airway B/L 등이며, 영사인증제도 및 선적 전 검사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상업송장에는 발송자, 인수자, 특수표시, 포장박스의 수, 가격, 원산지 등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섬유류 송장의 경우에는 직물의 모양, 중량, 넓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벨링제도>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에는 반드시 독일어 라벨링을 필요로 하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정확한 내용물 분석표(독일어)가 있어야 한다. 섬유류의 경우 취급주의 사항과 세탁요령이 독일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림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독일어 라벨링이 문제가 된 경우 보세지역에 일단 물건을 유치하고 3주 이내에 독일어 라벨링을 완료하거나 재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재무부 인터넷사이트 <http://www.bmf.gv.at> (2005년3월).

71. 관세제도**<물품별 관세>****(개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합공고와 같이 특정기관에서 수출입요령 및 절차를 총괄하여 공고하는 제도는 없으나 국립인쇄소에서 관세율표에 부가하여 품목별 수출입요령 및 절차 등을 별도의 화일로 발간,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부분을 송부해 줌으로써 계속하여 Up-dating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2005년 상반기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 없음)

(일반적 관세)

대부분의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종가세율 형태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CIF AUSTRIA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원자재의 경우 무관세 혹은 많아야 10%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또 반제품은 최대 20%까지의 관세가 부과되며 완제품은 0-15%정도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관세과징금 같은 추가적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공산품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고 식품류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또한 모든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는 0.3%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자금은 오스트리아의 대외무역진흥 경비로 충당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대부분의 농산물 및 관련제품은 일부제품이 무관세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설탕, 전분 시장규제법'에 따라 이들 설탕과 전분을 수입하는 경우 과징금 혹은 국내가격 평균화를 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수출시에도 평균화를 위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관세관련 예외규정 및 기타사항)

공산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제품이 오스트리아 국내제품에 비해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도쿄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결과를 존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세가격의 산정 등은 이 라운드 및 국제관세에 따르고 있고 관세가격 측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오스트리아의 관세가격은 실제 지불된 가격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단순히 지불된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수수료, 포장비용 및 원자재/ 서비스 비용(바이어에 의해 부담되었으나 물품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관세정책>

오스트리아는 95.1.1일부로 EU회원국이며 EU국과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 자유화되었다.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되어 있었는데 EU가입으로 EU기준으로 전환(동 국가들은 EU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EU가입(95.1.1일)으로 EU의 무역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U가입 이전에 오스트리아에 수입되는 자동차는 부품중 일정량이 오스트리아산일 경우 관세의 감세 혜택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관세를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 타이어 등을 수입하였는데 EU가입 후 동 감세 혜택이 없어지자 일본 자동차업체의 오스트리아산 자동차 부품수입이 급감한 바 있다.

<지역관련 우대관세>

EU 관세 코드상 국가분류: 아래와 같이 국가를 분류하여 품목별 국가군별로 적용,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1) 무관세국가군: 저개발국(C국) 및 EEC 가입국

- C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페루, 잠비아 등 34국
- EEC: EU역내국가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불가리아 등

- 2) EU와 최혜국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SPGL국)
 -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나 품목에 따라서는 SPGL국에서 제외되어 예외적으로 EU 공통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3) EU와 특별관세협정을 맺은 국가군: 최혜국보다 우대
 - 동구권 4개국(PHC):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 4) EU가 우대지역으로 지정한 국가군
 - 마그레브국가(MGB):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AKP: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태평양지역 국가군
 - 구유고지역: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 5) 기타: 이상의 관세특혜나 우대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EU공통관세가 적용됨
- 6) 한 국가가 상기 분류 범위 중 2개 항목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 국가에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함.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재무부 인터넷사이트 <http://www.bmf.gv.at> (2005년5월).

72. 통관절차

<개황>

수출입 통관절차는 대부분 운송회사와 세관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함. (2005년 상반기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 없음)

<수입>

1995년1월1일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규칙이 오스트리아법에 우선함. 오스트리아의 수입관련 절차 및 규제사항은 Aussenhandelsgesetz(1984/184) 법규, 그리고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획득되지 않은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들 제품들은 Freiwaren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언급한 대외경제관계부 규칙 별표 제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물품은 특별한 요구없이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 (HS 코드 1-24류). 이들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승인서를 신청, 교부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제품. 이들 제품은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의류 등 주로 쿼터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관계부를 통해 수입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일본에 대한 잔존 수량제한 품목, 대만에 대한 특정제한대상 품목 등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품목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은 연방정부 경제관계부에서 쿼터를 기준으로 쿼터보유업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
- 갈탄 및 의약품

한편 363 Euro 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허가서가 필요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상공부, 농림부)의 수출라이센스가 요구된다.

수출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88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새로이 별첨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상공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재무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bmf.gv.at> (2005년5월).

73. 유통구조

<유통구조 개요>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은 관계로 특정품목의 유통경로 및 조직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업자의 진출이 매우 어렵다.

<도매상간의 유통 단계>

소매점간에 구매조합을 형성, 중앙구매조합에서 공동 구매 후 체인점의 형식으로 각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형 도매상의 경우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백화점, 통신판매점 등 취급제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수입에이전트나 수입 도매업자를 통하기도 한다.

<백화점 및 소매점 현황>

백화점의 경우, 소비재 전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백화점은 많지 않으며, 가구백화점, DIY 백화점, 전자제품 백화점 등의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매점의 경우, 백화점 이외에 전문 소매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대형 Shopping Center들도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식료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체인점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수입품 유통구조>

전통적으로 중소규모의 수입상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중소규모의 수입업자가 몰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2005년까지 중소규모 수입상의 30%(2000년도 기준)가 몰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집단의 상권 장악상태>

1995년 1월 1일부 EU가입이후 타국의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점이었던 BIL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점이 독일계 기업에 흡수되었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5년 5월).

74. 국제입찰제도**<입찰제도 개요>**

오스트리아에서 연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입찰에는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으나 언어문제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입찰기관>

연방정부의 각 부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사회보험 관련기관(예를 들어 종합병원) 등이다.

유료입찰정보 제공 : www.ausschreibung.at

<입찰제도>

공식적으로 기업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응찰 자격을 지닌다. 그러나 장문의 물품조건이 독일어로만 발표되며 응찰문서도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독일어 해독 및 작문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응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응찰전략>

한국 S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현지에 국제입찰 전문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모니터부문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언어문제, 인맥 등 여러 점을 고려 할 때 한국에서 직접 시도하는 것 보다는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것이 입찰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75. 외환관리제도

<개요>

91년 말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구좌 운용, 국내기업의 외국환표시 채권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거래>

외환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Euro 14,500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자금에 대한 과실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지역이나 특별 산업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의 대외신인도 및 가용외환보유고>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신용 평가기관에서 최고점수인 트리플 A로 평가받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 말 기준 약 US\$ 230억의 외환(보유금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수치는 IMF의 보유권고 수준인 매달 사용외환의 약 3개월분(금 포함 계산)인 US\$ 20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은 상기 보유외환 이외에 1천75만 온즈의 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원래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의 금 보유고는 1천8백만 온즈를 초과하였으나 유럽연합 화폐동맹 참가를 위하여 유럽연맹은행에 약 8백만 온즈의 금을 출자하였다.

외채는 GDP의 약 12%선인 US\$ 280억인데 이 수치는 보유 외환 및 금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오스트리아 일간지 보도 종합(2005년3월).

76.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

◎ 소비력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EU 15개국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4위이며 OECD역내에서는 10위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완비되어있는 관계로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약 30% 수준의 저축율을 보이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율은 8 -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인들은 상당한 소비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는 8백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소량 주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동유럽에 대한 전초기지로서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유럽의 교차점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서구와 동구를 잇는 중개교역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동구개혁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의 대 동구교역 거점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래 전부터 구축하고 있는 대 동구교역의 노하우 및 금융기법 등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동구개혁 이후 오스트리아 제조업체들은 저임금 가공생산 기지로서 동구국가를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은 오스트리아 내에 구축하는 등 산업의 재배치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 EU권

오스트리아는 95년 1월부터 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관세 및 세금, 산업표준 등은 EU권과 같다. 제품의 품질 요건과 관련, 종래 오스트리아 내부요건과 합치해야 했으나 EU 가입을 계기로 EU 품질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시장특성>**◎ 거래방식**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 취소불능 화한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픈어카운트 혹은 연불방식의 신용거래도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진출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 분야도 진출전망이 비교적 밝다.

한편, 호텔체인을 비롯한 여행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전망이 좋다. 통신장비, 항공기부품, 방송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참가도 검토해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이들 건설시 장, 혹은 정부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진출의 유망분야 중 하나이지만, 입찰관련 설명이 모두 독일어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서류 역시 모두 독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만 가능한 한국회사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존재한다.

2. 품질 및 가격

섬유류와 기타 일상용품 등의 저가품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산이 대부분이다. 승용차의 경우 독일산의 가격이 일본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의 제품보다 고가인 편임.

< 소비특성 >**◎ 개황**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최근 환경보호 의식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시간의 증가 및 건강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신장, 나아가서는 남녀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용품의 소비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기반도 견고하다.

◎ 품질 및 가격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어떠한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대비 가격의 저렴성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사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교환소 및 고객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구매시즌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로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적 명절을 전후한 기간이 특수 시즌임. 입학시즌은 9월이며, 이외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학용품 등의 수요가 많음.

<진출시 유의사항>

◎ 언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나 홍보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상품들은 대부분 영어로만 설명서나 광고문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진출에 어려움을 경우가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유럽산 제품들은 제품설명서나 홍보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적어도 4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 회사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출대상지역별로 대상언어로 작성된 설명서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설명서나 홍보자료에 4개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철저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조상표나 특허권 침해 등 부정경쟁은 엄정한 단속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 A/S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어떠한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대비 가격의 저렴성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사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교환소 및 고객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5월).

77.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 비즈니스 에티켓

처음 만나는 경우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음. 악수하는 것은 인사예절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드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여성 존중 예절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영화에서 동양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났을 때 은근히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에 Aperitif를 권해보는 것이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해보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2. 접촉시 유의사항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측의 문의에 대하여 가부간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하는 것이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거래타진의 경우 한국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여 오스트리아인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경쟁국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가부 의사를 오스트리아측에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외국인 육체근로자들에 대해 관공서 직원들이 고자세이므로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벡타이와 양복을 착용하여 외국인육체근로자와 차별화해야 한다.

3. 상담 요령

상술한 대화요령을 바탕으로 일단은 Small Talk를 진행한 뒤 시작하며, 가격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주면 의심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현지 경쟁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거래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기존의 거래 가격선에서 상담을 시작하여 기존의 거래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최종 offer 를 하게 되면 가격면에서는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동양인에 대해서 "사귀기 힘들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인사도 동양식으로 차렷자세로 머리를 굽혀하는 등 동양적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 자신이 게르만민족 중에 북부 독일인과 비교하여 인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담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Small Talk)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보다는 약간의 small talk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부담없는 대화주제로는 가족상황이나 취미, 스포츠 등이 알맞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가족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관습이 있으므로 현지인과 대화시 가족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1차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소국으로 전락한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소시켜주면서 오스트리아인 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스트리아는 "문화적 대국"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학문 등에서의 오스트리아 업적(항목 역사부문 참조)을 이야기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문화대국"이라고 지칭해 주면 매우 좋아한다.

축구, 테니스 등 운동경기도 좋아하며,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오스트리아 황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오 외교관계가 1892년 조선조 고종황제와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셉 황제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이야기도 오스트리아인들 에게 친근감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음양이론이나 불교의 선 등 동양철학 및 동양종교에 호기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주제로도 친근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침술, 지압, 한의학 등이 많이 소개되면서 화학적 약재가 아닌 자연산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매우 좋다.

4.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선물

(개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간단한 선물로 족하다. 그러나 동양인들의 선물 예절은 오스트리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큰 선물을 해도 상관없다.

(간단한 선물)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린 열쇠고리가 가장 무난하며, 공산품으로서는 한국산 실크 벅타이나 여성용 실크 머플러를 좋아한다.

(큰 선물)

전반적으로 수공예 제품은 모두 좋으며, 특히 한국 특유의 도자기제품은 매우 큰 선물로 친다.

(주의)

인삼주를 제외한 인삼관련 제품은 피해야 하며,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 인삼은 일반보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력제로만 인식되어 있어서 첫 선물인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또한 인삼의 주성분에 하나인 사포닌 맛이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인삼차 등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인삼제품으로서는 인삼주가 가장 무난하다.

5. 문화적 금기 사항

(식사에절상 금기사항)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에 속하니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스프나 국 혹은 국수를 먹을 경우 후루룩거리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트림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예절상 절대 금기이므로 식사 후에 트림이 나오는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막고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곧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입에서 마늘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상담 전에 식사를 한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흡연시 예절)

미국에 비하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흡연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음주관련 예절)

일반식당이나 술집에서 포도주, 위스키, 맥주 은 보통 잔으로 판매하는데 오스트리아인을 상대로 식사대접을 할 경우 포도주는 병으로 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도중이나 술좌석에서 술은 각자 주량에 따라 자신의 술만을 주문하거나 스스로 따라 마시는 관습이 있으니 상대방의 잔이 빈 경우 가볍게 한번 정도 권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절대 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잔만 빈 경우에는 상대방에 구매되지 않고 주문하거나 따라 마셔도 상관없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대부분 포도주나 맥주를 즐겨 마시며 위스키나 꼬냑 또는 브랜디 등 독주는 식후 소화를 위해 한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는 포도주나 맥주에 국한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담화주제)

오스트리아인들은 19세기말 프로이센과 전쟁에 패배하여 독일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1차세계대전 후 소국으로 전락한데 대해 약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금하는 것이 좋다. 같은 소국이면서 독일어 문화권인 스위스에 대해서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에 대한 지나친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카톨릭신자이며 미국계통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종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음으로 한국에 많이 퍼져있는 영미 계통 개신교 관련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를 물어올 경우 카톨릭이 아닌 여타 기독교신자라면 간단히 개신교신자라고만 밝히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오스트리아에서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를 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오스트리아인이 종교를 물으면 가급적 일정한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잠재적인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유대교 및 유대인들에 대한 논의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종교를 믿는다면 그대로 밝히면서 다소 설명을 곁들여도 좋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동양종교라면 다른 문화권지역의 종교로서 인정해주면서 호기심을 갖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종교라는 문화적 우월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바이어 의견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78.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환경 개요>

(기본정책)

오스트리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가로 관광수입에 의해 일부 보전되기는 하나 경상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산업, 수입대체 및 첨단 기술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

투자의 과실송금 및 기타 외국 기업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모든 면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나 외자기업만의 특별한 혜택은 없다.

(외국기업 진출 개황)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SIEMENS, Daimler-Chrysler, VW, BMW 등 독일기업을 비롯하여 Philips, Sony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외국의 대오스트리아 투자는 독일이 가장 활발하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이후 자본력이 막강한 독일업체들에 의한 오스트리아 기업체의 인수, 합병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로 독일 Loewe사에 오스트리아 대형슈퍼체인 Billa의 인수를 들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EU가입 확정 이후 EU가입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된 스위스로부터 투자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유럽 및 미국 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계획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으며, 특히 미주 기업의 대EU 전진기지로서 대오스트리아 투자가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권 개방 이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대 동구권 전초기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지 않으며 동구권 자체에서도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유치 주력 분야>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신규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산업 등 과도한 시설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지역에 대해 외국기업 설치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지역, 철강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지역, 도산기업 속출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유관 단체>

한편 투자입지에 대한 심사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도 가능하므로 외국인 투자업체로서는 지방자치 단체와의 접촉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오스트리아 정부 내에서 외국인 투자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부처는 경제부이며, 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 지침의 제정 등 기본정책의 수립을 관장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경제부

- 주소 : Austrian Economic Ministry
Stubenring 1,A-1010 Vienna, AUSTRIA
- 전화 : (0222) 71 100-0

*투자유치 통계 및 주요투자국은 통계항목에 자세히 기술 되어있음.

<장단점>

(개요)

오스트리아가 유럽 안보회의(CSCE) 개최지로서, 그리고 3개 유엔기구 본부 소재지로서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결코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사실은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정치 및 사회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높은 임금부대비용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점)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 Infrastructure의 완비
- 서구 및 동구시장에의 접근이 용이
- 안정된 노사관계와 높은 생산성
- 중계무역지로서의 강점 :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현 동구권지역의 거의 전부를 지배해 왔던 배경, 그리고 냉전시대에 동구권에 대해 서구의 창구역할을 해 왔던 관계로 동구 및 서구 양대지역에 대한 중계무역이 발달했다.
- 동구권 개방 이후 오스트리아의 중계무역국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동구권보다 월등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해 중계무역국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다.

(단점)

- 높은 임금수준과 임금부대비용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개요)

첨단기술 및 고용효과가 큰 산업, 지역발전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시의 책임보증, 우대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진흥기금은 ERP Fund이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투자진흥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보조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5년 현재 기업보조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고 외국인 투자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이다.

- 유럽진흥정책기금(ERP/ -REG, -Inter) : 지역개발, 국제협력, 무역진흥
- 중소기업 보증기금 유한회사(Buerges) : 중소기업 진흥
- 투자대여 주식회사(TOP) : 기술개발 보조, 무역진흥, 국제협력
- 상공연구진흥기금(FFF) : 기술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보증 유한회사(FGG) : 지역개발, 기술개발 및 혁신
- 환경보호진흥정책기금(UFG) : 환경보호
- 감사은행 수출진흥기금(OeKB) : 무역진흥, 국제협력

수출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다.

(EU 보조금)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주, 일부 Steiermark주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동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활동)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심각한 국가 누적부채 감소 방안으로 실행중인 초 긴축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약 US\$ 30억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다만 생산성향상과 수입대체, 수출증진이 가능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관을 이용하여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제도)

- 개요 : 오스트리아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은 연방차원과 지방차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연방차원의 기관이 거시적 홍보에 주력하는 대신 지방차원의 기관은 실무선에서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특히 지방차원의 기관은 대개 노사정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하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문제와 유관한 직원이 문제해결에 나섬으로써 신속한 문제 처리가 가능하다.
- 연방차원의 투자유치기관 ABA(Austria Business Agency)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82년부터 Austrian Business Agency라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대오스트리아 투자상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알선 및 대외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ABA의 구체적 역할로서는 전반적인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관련 자료 및 법률정보제공, 금융·조세 및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전문정보 제공, 오스트리아 회사중 투자협력 및 합작계약 가능업체 발굴 소개, 정부기관 및 법률가, 은행 등과의 접촉 협상대행 등이 있다.

자료원 : ABA 자료 종합 (2005년5월).

79.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 정책 개황>

-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신규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생산성 향상과 수입대체, 수출증진이 가능한 산업도 주요 투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섬유, 철강, 종이산업 등 과도한 시설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투자유치 활동은 소극적임

<투자유치 관련 법규>

- 특별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됨
- 수출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음.

<투자우대제도>

- 첨단기술 및 고용효과가 큰 산업, 지역발전의 기여정도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음.
-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시의 책임보증, 우대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진흥기금은 ERP Fund임.
- 오스트리아 내 특정지역에 대해 외국기업 설치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지역, 철강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지역, 도산기업 속출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음.

<투자진흥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보조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2년 현재 기업보조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임.

* 유럽진흥정책기금(ERP/ -REG, -Inter) : 지역개발, 국제협력, 무역진흥

* 중소기업 보증기금 유한회사(Buerger) : 중소기업 진흥

* 투자대여 주식회사(TOP) : 기술개발 보조, 무역진흥, 국제협력

* 상공연구진흥기금(FFF) : 기술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보증 유한회사(FGG) : 지역개발, 기술개발 및 혁신

* 환경보호진흥정책기금(UFG) : 환경보호

* 감사은행 수출진흥기금(OeKB) : 무역진흥, 국제협력

-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주, 일부 Steiermark주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함.

- 동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 지급.

<몰수 및 보상>

-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유재산 보호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므로 갑작스러운 국유화 조치는 상상할 수 없음

<투자 유치활동 기관>

- 오스트리아 정부산하 투자유치 전문기구로서 ABA(Austrian Business Agency)가 있는바 동 기관에서는 투자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초기 컨설팅 등 의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최초 접촉포인트로서 활용할 만하고, Internet Homepage에 다양한 정보가 수록 되어 있음.
- 기관명 : ABA(Austrian Business Agency)
- 주 소 : ICD AUSTRIA Ges.m.b.h Openrnring 3, A-1010 Vienna, Austria
- 전 화 : (0222) 588-580
- E-Mail : austrian.business@telecom.at
- URL : <http://www.telecom.at/AustrianBusinessInfo>
- Fax : (0222) 568-659
- 2005년 상반기 현재 한국내 담당인사는 오스트리아 상무참사 쏘베버(Kesberg)임.
- 성명 : Mr. Werner Somweber
- 주소 : 교보빌딩, 룸 1914, 1-1, 종로구 종로1가, 서울 110-714
- 전화 : 732 7330
- E-Mail : seoul@ahst.seoul.wk.or.at
- Fax : 732 4337
-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동경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o 뉴욕 사무소

- 주소 : 747 THIRD AVENUE, NEWYORK, 10017
- 전화 : (212) 980-7970
- FAX : (212)980-7975

o 동경 사무소

- 주소 : TANAKA HIRO BLDG, 5-15-27, MINATO-KU, TOKYO 106
- 전화 : (813)3473-9251
- FAX : (813)3473-9254

o ABA의 구체적 역할로는

- 타당성 조사관련 자료 및 법률정보 제공
- 투자대상지역 건물이나 부동산 현황 파악 및 입주 제의
- 금융, 조세 및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전문정보 제공
- 오스트리아 회사 중 투자협력 및 합작계약 가능업체 발굴 소개
- 정부기관 및 법률가, 은행 등과의 접촉 협상대행 등

o 한편 ABA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책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STARTING BUSINESS IN AUSTRIA
- TAX ASPECTS OF AUSTRIA
- AUTOMOTIVE INDUSTRY IN AUSTRIA
- PLASTICS IN AUSTRIA
- ELECTRONIC INDUSTRY IN AUSTRIA
- MACHINE AND TOOL INDUSTRY IN AUSTRIA

o 투자입지에 대한 심사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도 외국인 투자업체로서는 중요한 컨택트 포인트임

자료원 : ABA 홍보자료 종합(2005년3월).

80. 외국인투자제한

- 거의 전 산업분야(99.7%)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 금지 대상종목은 환경오염산업 등 극히 일부분.
- TV무선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국과 금지대상을 통일할 예정임.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81. 투자진출절차

투자진출 절차

<투자형태의 결정>

외국인의 기업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형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상황 및 경제성 그리고 시장침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 단독투자 또는 현지기업 인수할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기업의 법적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한회사가 바람직하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주식 회사 보다 간단 하며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손쉽기 때문이다.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ABA와 접촉하면 다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ABA와 협상하여 우선 관련산업 및 시장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투자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정부 또는 EU로부터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진흥기금의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요식업, 호텔업의 경우는 영업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내국인들로부터 차용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파트너 선정>

일단 유력한 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해당 지방의 투자유치기관 및 지방정부와 접촉하여 파트너 물색을 의뢰하면 되는데, 오스트리아 기관들의 추천은 신뢰해도 좋으며 의심이 갈 경우에는 각종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일반 오스트리아기업과 전혀 다른바가 없다.

<회사 설립비용>

자본 거래세(Kapitalverkehrssteuer)는 불입자본금의 2%이다. 공증료는 주식자본금에 따라 가중 계산된다. AS 500,001 이상 - AS 999,999 이하 = AS 8300 - AS 13,800. 공칭자본금이 AS 1백만 이상인 경우, 공증료는 AS 13,900 - AS 92,700 (최고한도료)이다. 등기 수수료는 명목 주식자본금의 0.45 - 0.55% 사이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액의 3.5%이다. 이외에 소유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 정도 된다.

<투자관련 주요부처 및 단체 등의 연락처>

FEDERAL ECONOMIC CHAMBER : 연방상공회의소

- 주소 : WIEDNER HAUPTSTRASSE, A-1045, VIENNA
- 전화 : (43-1)501-050
- FAX : (43-1)502-06250

오스트리아 국립중앙은행: AUSTRIAN NATIONAL BANK

- 주소 : OTTO WAGNER PLATZ 3
- 전화 : (43-1)404-200
- FAX : (43-1)404-209400

비엔나 변호사 협회 :CHAMBER OF LAWYERS

- 주소 : ROTENTURMSTRASSE 13, A-1010 VIENNA
- 전화 : (43-1)533-27180
- FAX : (43-1)533-271844

오스트리아 공증인 협회 :AUSTRIAN CHAMBER OF NOTARIES

- 주소 : LANDESGERICHTSTRASSE 20,A-1010 VIENNA
- 전화 : (43-1)424-5090
- FAX : (43-1)433-475

공인회계사 및 신탁회사 협회 : CHAMBER OF ACCOUNTANTS AND TRUSTEES

- 주소 : BENOPLATZ 4/1 ,A-1081 VIENNA
- 전화 : (43-1)401-900
- FAX : (43-1)401-90255

<자본 및 이윤의 본국 송환>

일반적으로 이윤의 해외 송환과(이익 배당금의 형태로서) 자본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기타>

-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현금융자를 비롯, 보조금, 저리 혜택의 수출신용 및 보증, 종업원 훈련 보조, R & D보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이 있다.
-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지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노동 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함.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놓인다.
- 현지부품 구입의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자기업체에 대해 수출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제도도 없다.

자료원 : ABA 자료 종합(2005년3월).

82.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지사개설 개요>

오스트리아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본사 이익과 지사의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세제업무가 복잡하며, 이익이 오스트리아 세제로 사정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사 설립을 꺼리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공식적으로는 연락사무소나 현지 법인이다. 연락사무소에서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시켜서 연락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락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보험회사와 은행의 지사인 경우에는 회계기록 이외에 재무제표를 오스트리아 일간지에 공표할 의무는 없다.

<준비단계>

(비자취득)

한국인은 누구나 무비자로 오스트리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무비자체류 가능한데, 이 경우 동인은 자동적으로 관광목적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일단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동적으로 관광목적의 체류자로 분류된 사람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체류를 신청할 경우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입국목적에 위배된다 하여 거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준비서류)

관련서류는 반드시 독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거친 후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으로 확인 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지사개설 관련 법규와 비자에 관해서는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실에서 업종별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므로 사전 준비서류 및 진출요령을 상의하면 좋다.

<주한 오스트리아 상무관실 연락처>

- 상무참사: Mr. Christian Kesberg(크리스티안 케스베르크)
- 주소 : 교보빌딩, 룸 1914, 1-1, 종로구 종로1가, 서울 110-714
- 전화 : 732 7330
- E-Mail : seoul@ahst.seoul.wk.or.at
- Fax : 732 4337

<사무실 및 주거확보>

신문광고를 통해 직접 건물주인과 연결되면 소개비가 절감되므로 경제적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주인들이 부동산임대사무소를 통해 임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주인과 직접 연결되기는 힘들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임대사무소(Immobilienbuero)를 통해 사무실이나 주거장소를 마련하는 곳인데 임대사무소별로 소개료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임대사무소에서는 임대료 3개월분을 소개비로 요구하고 있다.

<종업원확보>

현지인 고용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사정에 따라 종업원을 두면 된다. 현지인 고용을 원할 경우 신문광고를 통하는 것이 가장 쉽다.

유력일간지 연락처

-Der Standard

Tel: 01 53170 0, Fax: 01 53170 70

-Die Presse

Tel: 01 51414 251, Fax: 01 51414 55

-Kurier

Tel: 01 52100 0, Fax: 01 52100 2263

<임금부대비용>

임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액은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담비율은 항목 사회보장제도 참조.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에 대한 비율

의 료 보 험 료	3.50 - 4.55%
실 업 보 험 료	3.00%
사회 연금 보험	12.55%
사 고 보 험	1.5%
주택건설보조기금	0.5%
기상피해대책기금	0.7%
체불임금대책보험	2.3%
도산 방지 기금	0.7%

자료원 : Wiener Gebiets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4/3

이외에도 자녀양육비 보조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제도>

사무직근로자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년292호) 제16조에 의거 사무직근로자는 특수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사무직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1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음. 현재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상여금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음.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음.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2번 지급하기도 한다.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허가 취득이 매우 힘들다.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전무하며,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 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을 뿐이다.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자료원 : 현지 진출 기업과의 인터뷰 결과 및 ABA 자료 종합(2005년3월).

83. 공장설립

<공장설립 개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여러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GesmbH)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AG)보다 그 설립이 간편하며 규제법규가 적다.

* 1인 유한회사가 가능하므로 설립 직후 모회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면 실질적으로 현지 법인이면서도 해외지사 형태를 띄게 된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공장부지를 구입하면 다시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이중의 일이 발생하므로 회사설립 후 공장설립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금융>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은 현지 금융은 물론 오스트리아 연방 및 지방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기업진흥기금 이용에 있어서도 오스트리아 내국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비엔나에만 해도 50개 이상의 외국은행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을 정도로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중이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공장부지 현물출자>

공장부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정부공인 감정사로부터 가격감정을 받아야 한다.

<공장부지의 구입>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한국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이 아니다)은 외국인이 대주주, 혹은 완전 소유주일지라도 내국회사 취급을 받음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특별한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함.

<공장부지의 임차>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내국회사 취급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도 공장부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장건물의 건축>

회사설립 후 법인의 이름으로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건축하면 된다. 오스트리아 내국인 회사의 경우와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관련 세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인센티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고문과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 허가 및 등록>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AUSTRIAN NATIONAL BANK)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미상환 자본과 대부금은 국립은행에 등록해야 함.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은 지방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자본 및 이윤의 본국 송환>

일반적으로 이윤의 해외 송환과(이익 배당금 형태) 자본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기타유의 사항>

(외국인 노동허가의 취득)

일상적인 경영에 참가하는 외국인 이사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피고용인대표 감사제도)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 고용되었거나 자본금이 Euro 7,267을 초과하고 50명 이상의 지분소유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의 1/3은 피고용인들의 대표들이어야 한다.

자료원 : ABA 자료집 종합(2005년3월).

84. 산업단지/인두스트리젠트룸 엔외쥬우트(Industriezentrum Noe-Sued)

소 재 지 :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남부

부지면적 : 약 280 ha

공단특성 :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 근교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특화된 산업분야는 없다.

입주자격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니더외스터라이히 투자유치기관이자 공단 소유자인 에코플러스(ECO Plus)측이 해당 프로젝트를 허가하면 입주자격이 생긴다.

입주비용 : 에코플러스(ECO Plus)측과 해당 프로젝트를 상의하여 임대 또는 구입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장 또는 사무실의 건축은 외코플러스측에서 담당한다

- 월 임대가격 = 공장용도 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4.07 Euro
= 사무실용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8.72 Euro
- 토지 구입가격 = 평방미터 당 109 - 145 Euro

입주가능시기 : 제한 없다.

교통 및 통신 : 교통망은 오스트리아 남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지역으로의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통신망 역시 잘 구비되어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 여타 선진국 수준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100 - 200 명 수준의 인력 조달은 언제나 가능하다.

기본급 임금수준은 최하 월 1,450 Euro (주당 40시간기준)

외국기업입주 현황 : 2005년 3월 현재, 단지에 상주하고 있는 총 280여개 기업 중 약 30%가 외국인투자 기업

한국기업 입주현황 : 2005년 3월 현재, 없음

우대조치 : 특별히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으나 Case by case로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연락처>

Industriezentrum NOe-Sued
Strasse 3, ECO Plus-Buerogebaede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Tel : +43 2236 61626 0, Fax: +43 2236 61626 40

(공단 입주 안내 및 홍보처>

주소: ECO PLUS P.O.B. 1476 Lugek 1 A-1011 Wien
Tel: +43 1 513 7850 0, Fax: +43 1 513 7850 44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85. 자유무역지대

오스트리아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86. 조세제도

<세제개황>

-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하면서 사회적시장(Social Market)정신이 가미된 세제를 채택하고 있음.
- 직접, 간접 조세부담(예산총액에서의 동종세입의 비중)은 직접세 28.8%, 간접세 39.7%, 사회보장부담 31.9%이다(2004년도 말 기준).
- 간접세는 EU권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조세부담률은 약 44퍼센트이며 이수치는 EU권에서도 중상에 속함.

<연방세>

(1) 납세대상

- 거주자 납세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됨.
-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영업이득으로 과세됨.
- 은행구좌, 유가증권, 채권이자에 대한 25 퍼센트 원천과세.

(2) 제세 원칙

-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
-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정액세율(기업소득세, 25%)가 과세.
-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

(3) 세율

- 부가가치세: 공산품 20%, 식료품 14%.
- 자본투자세는 공칭자본금의 2% 수준임.
- 재산세는 1994년 폐지 되었음.

(4) 법인 관련 세제

- 주식의 배당금,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참여에 따른 이익배당에 대한 세율은 22%, payroll tax : 3%.
- 법인유지세(Koerperschaftssteuer):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Euro 1090이 부과됨. 1996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세를 Euro 3633 으로 인상하였으나 1997년 1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과다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Euro 1090 으로 내렸음.
-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유지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뿐임.

(5) 개인 소득세

- 연간 소득이 Euro 4,128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됨.
- 3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월소득이 Euro 836 이하인 경우도 소득세 면제.
-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음.
-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세율은 다음과 같음.

Euro 4,135 - 4,621.9	: 14%
Euro 4,622 - 10,907.9	: 22%
Euro 10,908 - 21,809.9	: 32%
Euro 21,810 - 50,879.9	: 42%
Euro 50,880 이상	: 50%

(6) 상속 및 증여세율(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 된 경우)

Euro 72,672 이하	2 - 5%
Euro 72,673 - 145,345	5 - 7%
Euro 145,346 - 363,363	8 - 9%
Euro 363,364 - 726,726	9 - 10%
Euro 726,727 - 1,453,453	10 - 12%
Euro 1,453,454 - 2,906,906	12 - 13%
Euro 2,906,907 - 4,360,359	13 - 14%
Euro 4,360,360 이상	15%

<주세 및 지방세>

- 지방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음료세로 판매되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가 부과되었었는데 1999년 EU법원에서 EU법과 상치된다는 판결이 나와 폐지되었음.
-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신고액의 4.5%(취득세 3.5% + 등기료 1%)임.
- 각 지방별로 인지세 등이 있음.
-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평균 3 - 5년에 한번 실시됨.

<관세>

- 오스트리아는 95.1.1일부로 EU회원국이며 EU국과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 자유화되었음.
-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되어 있었는데 EU 가입으로 EU기준으로 전환(동 국가들은 EU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EU가입(95.1.1.)으로 EU의 무역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 관세 및 수입쿼터제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됨.

- EU가입 이전에 오스트리아에 수입되는 자동차는 부품 중 일정량이 오스트리아산일 경우 관세의 감세혜택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 들이 수입관세를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 타이어 등을 수입하였는데 EU가입 후 동 감세혜택이 없어지자 일본 자동차업계의 오스트리아산 자동차 부품수입이 급감하였음.

o 지역관련 우대관세

EU 관세코드상 국가분류: 아래와 같이 국가를 분류하여 품목별 국가군별로 적용관세를 발표하고 있음.

- 1) 무관세국가군: 저개발국(C국) 및 EEC 가입국
 - C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페루, 잠비아 등 34국
 - EEC: EU역내국가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 2) EU와 최혜국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SPLG국)
 -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 3) EU와 특별관세협정을 맺은 국가군: 최혜국보다 우대
 - 동구권 4개국(PHC):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 4) EU가 우대지역으로 지정한 국가군
 - 마그레브국가(MGB):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AKP: 아프리카, 카리브연안국, 태평양지역 국가군
 - 구유고지역: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 5) 기타: 이상의 관세특혜나 우대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EU공통관세가 적용됨
- 6) 한 국가가 상기 분류범위 중 2개 항목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국가에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함.

자료원 : ABA 발행, Austrian Tax Law (2004년7월).

87. 사회간접자본

<전력>

- 전기 보급 실태 : 전력사정은 극히 양호하며 정전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음.
- 오스트리아는 현재 거의 모든 인접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겨울철 발전 용수의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 전기료의 경우 각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표준 전압 : 220 V / 50 Hz
- 전기료 :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료 약 Euro 60 - 70 (비엔나 기준)

오스트리아 연도별 전기생산량 (단위 Giga Whatt)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30.036	35.205	41.965	44.534	50.410	56.587	61.821	57.844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2003 년 전기수급현황(단위 Giga Whatt)

수력 발전	38,109
화력 발전	19,735
총 발전량	57,844
전력 수입	15,375
전력 수출	14,676
오스트리아 전력 소비량	60,655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크게 수력과 화력으로 나뉘어지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1기가 완공되었으나, 국민투표결과 그 사용이 부결됨으로 원자력 발전을 영구히 포기였음.

<상하수도>

o 개황

상하수도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특히 상수도 수질은 세계적으로도 최상급에 속함.

o 상수도

- 상수도는 유럽 내 최고급수이며 전체 상수도 공급량의 33%를 지하수 및 약수로 충당하고 있음.
- 특히 비엔나 상수도는 알프스약수를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함. 전체공급량의 약 95%를 지하수로 충당
- 비엔나의 상수도는 1873년에 알프스 약수를 황족 및 일부 귀족층에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공화정 성립(1919년)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급되고 있음.
- 비엔나 상수도의 수원인 슈타이어마르크(Steirmark)주에서는 세계유수의 생수 전문 회사인 에비앙(Evian)과 생수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Arab Emirate)는 슈타이어마르크로 부터 정기적인 생수공급을 원하고 있음.
- 연간 상수도 공급량은 약 33억 입방미터

o 하수도

- 파리와 더불어 유럽에서 하수시설이 일찍 발달한 곳으로 손꼽힘.
- 50년대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영화 "제3의 사나이"의 마지막 장면은 비엔나 의 하수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이며, 이 때문에 50 - 60년대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엔나 하수시설관광도 성행하였다고 함.
- 연간 하수 처리량은 약 20억 입방메터

<교통>

o 도로망 현황

오스트리아 교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력수송의 80%, 화물운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주요도시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접국가의 고속 도로와 직접 연결됨. 전체의 약2%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o 철도망 현황

2004년 말 현재 철도는 총 연장 6,631 km이며 이중 5,849 km가 국철인 Oe.B.B.에 의하여 운영되어짐. 국내 및 유럽 각국(동구포함)으로 연결되어 있음.

o 항공망 현황

국내선의 경우 Salzburg, Graz, Linz, Klagenfurt, Innsbruck, Bregenz 등의 국내 주요 도시를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유럽 주요 도시(동구 포함)의 경우 매일 수차례 운행되고 있음.

국제선을 운행하는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국영이었다가 1997년에 완전 민영화된 Austrian Airlines 과 자동차 경주 파일럿 출신의 라우다(Lauda)씨가 설립한 Lauda Air 가 있으며, 주로 국내노선을 운행하는 Tyrolean Airway가 있으나, Lauda Air, Tyrolean Airway 모두 현재 Austrian Airlines에 합병되어 개별 항공사 이름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임.

<시내 대중교통수단>

o 택시

- 대부분 Call taxi 로서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기는 매우 어려우며 빈 택시는 대부분 taxi stand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음.
-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Euro 2.5 의 할증료가 추가됨.
- 비인의 경우 공항으로부터 시내로 가거나 시내에서 공항을 갈 때, 대부분 택시 미터의 요금에 Euro 8.8 공항할증료가 추가됨. 이외에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 할증료 부가.

o 시외버스

오스트리아는 철도망의 발달로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며, 특수지역에 한해 오스트리아 철도청과 체신청등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통신>

- 일반전화 : 2004년 말 기준 약 560만 회선이 연결되어 있음. 송수신 상태 양호
- 핸드폰 : 2004년 말 기준 570만 회선, 송수신상태 양호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88. 노동여건

<고용>

-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인터뷰 후 고용계약 작성.
- 사용자는 고용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보험회사에 통고하여야 함.
- 업체별로 견습기간(최고 1개월)을 거쳐 정식사원이 됨.
- 견습기간이라도 사회보험회사에 통보가 필요함.

<인력>

- 오스트리아의 인력은 서유럽 내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생산성 향상부문에서 지난 5년간 큰 두각을 나타내왔다.

<임금>

- 오스트리아의 임금수준은 EU 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안정된 노사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 대처하고 있다.
- 제조업부문 월평균 급여(2004년 기준, 세전)는 약 2,500 Euro

<임금부대비용>

- 임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함. 부담액은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적용됨.
-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에 대한 비율

의 료 보 험 료	3.55 - 4.6%
실 업 보 험 료	3.00%
사회 연금 보험	12.55%
사 고 보 험	1.5%
주택건설보조기금	0.5%
기상피해대책기금	0.7%
채불임금대책보험	2.3%
도산 방지 기금	0.7%

자료원 : Wiener Gebiet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4/3

이외에도 자녀양육비 보조기금법에의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

o 오스트리아 제조업부문의 평균적 임금부대비율 구성내역은 순임금 대비 다음과 같음

- 결근에 따른 발생비용 = 18.4%
- 특수수당 = 23.0%
- 퇴직금 = 6.8%
- 법적 복지후생비 = 41.5%
- 자율적 복지후생비 = 5.4%
- 임금관련 세금 = 4.2%
- 직업훈련비 = 1.0%
- 기타 = 2.0%

합계 = 102.3% (순임금 = 100)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제도>

- 사무직근로자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년 292호) 제 16조에 의거 사무직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동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사무직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1년에 월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음.

<생산직 근로자 관련 상여금 법규>

-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음. 현재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상여금 지급시기>

- 상여금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음.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음.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함.

<외국인의 고용>

-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 최근 들어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허가 취득이 매우 힘들다.
-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 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전무하며,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 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을 뿐이다.
-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89. 사회보장제도**<형성과정>**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제도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초에는 빈민구제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부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었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사민당 단독 정부 시절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있었음.

<정책 기초>

오스트리아는 사회 보험관련 제도 및 정책, 입법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사회보장 정도가 높은 나라로서 그 이미지를 확립하고 있음. 가족장려금 및 노령자 퇴직급여는 국제수준보다 높으며 사회보장 경비가 전체 국내 총생산의 27%를 차지하는 예산 구조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같은 점이 뒷받침되고 있음.

사회 보장 정책은 사회적 수준을 낮추지 않고도 사회적인 혜택을 높여나간다는 데 그 초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높은 예산 지출은 정당화되고 있음.

<의무적 사회보험>

1) 사회연금보험

연금 보험은 노령연금, 장애 연금, 피부양자 연금, 재할 및 건강 서비스 등의 수혜를 위한 보험을 말하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단체가 특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정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함.

연금 보험은 납입 기간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이한데 연금 수혜에 앞서 30년 동안 최소 180회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연금의 수혜가 가능함.

장애자용 연금 혹은 그 부양 가족의 연금은 장애를 촉발하는 사고가 남자의 경우 55세, 여자의 경우 50세 이전에 일어나면 피보험자가 연금 수혜일로부터 역산하여 120개월 동안 60회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에 연금 수혜를 위한 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일반적인 연금수혜시기는 연금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만기가 되며 조기만기형 연금일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까지임.

2) 사회의료보험

o 대상

- 사회의료보험은 피보험자나 스스로 피보험자가 아닌 부양가족에게 활용가능.
- 부양가족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 및 친척 (손녀/손자/계모가 낳은 자녀등) 등으로서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됨
- 이중 자녀들은 만 18세 이전까지가 그 대상이나 그 이후에도 직업 학교나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됨.
-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25세까지가 그 대상이 되며 질병 혹은 장애로 생계수단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자녀로 해석해서 지원 대상이 됨.

o 범위

- 또 각종 병치료는 물론, 예방적인 진단 및 정밀 체크도 제공되는데 이는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많이 알려진 성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퇴치하기 위한 것임.
- 피보험자는 사회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사회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치아교정과 같이 병 치료라기보다는 외견 교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보험에서 제외.
- 건강보험은 출산도 커버하는데 임신 중 체크,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의 의료 서비스를 망라함.

o 약의 조달

-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약국으로부터 조달되며 그 비용은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관련 보험회사에서 부담.

3) 사고보험

직장에서의 산업재해 보험을 말하며 직장 출퇴근시에 당한 교통사고 등도 그 대상임. 피보험자의 자녀들이 학교시설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등도 사고 보험의 대상이 됨. 회사출근 전 자녀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던 중 사고발생도 보험대상에 들어감 직업병은 "직업병 리스트"로 별도 공표하고 있는 질병은 대부분 보험의 커버가 가능한데 납이나 유황,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작업과 관련하여 인체에 투입된 경우 등이 그것임.

4) 실업보험

실업보험을 강제 보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데 월 보수가 250 유로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가입됨. 정부가 설립한 노동 사무소가 이 보험을 관장하며 실업수당이 제공되는데 최저 20주에서 최고 52주까지 지급됨. 최후 근무처에서 받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 규모가 결정되는데 하루 기준으로 Euro 3.8에서 Euro 25 사이임. 실업수당 수혜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긴급 구조 보조금이 지불되는데 매 39주만에 수혜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지원 여부를 결정함.

<기타 사회보장 제도>

o 가족관련 사회보장

- 오스트리아는 여타 선진국들 중 가장 발달한 가족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회 보장 면에서 앞서가고 있음.
- 1984년도에 가족 및 청년/소비자 문제 담당 부서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1987 년도에 동 부서는 청년가족 및 환경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현재 가족 수당제도는 가족보조금, 출생보조금, 통학보조금, 교재보조 / 청년교육 보조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밖에도 특수한 곤경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과 아동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세 상각제와 같이 세무 행정상의 지원 제도도 운영중임.
- 가족수당은 오스트리아에 체제허가를 받았으며 오스트리아에 세금신고를 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므로 상사 또는 교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짐.

o 유급 출산 휴가

- 출산 보호법에 의거 오스트리아의 여성들은 출산 이전 8주간 그리고 출산이 최초 8주간 동안은 근로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이 기간동안 강제 휴가를 통해 여성들은 강제 건강 보험에 의한 출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근로 활동이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연장 허용됨
- 1984년도에 가족 및 청년/소비자 문제담당 부서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1987년도에 동 부서는 청년가족 및 환경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출산 수당은 직장에서 근무했을시 수령할 수 있는 금전적 수입을 고려하여 그 수입 손실액만큼 충분히 보상해주는 선에서 결정, 지급됨(실제로 휴가 전 3개월 동안의 순수입을 기초로 산출됨).

o 질병수당

- 질병으로 잠시동안 직장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당은 질병이 나기 전 최후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최초에는 급여의 60%, 그리고 43일째부터는 50%를 지급함.

<사회보험의 쟁송>

-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법률'에 의거, 사회보험과 관련된 분규가 조정되는데 정부와 노동 사회부 등이 1차적인 해결 주체가 되나 행정 법원 혹은 헌법 재판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통상 사회 보험 관련 재판은 보험의 유효성 여부 혹은 적용 근거나 정도 등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제소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엔나의 노동 사회 법원에서 1차 심리가 이루어진 후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순으로 항고가 진행됨

<사회보험 관련 재정자금의 조달>

- 사회 보험 경비의 대부분은 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에 의해서 충당되는데 이같은 피보험자 각출 경비가 적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함.
- 국가는 이외에도 농민들의 건강 및 사고 보험 계획과 관련된 경비를 분담함
-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등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일정비율을 부담하여야 함.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비율로 적용되는데, 합산된 적용비율이 임금의 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함.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대비 비율

의 료 보 험 료	3.45 - 4.56%
실 업 보 험 료	3.00%
사회 연금 보험	10.56%
근로자회의소 기금	0.5%
주택건설보조기금	0.5%
기상피해대책기금	0.7%

자료원 : Wiener Gebiets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4/3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에 대한 비율

의 료 보 험 료	3.50 - 4.55%
실 업 보 험 료	3.00%
사회 연금 보험	12.55%
사 고 보 험	1.5%
주택건설보조기금	0.5%
기상피해대책기금	0.7%
체불임금대책보험	2.3%
도산 방지 기금	0.7%

자료원 : Wiener Gebiet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4/3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90. 현지 생활여건

<한국 식품 조달여건>

- 비인 시내에 한국 식품점 6군데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 식품 구입가능
- 가격은 한국 내 가격의 3배 정도
- 일부 대형 정육점에 주문하면 불고기/갈비용 고기를 썰어 줌.

<생필품 구입 용이성>

- 생필품 구입이 매우 용이함.
- 생필품 구입은 슈퍼마켓과 그라이슬러(Greissler)라 불리는 소규모 잡화상에서 가능한데 그라이슬러의 가격이 슈퍼마켓에 비해 10 - 20% 비쌈.
- 슈퍼마켓은 고급, 일반 슈퍼마켓과 디스카운트점으로 구분되는데 디스카운트점에서는 No-Name제품을 많이 취급함.
 - . 고급슈퍼마켓: Julius Meinl (고급 슈퍼)
 - . 일반슈퍼마켓: Bila, Loewa, Merkur, Pam Pam, Spar, Zielpunkt
 - . 디스카운트점: Hoffer, Mondo

<병원, 약국>

- 의료보험 :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며, 사회보험 계약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는 무료임. 보험료는 직업, 임금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병원 : 일반의(가정의)가 1차 진료기관으로, 원칙적으로 1차 진료기관을 거쳐 전문의나

기타 2차 진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됨.

- 약국 : 항생제 등의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가벼운 진통제등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레저 여건>

- 골프, 테니스, 수영장 등의 레저 시설이 비인과 빈 근교에 산재해 있음.
- 겨울철에는 알프스 지역 곳곳에 스키장이 운영됨.
- 7,8월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음악회, 오페라, 연극 등이 개최되며, 공원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개방되어 있음.

<치안상태>

- 주간, 야간에 관계없이 치안상태가 매우 양호함.
- 최근 5년간의 범죄 발생건수는 정체세를 보이고 있으며, EU역내에서 범죄발생이 낮은 국가에 속함.
- 특히 살인 및 치사 사건은 1000명당 0.007건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임.
- 사건 해결 비율은 약 50%로 여타 EU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임.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 지식인들이나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들에는 88년 올림픽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특별한 인종차별은 없음.
- 1992년 한국의 H사 제품의 자동차가 오스트리아 시장에 선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K사의 진출과 함께 한국3대 자동차 회사들의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음. 동사들의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선전은 오스트리아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남아 저임금국과 한국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만들어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이미지 정착과 함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되어가고 있음.
- 아이러니컬하게도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의 경제규모와 발전 상황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음.

<한인 사회 및 한인 학교 운영 실태>

o 개요

- 오스트리아 전체에 약 1700 - 18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중 약 25%가 교민이며 나머지는 주로 유학생들임.

o 교민사회

- 교민들의 다수는 70년대에 간호원으로 파견된 사람들과 광부, 요리사들의 가족 및 친지들임.
-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매년 연말 1회 송년회를 겸한 오스트리아 한인회 정기총회가 비인에서 개최됨.

o 한글학교

- 비인에는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한글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림.
- 현지 교민 자녀들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의 경우에는 수준이 맞지 않음.

o 유학생 사회

-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근자에 들어 일반학 학생도 꽤 늘어났음.
- 일반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유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음.
- 음대생들은 2개의 음대생 유학생회로 분리되어 있음.

o 종교생활

- 한인 카톨릭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등 모두 7개의 한인 기독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교회별로 집회를 가짐.
- 불교는 조계종계 오스트리아 포교사가 1명 있고 화엄종계 오스트리아인 승려가 1명 있어서 각종 교파가 공동 사용하는 불교회관에서 매주 집회를 가짐.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91.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집구하기>

- 임대료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방미터당 Euro 7.5 - 20 정도. 입주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2배 내지 3배 지불. 복덕방을 통하여 소개받을 경우 소개비로 임대료의 3배까지 지불
- 입주의 난이도 : 복덕방을 통하여 주택을 구할 경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소개료가 비싸며, 개인적으로 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 임차계약 해지시의 반발하는 문제 : 임대계약시 지불한 보증금(Kaution)에 대하여 임대물의 손상을 이유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계약시 계약서를 주의해서 살펴볼 것(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물을 입주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있음).
- 임차계약 만기이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계약서에 준하며, 보통의 경우 3달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 외국인체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최소한 10 제곱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최소한 30 제곱미터 이상되는 집을 얻어야 체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주거등록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 경찰서로 가서 주거등록을 해야 한다. 주거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 그리고 주거등록서식이 필요한데, 주거등록서식(Meldezettel, 멜데제텔)은 각 구청의 주거등록과(Meldeservice im Magistratischen Bezirksamt)에 비치되어있고, 또는 웹사이트(<http://link.help.gv.at/besucher/db/formularauswahl.formular?id=819>)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다.

<체제허가 연장 신청>

체제허가 만료 1개월 전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출서류는 여권, 사진 2매(최초 연장신청에만, 이후 1매), 재정증빙서류(월급명세서, 납세금 실적 등), 집계약서, 주민등록서류 등이다.

<구좌개설>

구좌를 개설할 때, 전화요금, 전기/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구좌는 지점이 많은 오스트리아의 대형은행, CA 또는 Bank Austria에 해 놓으면 한국과의 송금에도 편하다.

<전화신청>

일반전화는 가까운 우체국에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별로 2주에서 6개월 등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핸드폰의 경우 5개회사가 경쟁 중이며 가격도 싼 편이다.

<비상전화번호>

경 찰 : 133
화 재 : 122
응급환자 : 144

<비품 구입>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기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

<비상의료대책>

o 시내에서 사고 및 응급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시내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개방

- 응급환자 관련 문의전화는 401이며 동 전화를 통해 응급조치 방법과 사고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401를 통해 앰블란스를 부를 수도 있는데 앰블란스 사용할 경우 약 250 - 300 Euro의 앰블란스 사용 비용을 추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앰블란스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짐.
- 내무부 소속 항공 앰블란스 전화: 1717
- 산악 조난사고 발생시: 140
- 항공 앰블란스 사용 비용은 약 750.Euro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항공 앰블란스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짐.

o 경미한 환자의 비상 의료대책

- 병원의 진료시간은 일반적으로 월-금: 08:00 - 18:00이며 반드시 예약을 요구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음(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휴진).
- 일반진료시간 이외에 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치통이나 급성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531160으로 전화하면 당일 야간 (또는 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주소를 알 수 있음.

o 약국

- 약국의 경우 평일 08:00 - 18:00까지 영업하며 대부분의 약국이 12:00 - 14:00 점심휴식시간이 있음(토요일은 08:00-12:00, 일요일은 휴업).
-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별 약국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영업하는데 1550 으로 전화하면 당일의 휴일/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를 알 수 있음. 또 각 약국 입구에 그날의 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가 게시되어 있음.

<유용한 생활독일어>

간단한 생활용어 및 식품관련 표현은 항목 유용한 현지어 참조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92. 자녀 교육여건

<현지학교, 독일어>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되며,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 전액 면제.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카톨릭이나 신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음.
- Gymnasium 졸업과 동시에 Matura라는 졸업시험을 치름 동 졸업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은 오스트리아 내의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전공할 수 있음(예능계의 경우 실기시험이 있음).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

o 개황

- 국립 및 공립교육기관의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대금의 90%를 국가에서 책임짐.
-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의무중학교, 실업학교, 통합 중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의무교육은 9년간임.
- 초등학교 및 의무중학교는 무시험 진학임.
- 실업학교는 시험제 입학이며 통합 중고교 진학은 내신으로 결정됨.

o 초등학교

- 초등학교(Volksschule)는 4년제이며, 4학년말 내신성적으로 일반학교 진학과 실업 학교 진학학생으로 나뉘어짐.

o 의무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 후 실업계 학교진학이 결정되면, 우선 의무중학 (Hauptschule)에 진학하게 된다.
- 의무중학교의 4년제 교육이 끝난 후 학교에 부설된 기술연수원에서 1년간 기술 교육을 받거나 실업학교에 시험을 통해 진학 할 수 있음.

o 실업학교

- 실업학교는 시험제 입학임.
- 실업학교는 2년제, 3년제, 및 5년제가 있음.

o 통합중고교

- 초등학교에서 일반학교 진학이 결정되면 김나지움(Gynasium)이라고 불리는 중고교 과정이 통합되어있는 학교에서 8년제 교육을 받게 됨.
-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마투라(Matura)라는 중고교 통합과정의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교 통합과정의 졸업시험(Matura)"에 응시할 수도 있으며, 5년제의 일부 실업계 학교에서도 대학입학자격 취득이 가능함.

o 대학

- 대학은 모두 국립이며 학비가 없었으나 2001년 9월 학기부터 등록금 부활. 한 학기 등록금은 내국학생이 Euro 385, 외국학생은 Euro 765.
- 대학에는 학사제도가 없으며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져 있어서 졸업 후 석사(Magister) 자격을 취득하게 됨.
- 석사과정 취득 후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음.
- 석사 및 박사과정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석사 또는 박사칭호를 붙이는 것이 관례이며 타이틀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있음.
- 교육 정도에 따른 월급차가 있으나 능력급 위주이므로 개인마다 임금수준이 상이함.

<영어학교>

빈 시에 UN지부가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외교관들이 많이 상주하는 관계로 영어학교가 많은 편임.

o Vienna International School (V.I.C.)

Strasse der Menschenrechte 1, A-1220 Wien

- Tel. (43-1) 23 55 95 0, 23 84 71, 23 84 72
- Fax (43-1) 23 03 66
- 비고 : 영어학교 중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음. 학제는 오스트리아 방식을 따라 초등학교 4년, 통합 중고교 8년임. 지원자가 많아서 정원이 항상 차있음으로 입학이 쉽지 않음. 연간 학비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며 약 Euro 6,500 - 8,800 사이임.

o The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Salmannsdorfer Str. 47, A-1190 Wien

- Tel. (43-1) 44 27 63 0, 44 13 44
- Fax (43-1) 44 37 69
- 비고 : 상기 V.I.C. 다음으로 인기가 있음. 학제는 미국방식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연간 학비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며 약 Euro 6,600 - 9,000 사이임.

o Vienna Christian School

Kreilplatz 1/2, A-1190 Wien

- Tel. (43-1) 318 82 11
- Fax. (43-1) 318 82 114

o Danube International School

Gudrun Strasse 184, A-1100 Wien

- Tel. (43-1) 603 02 46
- Fax. (43-1) 603 02 48

<불어학교>

o Lycee

Lichtensteinstr. 37a, A-1090 Wien

- Tel. (43-1) 34 22 41 0, 34 22 42 0
- Fax. (43-1) 34 22 43 0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93. 진출기업

< 지 사 >

2005년 3월 현재

- 삼성전자

Add: Praterstr. 31/14 OG, A-1020 Wien

직원: 4(본사파견) 14(현지채용)

Tel. (43-1) 516 1525

Fax (43-1) 516 1520

- 삼성반도체

Add: Praterstr. 31/14 OG, A-1020 Wien

직원: 1(본사파견) 2(현지채용)

Tel. (43-1) 513 7550

Fax (43-1) 513 7559 99

- LG전자

Add: Twin Tower, Wienerbergerstr.11/16, A-1190 Wien

직원: 3(본사파견) 10(현지채용)

Tel. (43-1) 9946 06765

Fax (43-1) 9946 05629

- 기아자동차

Add: Sverigestrasse 5, A-1220 Wien

직원: 1(본사파견), 10(현지채용)

Tel. (43-1) 734 2900

Fax. (43-1) 734 2900-11

<현지 직접투자>

- Daewoo Motors Ges.m.b.H

Add: Am Concorde Park 1/B3 A-2320 Schwechat

직원: 1(본사파견) 17(현지채용)

진출형태: 100% (주)대우에서 투자

회사형태: 유한회사

설립년도: 1994

설립자본금: 약 Euro 1천만

연간매출액: 약 Euro 3천만

Tel. (43-1) 701 41 0

Fax. (43-1) 701 41 - 60

* 이외에도 Hyundai Austria Import Ges.m.b.H.가 있으나 오스트리아 기업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자본참여는 없음.

- Hyundai Austria Import Ges.m.b.H.

Handelskai 430 A-1023 Wien

Tel. (43-1) 727 14 - 0

Fax (43-1) 727 14 - 99

자료원 :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5년3월).

94. 주요경제지표/경제수치 및 전망

경제 수치

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명목 GDP (경상 US\$억)	1,897	1918	2,309	2,556	2,854
1인당 GDP (경상US\$)	23,270	23,596	24,016	24,184	27,184
실질성장률(GDP기준) %	3.5	0.7	1.0	0.7	1.9
물가상승률 %	2.3	2.7	1.8	1.3	2.0
실업률 %	3.7	3.6	4.2	4.3	4.5
외채현황(US\$억)	240.2.	282.5	n.a.	n.a.	n.a.
수 출(US\$억)	642	667	732	735	735
수 입(US\$억)	690	705	728	745	745
연평균환율(1US\$=Euro)	1.082	1.116	1.058	0.8843	0.8065

자료원: 통계연감 2005,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5년 5월호

- 주1. 외환보유고 및 금보유고는 EU중앙은행 보유고만 발표되기 때문에 99년 이후 통계에서 제외
- 주2. 외채현황 2002년 이후 수치 미발표
- 주3. Euro화 통계로는 GDP 및 1인당 GDP가 계속 늘고 있으나
Euro화와 대 달러화의 환율변동으로 달러화 통계로는 증감이 있음.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예상 수치

구분	경제성장률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EURO억	수출증감 %	수입증감 %
2004년	+1.9	+4.5	+2.0	-10	+0.3	+0.2
2005년	+2.2	+4.3	+1.9	-10	+0.5	+0.2

자료원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5년 5월호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전망치

[단위: %]

년도	평균소비	공업생산	설비투자	실질가처분 소득	민간저축률
2004	+ 1.1	+ 2.0	+ 2.0	+ 0.6	8.2 %
2005	+ 1.3	+ 2.2	+ 2.2	+ 0.9	8.5 %

자료원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월간경제” 2005년 5월호

주: 실질가처분소득은 근로자 1인당 증감률

95. 대외거래지표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인원 축소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음.
2003년도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은 2005년 발표 예정

단위(백만 Euro)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수지	-6,330	-5,041	-4,570	949		
자본수지	+6,314	+4,149	3,762	-4,623		
무역수지	-3,377	-2,984	-4,441	396	-2,091	-280
수출	60,504	70,187	78,692	77,400	80,993	94,395
수입	63,881	73,171	74,251	77,104	78,903	94,675
외환보유고(US\$억)	192	n.a.	n.a.	n.a.	n.a	n.a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주) 수출입 수치는 운임이나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치임.

주) 자체외환보유고의 경우 99년 이후 미발표

96.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출 대상국

주요 수출국가

(단위 : 백만유로)

순위	국가	연 도			점유율(%)			증감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0	수출총계	83199.77	85879.64	94394.96	100	100	100	9.92
1	독일	25778.42	26647.75	29616.14	30.98	31.03	31.38	11.14
2	이태리	7510.77	8134.27	8124.95	9.03	9.47	8.61	-0.11
3	미국	4004.34	4098.27	5574.04	4.81	4.77	5.91	36.01
4	스위스	4137.83	4127.09	4105.29	4.97	4.81	4.35	-0.53
5	영국	4016.55	4003.97	3952.57	4.83	4.66	4.19	-1.28
6	프랑스	3803.61	3946.81	3880.52	4.57	4.6	4.11	-1.68
7	헝가리	3546.93	3378.20	3438.62	4.26	3.93	3.64	1.79
8	체코	2224.65	2413.54	2707.46	2.67	2.81	2.87	12.18
9	스페인	2288.85	2237.90	2251.92	2.75	2.61	2.39	0.63
10	슬로베니아	1369.04	1515.79	1905.59	1.65	1.77	2.02	25.72

자료원 : Eurostat(2005년 6월)

97.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입 대상국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유로

백만

순위	국가	연 도			점유율(%)			증감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04/03
0	수입 총계	82804.28	87988.24	94674.67	100	100	100	7.6
1	독일	34971.84	37569.48	42904.91	42.23	42.7	45.32	14.2
2	이태리	5560.23	5909.12	6366.63	6.72	6.72	6.73	7.74
3	헝가리	4203.67	4714.61	3827.51	5.08	5.36	4.04	-18.82
4	스위스	3735.10	4210.68	3794.15	4.51	4.79	4.01	-9.89
5	프랑스	3023.62	3322.09	3638.25	3.65	3.78	3.84	9.52
6	네델란드	3693.41	3723.52	3596.58	4.46	4.23	3.8	-3.41
7	체코	2294.12	2702.29	2858.25	2.77	3.07	3.02	5.77
8	벨기에	2108.65	2093.94	2094.99	2.55	2.38	2.21	0.05
9	슬로바키아	1700.25	1904.92	1881.99	2.05	2.17	1.99	-1.2
10	미국	2907.66	1972.09	1854.92	3.51	2.24	1.96	-5.94

자료원 : Eurostat (2005년 6월).

98.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유로)

HS 코드	품 목	연 도			점유율(%)			증감율 (%)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총 수출액	83199.77	85879.64	94394.96	100	100	100	9.92
84	기계류	14367.56	14787.54	16256.29	17.3	17.22	17.2	9.93
85	전기제품류	12668.21	12657.50	11806.98	15.2	14.74	12.5	-6.72
87	자동차부품	8848.16	8847.35	11463.19	10.6	10.3	12.1	29.57
48	종이류	3857.16	3825.49	3868.17	4.64	4.45	4.1	1.12
39	플라스틱제품	3200.14	3310.04	3501.25	3.85	3.85	3.71	5.78
72	철강	2448.28	2775.08	3432.96	2.94	3.23	3.64	23.71
44	침엽수	2819.07	3026.70	3232.29	3.39	3.52	3.42	6.79
27	석유	1871.22	2040.82	2864.08	2.25	2.38	3.03	40.34
73	철강제품	2420.03	2557.57	2833.18	2.91	2.98	3	10.78
30	의약품	2793.56	2729.40	2630.81	3.36	3.18	2.79	-3.61
88	비행기용 부품	937.13	1073.03	2626.16	1.13	1.25	2.78	144.74
94	가구	2110.14	2227.25	2173.02	2.54	2.59	2.3	-2.43
90	광학기기	1855.75	1873.31	2117.98	2.23	2.18	2.24	13.06
76	알루미늄	1696.09	1723.00	1770.99	2.04	2.01	1.88	2.79
22	음료수	816.77	1064.67	1318.45	0.98	1.24	1.4	23.84
86	철도레일	808.60	1045.14	1146.44	0.97	1.22	1.22	9.69
83	금속공예품	816.66	844.85	983.32	0.98	0.98	1.04	16.39
29	유기화학 물질	1183.43	1091.09	981.49	1.42	1.27	1.04	-10.05
95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934.98	952.56	977.95	1.12	1.11	1.04	2.67
70	유리 및 유리공예품	909.77	900.10	975.72	1.09	1.05	1.03	8.4

자료원 : Eurostat (2005년 6월).

9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입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유로

HS 코드	품 목	연 도			점유율(%)			증감율 (%)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총 수입액	82804.28	87988.24	94674.67	100	100	100	6.76
84	기계류	11705.59	12584.31	13435.63	14.1	14.3	14.2	6.76
87	자동차	9753.02	10371.59	11419.27	11.8	11.79	12.1	10.1
85	전기제품류	10952.33	11529.93	10746.57	13.2	13.1	11.4	-6.79
27	석유	5741.99	6462.14	8187.29	6.93	7.34	8.65	26.7
39	플라스틱제품	3270.84	3500.88	3700.74	3.95	3.98	3.91	5.71
88	항공기	825.94	1342.06	2550.60	1	1.53	2.69	90.05
73	철강제품	2105.59	2265.70	2502.73	2.54	2.58	2.64	10.46
90	광학제품	2256.03	2328.40	2434.87	2.73	2.65	2.57	4.57
72	철강	1555.39	1734.20	2342.97	1.88	1.97	2.48	35.1
30	의약품	2304.59	2334.92	2314.92	2.78	2.65	2.45	-0.86
94	가구류	2196.24	2239.36	2265.53	2.65	2.55	2.39	1.17
48	종이, 페이퍼보 드	1865.44	1931.16	1866.67	2.25	2.2	1.97	-3.34
62	직물	1637.76	1672.54	1755.20	1.98	1.9	1.85	4.94
76	알루미늄	1594.35	1729.62	1729.52	1.93	1.97	1.83	-0.01
44	원목	1446.63	1522.44	1666.06	1.75	1.73	1.76	9.43
29	유기화학물질	1608.77	1586.99	1494.07	1.94	1.8	1.58	-5.86
61	편물	1298.03	1405.26	1460.14	1.57	1.6	1.54	3.91
40	고무	964.51	1026.36	1067.13	1.17	1.17	1.13	3.97
64	신발	904.39	899.98	928.37	1.09	1.02	0.98	3.15
95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685.32	733.63	828.67	0.83	0.83	0.88	12.96

자료원 : Eurostat (2005년 6월).

10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오스트리아의 품목별 수출입현황

<주요 수출품목>

- 2005년 초 현재 2003년 하반기에 주춤했던 핸드폰 수출(재수출물량 포함)이 다시 활기를 띄고, 반도체 및 자동차, 타이어 품목이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도를 기점으로 대 오스트리아 주종 수출 품목군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 전자제품 등으로 굳어지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

[단위:US\$천]

순위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15,873	4.6	669,905	61.1
1	휴대용전화기	147,466	-19.5	270,217	83.2
2	지프형승용차	40,021	26.3	99,795	149.4
3	세단형승용차	42,012	116.5	65,083	54.9
4	칼라TV부품	114	72.6	28,721	25,191.7
5	스테이션왜건	30,292	84.7	28,601	-5.6
6	기타집적회로반도체	26,552	55.8	26,602	0.2
7	HDD	4,726	0.8	24,356	415.4
8	승용차용타이어	14,021	113.4	15,549	10.9
9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16,073	34.2	11,397	-29.1
10	타이어코드	5,961	70.1	6,521	9.4
11	위성방송수신기	1,754	102.6	4,483	155.6
12	버스및화물차용타이어	3,619	209.2	4,378	21.0
13	동박	2,887	3.2	3,894	34.9
14	팩시밀리	2,456	-75.6	3,322	35.2
15	기타컴퓨터부품	505	-85.1	3,271	547.2
16	화물자동차	4,802	57.5	3,213	-33.1
17	캠코더	2,190	205.9	3,114	42.2
18	연축전지	3,730	77.2	2,975	-20.2
19	복사기	835	167.8	2,622	214.1
20	기타전자응용기기	1,721	40.3	2,414	40.2

자료원 : KOTIS (www.kotis.net) (2005년6월).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수입품목>

- 2005년 초 현재, 오스트리아의 대 한국수출 1위 품목인 유리가공품을 선두로, 비스코스레이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운반하역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

[단위:US\$천]

순위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80,255	14.3	454,307	19.5
1	유리가공제품	37,239	7.6	40,922	9.9
2	기타집적회로반도체	21,103	53.4	33,223	57.4
3	비스코스섬유	25,494	37.6	30,250	18.7
4	LNG(액상천연가스)	0	-	23,299	-
5	돼지고기	4,878	-56.7	17,132	251.2
6	기타정밀화학원료	17,570	-9.7	15,685	-10.7
7	의료용전자기기부품	9,948	53.3	14,555	46.3
8	반도체제조용장비	6,277	210.0	12,943	106.2
9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5,581	69.0	10,810	93.7
10	의약품	10,529	48.7	10,753	2.1
11	운반하역기계	10,434	292.3	9,672	-7.3
12	스피커	7,999	-26.4	9,586	19.8
13	기타계측기	3,054	6.7	8,095	165.1
14	지프형승용차	0	-	8,013	-
15	기타재생섬유	4,197	67.4	7,154	70.5
16	전동축맞기어	3,385	-1.0	6,413	89.5
17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7,419	138.2	6,339	-14.6
18	장신구	3,245	-0.1	5,767	77.7
19	기타기계류	8,527	31.7	5,384	-36.9
20	기타플라스틱제품	5,971	1.1	5,336	-10.6

자료원 : KOTIS(www.kotis.net)(2005년6월).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오스트리아 연도별 수출입 규모

<대오스트리아 연도별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215,114	-6.4	1	26,414	19.6	36,946	39.9
1994	194,695	-9.5	2	50,585	20.8	89,151	76.2
1995	228,263	17.2	3	79,623	1.4	137,744	73
1996	186,505	-18.3	4	121,585	19.7	181,842	49.6
1997	165,326	-11.4	5	153,967	18.1	229,967	49.4
1998	186,228	12.6	6	191,119	18.1	288,461	50.9
1999	257,715	38.4	7	222,957	8	350,976	57.4
2000	255,267	-0.9	8	250,938	-2.6	409,594	63.2
2001	223,567	-12.4	9	289,407	-4.1	466,589	61.2
2002	397,731	77.9	10	334,357	-1	526,593	57.5
2003	415,873	4.6	11	374,597	1.5	607,637	62.2
2004	669,905	61.1	12	415,873	4.6	669,905	61.1

* 금액은 누계치

자료원 : 코티스(www.kotis.net)(2005년6월)

<대오스트리아 연도별 수입 규모>

(단위 : 천불,%)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231,431	9.5	1	27,977	11.2	27,723	-0.9
1994	290,942	25.7	2	56,039	27.4	63,013	12.4
1995	430,044	47.8	3	86,635	28.4	96,042	10.9
1996	579,630	34.8	4	112,481	25.9	128,755	14.5
1997	451,911	-22	5	141,623	17.6	164,277	16
1998	241,089	-46.6	6	168,987	16.1	202,599	19.9
1999	194,486	-19.3	7	200,218	14	238,977	19.4
2000	244,864	25.9	8	230,917	10.7	272,233	17.9
2001	284,965	16.4	9	259,599	11.9	306,033	17.9
2002	332,739	16.8	10	308,433	16.4	346,005	12.2
2003	380,255	14.3	11	344,425	12.9	389,751	13.2
2004	454,307	19.5	12	380,255	14.3	454,307	19.5

자료원 : 코티스(www.kotis.net)(2005년6월).

102. 대외 투자진출 통계/건수 및 금액

다음 수치는 2005년 3월 현재,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수치임.

<대외진출 건수 및 투자금액> 단위: Euro 백만

구 분	도착기준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1968 ~ 1980	N/A	N/A
1981	N/A	N/A
1982	39	87
1983	98	174
1984	76	202
1985	43	159
1986	N/A	N/A
1987	N/A	N/A
1988	142	150
1989	N/A	964
1990	288	1,110
1991	61	1,368
1992	102	832
1993	205	1,006
1994	122	1,043
1995	101	828
1996	92	1,488
1997	132	1,762
1998	64	2,469
1999	89	3,098
2000	132	6,230
2001*	106	3,506
2002*	181	5,888
2003*	235	6,878

* 2001년, 2002년 및 2003년 수치는 통계방식 변경으로 예전 수치와 차이.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및 월간통계(2005년3월).

103. 대외 투자진출 통계/국가별 점유율

2001년 국가별 통계는 2005년 상반기 발표 예정

<대외투자액의 국가별 점유율>

(단위: %)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독일	24.7	17.1	15.9	15.6	15.4	14.1
헝가리	12.2	15.4	13.4	9.0	9.1	8.7
영국	6.9	5.6	7.5	9.9	7.8	6.8
미국	7.4	5.2	6.2	7.7	6.5	4.8
체코	0.2	10.4	10.1	7.5	10.7	13.6
스위스	15.1	5.5	6.0	7.0	4.2	4.0
네델란드	6.6	7.9	5.7	4.5	2.7	3.0
카리브 국가*	1.5	3.2	2.9	4.0	1.7	0.9
프랑스	2.3	3.5	3.1	3.9	4.8	4.4
슬로바키아	0.1	2.7	3.9	3.7	3.5	3.4
이탈리아	3.1	2.3	2.1	2.5	2.6	0.8
EU국가 합계	52.4	43.2	39.9	46.0	41.5	36.3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Oe.N.B.) (2005년3월).

104. 대외 투자진출 통계/오스트리아 대외투자누계의 업종별 통계

<2001년말 기준 오스트리아 대외투자 누계의 업종별 통계>

업종	건수	가격(백만 Euro)	총가격 점유율(%)
제조업 누계	916	5,978	25.2
식품제조업	71	548	3.1
광업/에너지산업	30	174	1.0
섬유/의류/피혁	36	104	0.6
목재/목재가공	25	445	2.6
제지/인쇄	49	308	1.8
석유/화학	113	947	5.4
유리/석제	100	569	3.3
금속	112	538	3.1
기계산업	104	211	1.2
전기/전자/광학	102	406	2.3
자동차산업	15	86	0.5
가구/스포츠용구	26	51	0.3
건설업	104	331	1.9
3차산업 누계	1,219	12,568	74.8
유통업	555	1,947	11.2
관광업	28	89	0.5
교통/통신	26	46	0.3
금융업	217	5,372	31.2
부동산/재산신탁	339	4,935	28.5
기타 서비스업	44	179	1.0
총계	2,135	18,546	100.0

*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및 월간통계(2005년3월).

105.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건수 및 금액

<외국인 투자 건수 및 금액>

단위: Euro 백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투자건수	56	20	25	32	24	19
투자금액	2,049	4,778	2,327	10,334	5,0774	2,435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및 월간통계(2005년3월).

106.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가별 점유율

대오스트리아 투자의 국가별 점유율

국가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독일	36.9	42.4	43.3	40.2	47.2	62.2	43.4	39.3
스위스	19.4	13.5	13.3	11.6	10.9	7.4	2.0	1.9
미국	7.8	7.3	7.0	8.4	6.3	4.2	5.7	11.3
이탈리아	3.8	3.1	3.5	7.9	6.8	5.3	3.8	2.4
네델란드	9.6	8.2	8.3	7.7	6.4	4.3	8.1	7.0
프랑스	3.8	4.3	3.7	5.6	3.7	2.3	4.4	4.3
영국	3.2	4.5	3.7	3.7	3.3	2.7	10.8	11.1
일본	3.4	3.6	3.8	2.9	2.8	1.0	1.9	2.1
중동산유국	3.0	2.9	2.7	2.0	2.3	1.6	1.2	1.2
스웨덴	2.1	1.6	2.0	2.0	1.5	0.7	2.0	1.9
EU국가 총계	61.6	66.8	61.0	71.4	72.7	80.9	77.9	72.8

자료원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www.oenb.at)(2005년3월).

107.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의 업종별 통계

<2001년 말 기준,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가격>

업종	업체수	가격(백만 Euro)	총가격 점유율(%)
제조업체 누계	669	2,054	18.5
광업/에너지산업	17	100	0.9
식품제조업	59	136	1.2
섬유/의류/피혁	48	80	0.7
목재/목제가공	16	11	0.1
제지/인쇄	48	125	1.1
석유/화학	102	469	4.2
유리/석재	34	125	1.1
금속	87	165	1.5
기계산업	125	281	2.5
전기/전자/광학	74	439	4.0
자동차산업	18	116	1.0
가구/스포츠용품	18	59	0.5
건설업	41	48	0.4
3차산업 누계	1,902	8,934	81.5
유통업	1,132	3,271	29.5
관광업	57	175	1.8
교통/통신	101	573	5.1
금융업	106	1,689	15.2
부동산/재산신탁	468	3,194	28.8
기타 서비스업	38	31	0.3
총누계	2,588	11,088	100.0

자료원: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및 월간통계(2005년3월).

108.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진출, 유치)

1. 오스트리아의 對韓 연도별 투자현황

[금액 : US\$천]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44.8	1	3,177	3	200	5	269	8	2,565

자료원 : 재정경제부, 신고수리기준

2. 오스트리아의 對韓 업종별 투자현황 누계

[금액 : US\$천]

기계		운송용 기계		건설업		도소매업		무역업		기타 서비스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18,390	1	66	1	438	1	300	5	1,516	4	890	18	21,600

자료원 : 재정경제부, 신고수리기준

3.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투자현황

[금액 : US\$천]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27	1	77	1	33	-	-	-	-

자료원 : 재정경제부, 신고수리기준

109. 물가금융지표

지표	2000	2001	2002	2003
소비자물가지수	100	102.7	104.5	105.9
도매물가지수	100	101.5	101.1	102.8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7	1.7	1.3
통화증가율(M3, %)	5.0	7.2	1.25	7.0
주가지수	100	104	107	110
연평균환율(1 US\$ = ...Euro)	1.0822	1.1165	1.0598	0.8843
중앙은행금리(% , 년말)	3.00	2.94	1.75	1.25

주: 오스트리아는 유로화폐 동맹국이므로 통화증가율은 유로화 국가 12개국 평균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월간 통계

오스트리아 중앙은행(www.oenb.at) (2005년6월).

지표	1996	1997	1998	1999	2000
소비자물가지수*	119	121	122	122.6	125.7
도매물가지수*	101.9	102.2	101.8	101.8	106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3	0.9	0.6	2.6
통화량(M1, Euro 억)	446	469	513	558	569
통화증가율(M1, %)	5.4	4.9	9.6	8.7	10.2
주가지수*	83	94	106	115	129
연평균환율(1 US\$ = ...ATS)	10.56	12.20	12.38	12.80	14.89
중앙은행금리(% , 년말)	3.40	3.40	3.00	2.75	3.00

주: 소비자물가지수 및 도매물가지수는 1990년을 100 으로 산정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및 월간 통계(2005년 6월).

110. 노동통계

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용인구(천명)	3,055	3,075	3,106	3,133	3,148	3,154
실업율(%)	4.4	4.5	3.7	3.8	3.6	4.1
월 평균임금(Euro)	2,180	2,240	2,300	2,360	2,390	2,440
임금상승율(%)	+0.7	+2.8	+1.3	+2.0	+2.7	+2.0
주당 평균근로시간	36.1	35.5	34.9	35.5	35.5	35.4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5.

111.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URL : <http://www.wiiw.ac.at>

비엔나 시정부 및 경제인연합 그리고 노총에서 출자하여 세워진 비엔나 경제진흥 기금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비엔나 지방 차원의 투자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Invest Australia-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		
주 소	Austrian Business AgencyOpernring 3A-1010 Vienna		
전 화	43-1-588 58-0	팩 스	43-1-586 86 59
Web-site	www.aba.gv.at		
E-mail	austrian.business@telecom.at		
기관개요	오스트리아 기업청		